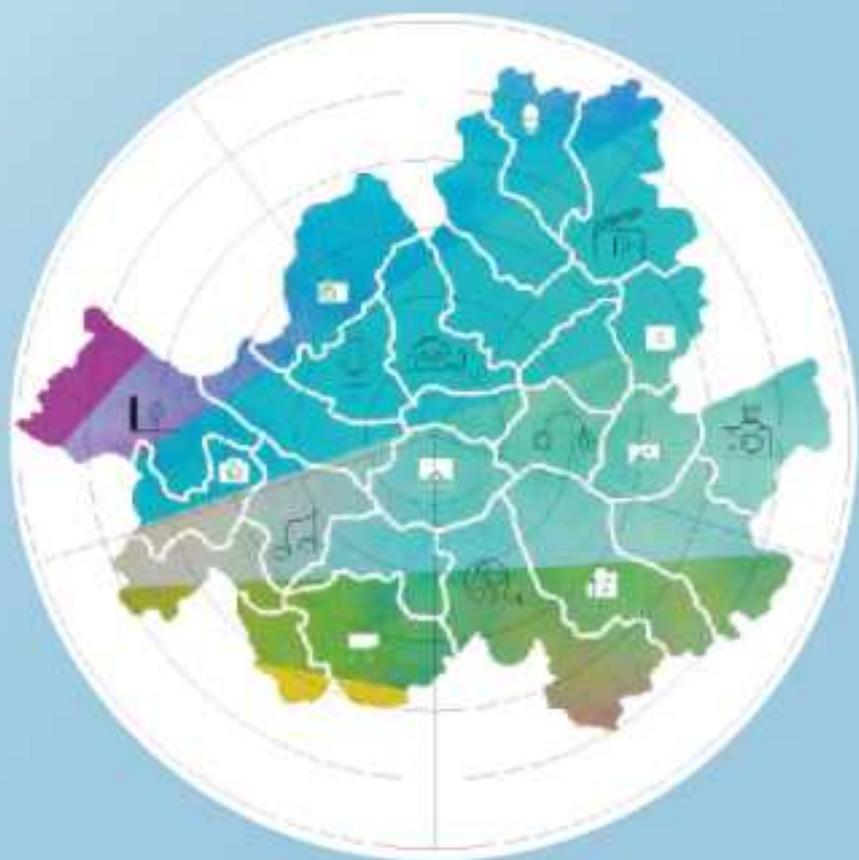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 계획



2014.11
(사)문화사회연구소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2014.11

(사)문화사회연구소



목 차

1 연구개요

- 1-1. 연구목적
- 1-2. 연구배경
- 1-3. 연구내용
- 1-4. 기대효과

2 마을미디어 개념과 현황

- 2-1. 마을미디어 개념과 정의
- 2-2. 마을미디어 사업 정책 환경 분석
- 2-3. 마을미디어 현행 사업 평가
- 2-4. 마을미디어 마을별 사례 평가
- 2-5. 마을미디어 사업의 해외 사례 평가

3 마을미디어 활성화 방향과 추진과제

- 3-1. 마을미디어 활성화의 추진 필요성과 배경
- 3-2. 마을미디어 활성화 3대 기본 방향
 - 3-2-1. 시민의 능동적 참여 확대
 - 3-2-2. 지역공동체문화 활성화
 - 3-2-3. 기반조성 강화
- 3-3. 마을미디어 활성화 6대 추진과제
 - 3-3-1. 시민 미디어 교육 확대
 - 3-3-2. 매체별 시민참여 활동 지원
 - 3-3-3. 마을미디어 콘텐츠 활용 지원
 - 3-3-4. 마을미디어 네트워크 구축
 - 3-3-5. 마을미디어 인프라 조성
 - 3-3-6. 마을미디어 제도 기반 마련



4 마을미디어 활성화 세부 추진과제

- 4-1. 맞춤형 마을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4-2. 마을미디어 교육 전문인력 양성
- 4-3. 마을미디어 동아리 활동, 방송국, 방송 채널, 신문 제작 활동 지원
- 4-4. 마을미디어 청년 사회적 기업 연계
- 4-5. 마을미디어 고유 콘텐츠 제작지원 및 주류미디어 공적 감사활동
- 4-6. 마을미디어 콘텐츠 유통·배급 활성화
- 4-7. 창의적 마을 정보 네트워크 구축
- 4-8. 마을미디어 연합 활동 및 페스티벌 지원
- 4-9. 마을미디어 종합 지원센터 설립 및 권역별 센터 지정
- 4-10. 마을미디어 장비 및 공유미디어 기술개발 지원
- 4-11. 마을미디어 확산을 위한 제도 지원 및 조직 개편
- 4-12. 마을미디어 여론홍보를 위한 연구 지원

5 마을미디어 활성화 추진체계와 소요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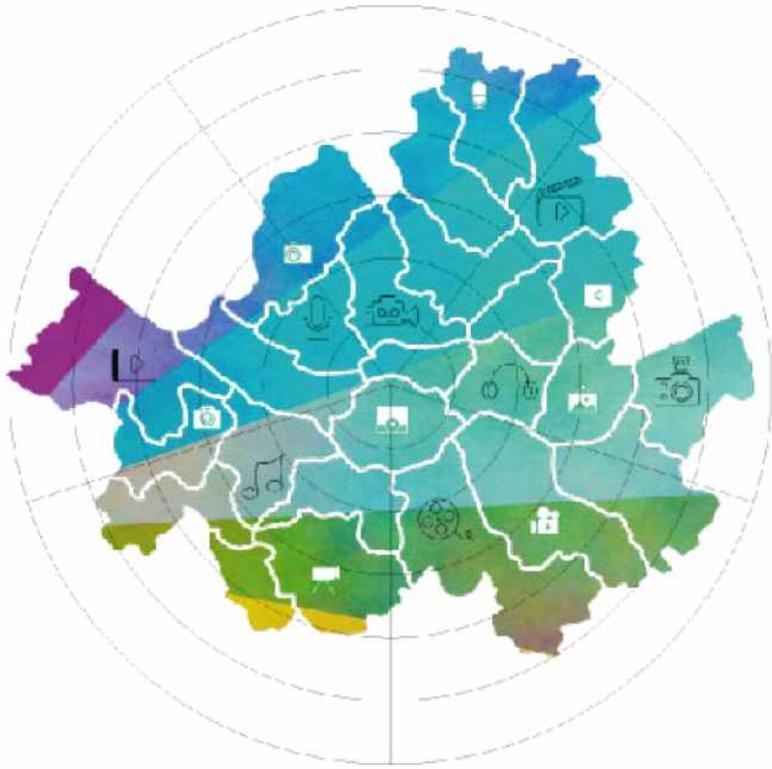
- 5-1. 마을미디어 연도별 발전계획
- 5-2. 마을미디어 활성화 추진체계와 일정
- 5-3. 마을미디어 활성화 소요예산

부록 : 참고문헌



1부

연구개요



1-1. 연구목적

1) 서울시 마을미디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방향 수립

- 박원순 시장이 2011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에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제시. 시민들이 미디어의 단순한 수용자가 아닌 생산자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 수립
- 이러한 공약에 기반 하여 서울시가 우리동네 미디어교실, 서울마을미디어 센터운영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마을미디어에 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 단위로만 진행하여 거시적인 차원에서 활성화 계획이 부재한 상황
- 박원순 시장의 재선으로 민선 6기 서울시의 시정 운영에 있어 공약 사항 중의 하나인 마을미디어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 서울시의 마을미디어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본 사업의 개념과 목표, 방향 정립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려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필요

2)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의 연계성과 마을미디어 사업의 차별화 방안 마련

- 박원순 시장 체제 하에서 강조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정책과 연계하여 마을공동체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이 잘 반영된 마을미디어 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 마을공동체 사업은 대규모 개발사업과 아파트 거대 주택단지들이 주류 거주 형태로 일반화되면서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약화된 것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 마을미디어 사업도 이러한 잃어버린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의 회복과 민주시민으로서 성장이라는 관점을 반영해야 함
- 마을공동체 사업 중에서 마을미디어 사업의 차별화방안도 모색해야 함. 미디어를 통해 시민들이 공동체의식을 회복하고 문화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성화된 사업들 개발 필요

3) 마을미디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개념 정립과 정책 비전 제시

- 중장기 계획 하에서 마을미디어 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에서 검토해야할 개념과 정책 비전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함
- 마을공동체와 마을미디어의 개념, 마을미디어 활동의 해외 사례 분석, 마을미디어가 문화시민 형성에 미치는 효과, 마을미디어가 추구하는 정책 비전 등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먼저 검토해야 할 중요한 개념 정립과 담론 분석 필요
- 마을미디어 사업의 정책 비전은 마을미디어의 개념 정립과 선행사례 분석 및 추진방향의 검토에 따라 제시할 수 있음

4) 마을미디어 방향, 정체성, 개념, 정책 비전에 따른 구체적인 활성화 사업 제시

-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마을미디어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통하여 마을미디어 사업이 장기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기본 방향 제시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외에도 마을미디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에 대한 검토와 구체적인 사업 제시
- 새로운 마을미디어 사업 제안을 통해 서울시의 마을미디어 사업과 다른 연관 사업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통합적인 정책과 사업 제시

1-2. 연구배경

1) 마을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관심

- 마을미디어 사업의 첫 번째 고려사항은 마을공동체 문화. 현대사회가 급격하게 도시화되면서 과거에 존재했던 마을·동네의 문화는 소멸되고 대신 편리하게 고립된 주거문화와 소통이 없는 주민문화만 남아 있음
- 박원순 시장의 취임 이후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마을공동체는 시민중심의 시정철학과, 뉴타운 개발의 대형 개발의 한계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미시적인 도시재생의 정책 비전을 반영하고 있음
- 마을공동체는 주거형태나 도시공간 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살고 있는 작은 단위의 지역에서 얼마나 일상적인 소통과 돌봄이 있고, 문화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지가 관건

2) 새로운 문화시민을 위한 미디어교육의 역할의 강화

- 인구 천만 명의 서울시민들은 많은 미디어를 소비하고 있지만, 대부분 미디어를 수동적인 수용자 관점에서 소비하고 있음
- 방송·언론에서 제공하는 뉴스나 오락 시사 정보들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미디어의 적극적인 수용자와 생산적인 해석자로서의 입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텔레비전·위성채널·케이블 뿐 아니라, SNS에 기반 한 소셜미디어의 증가로 미디어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고, 미디어를 소비하는 주체들이 생산과 소비를 함께 공유하는 '생비자'(prosumer)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 따라서 새로운 방식의 미디어교육이 필요한 상황

3) 마을미디어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새로운 비전 제시

- 마을공동체의 중요성, 새로운 방식의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이 결합하여 마을 미디어 교육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수립할 적절한 시기
- 박원순 시장의 재선에 따른 마을공동체 사업의 구체화·내실화가 필요한 시점. 마을공동체 사업의 특성화 사례로 마을미디어 사업을 확대하고, 사업의 필요성·타당성·적절성·비전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 박원순 시장이 제시한 60대 공약 중 <세상에 딱 하나 내가 만든 우리 마을, 주민희망마을>이 제시되어 있고, "복합갈등지역을 우선으로 희망마을 10곳 선정", "마을방송국·마을극장·마을체육관 등 마을 공동인프라 조성", "마을어린이집·마을의료생협·마을결혼식 활성화", "협동주택·공유주택·에너지절감주택 등 새로운 주택모델 확산", "주민이 원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기금 조성 및 운용" 등의 구체적인 공약이 제시되어 있음
- 현재 추진된 마을미디어 사업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마을미디어 사업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의 시정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중장기 비전을 제시

1-3. 연구내용

1) 마을미디어의 개념과 문화적 의미 연구

- 마을미디어의 개념 정의와 마을미디어 등장의 문화적 의미에 대한 연구가 필요. "마을미디어"(village media) 개념은 미디어 연구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개념으로 새로운 정의 필요
- 마을의 미디어 : 마을미디어는 마을이라는 특정한 지리적 공간 안에서 미디어의 역할과 의의에 따라 정의할 수 있음. 마을의 미디어는 기존의 거대한 형태의 방송국이나 전국 신문이 포괄하고 있는 지리적 범위와 다른 공간을 가지고 있음
- 미디어 속의 마을 : 미디어가 재현하는 마을은 지리적 범주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거주 단위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의 주체성을 포함하기도 함. 미디어 속의 마을의 의미에 대한 개념 정립 필요
-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시민들의 미디어 소비 패턴의 변화 : 소셜 네트워크 중심의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시민들의 미디어 소비 패턴의 변화들이 마을미디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검토 필요
- 미디어의 생산적 활용을 위한 시민문화의 새로운 관점 제시 : 마을미디어는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를 높이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시민문화의 형성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필요성과 교육의 의의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마을 공동체와 미디어 활동의 관계 정립 : 마을미디어는 마을공동체라는 좀 더 넓은 범주의 과제들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디어활동이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필요

2) 마을미디어 사례 분석

- 시민 미디어 활동의 사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
- 서울시가 추진한 그간의 마을미디어 사업의 내용과 평가 (2014년 기준. 서울마을미디어 지원센터 선정사업, 마을미디어교육사업, 마을미디어공방활동지원사업, 서울마을미디어한마당 개최사업 등)
- 해외 마을미디어 관련 혁신 사례 제시 (세계 라디오공동체연합, 미국로체스터, 영국 토트네스, 일본 마치스꾸리 등)

3) 마을미디어 사업의 방향과 조건

- 마을미디어 사업의 주요 발전 방향과 비전 제시
- 마을미디어 사업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고려된 조건 검토 (시장공약, 서울시 문화정책, 미디어 환경 변화, 미디어 활동 현황 등)

4) 마을미디어 사업 활성화 추진 과제

- 마을미디어 사업 추진 영역 분류 : 마을미디어 기반조성, 마을미디어 교육프로그램, 마을미디어 인력양성, 마을미디어 홍보와 시민참여, 마을미디어 사업 연계 방안 등 제시
- 분류된 영역 별로 세부추진과제 제시
- 추진과제의 추진주체와 배경, 사업내용, 기대효과들을 명시

5)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 마을미디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5개년 계획 수립(2015-2019년도)
- (사례예시) 3대 방향, 5대 지원과제, 20대 세부추진과제들로 로드맵 작성
- 마을미디어 사업 활성화 비전 제시와 추진주체, 추진과정 등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마을미디어 사업 비전 다이어그램 제시

6) 추진계획과 소요예산

- 마을미디어 활성화 5개년 계획의 추진과정과 추진방식 등 중장기 계획을 표로 제시
- 해당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 제시

1-4. 기대효과

1) 마을미디어 사업의 체계적인 활성화 계획 수립

- 그동안 사업별로 분산되어 추진했던 마을미디어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 중장기 계획수립을 기반으로 마을미디어 사업의 활성화 기대

2) 마을미디어 사업의 평가와 분석을 통해 새로운 사업방향과 비전 제시

- 그동안 진행된 사업 평가와 분석을 통해 새로운 마을미디어 사업의 방향을 제시
-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마을미디어 사업을 구상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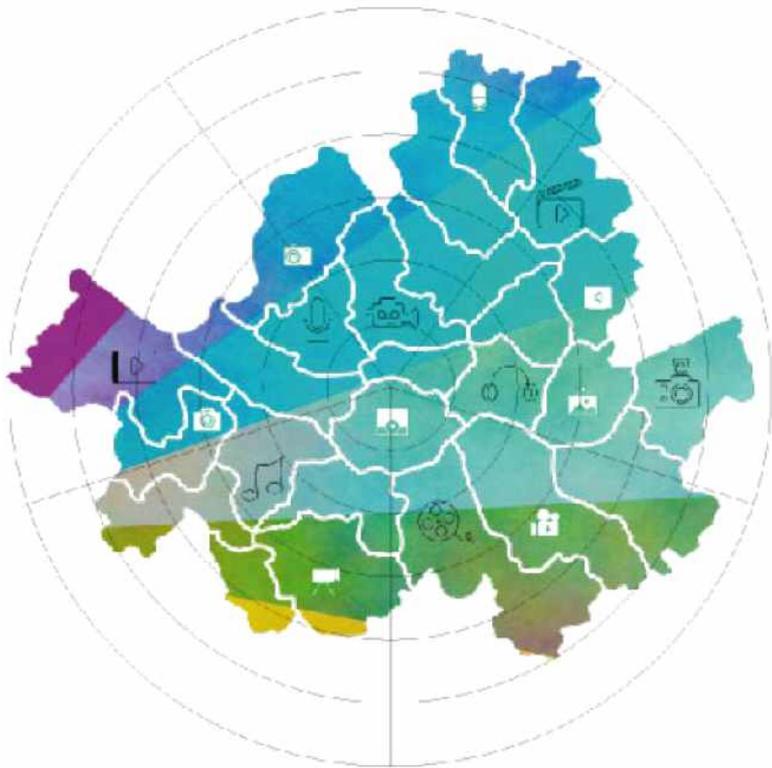
3) 마을미디어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마을공동체의 전체 사업의 문화적 확산을 기대

- 마을공동체 사업 중에서 마을미디어 사업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새로운 문화시민들을 양성하는 다른 사업들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생산
- 시민들이 미디어의 주인이자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고 문화시민의 의미를 부여



2부

마을미디어 개념과 현황



2-1. 마을미디어 개념과 정의

1) 마을미디어의 개념 정의

(1) 용어에 대한 검토

- 마을미디어(village media)는 미디어 연구나 시민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
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으로,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체제 하에서 시작한 마
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구체화되기 시작
- 마을미디어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지역풀뿌리 자치운동'과 '시청자미디어운동'
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지역 자치 운동이자 시민미디어운동으로서, 여기에
공공인프라와 지원제도가 연계된 '미디어 거버넌스'(media governance) 모델
제시
- 기존의 미디어 거버넌스는 방송·언론 및 영상 분야의 시청자 미디어 참여활
동이 중심이었지만, 마을미디어는 시민들의 거주 형 '마을'이라는 특정한 장
소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기존의 미디어 퍼블릭 액세스(public access) 운
동과 차별. 마을미디어는 그런 점에서 커뮤니티미디어(community media) 개
념과 가장 유사
- 커뮤니티 미디어는 지리적 공동체나 동일한 정체성과 이익을 추구하는 공동
체가 만든 미디어를 의미. <국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리서치>에 따르면,
커뮤니티 미디어는 시민사회에서 시작되고 활성화된 것을 의미하고, 시민사
회가 만든 미디어공동체로서 시민들이 지역미디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 목표

- 커뮤니티미디어는 글로벌 지역의 특성에 따라 상업적인 미디어로 발전하기도 하며, 시민들의 자율적이고 자립적인 독립미디어 운동으로 발전하기도 함. 마을미디어는 상업미디어 영역과 독립미디어 영역의 중간에 위치한 것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공공지원이 결합하는 형태를 지향

(2) 마을미디어의 정체성 : 생산·공유·소통으로서 마을미디어

- 마을미디어는 시민들이 거주 지역 단위에서 미디어를 통해 유익한 정보를 생산, 공유, 소통하는 것을 의미
- 생산으로서 마을미디어(Village Media as Production) : 시민들이 미디어의 단순한 수신자를 넘어서 미디어의 발신자가 되고, 미디어의 콘텐츠를 직접 만들며, 정보의 주체가 되는 것. 시민들이 미디어 정보를 직접 생산하는 것만 아니라, 미디어의 제작과 유통의 기술도 함께 보유할 수 있는 것을 지향
- 공유로서 마을미디어(Village Media as Commons) : 미디어의 기술과 도구들을 서로 공유하고, 미디어에서 전해지는 정보의 내용과 가치들을 공유하는 의미. 뉴미디어 시대에 미디어를 자생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기술을 시민들이 공유. 뿐만 아니라 마을의 안전·날씨·교통·육아·교육·여가 등 정보를 마을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서로 공유할 수 있음
- 소통으로서 마을미디어(Village Media as Communication) : 시민들이 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의 이슈와 현안을 서로 소통하는 것을 의미. 분리와 단절의 형태로 되어 있는 서울시의 주거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디어를 통해 거대정보가 아닌 마을 단위의 작은 정보들을 소통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마을 민주주의 소통 실현

(3) 공동체와 시민주체를 위한 마을미디어

- 마을미디어의 개념은 "마을공동체"와 "시민미디어"가 함께 결합된 의미로 이해
- 마을공동체 : 탈산업 사회에서 공동체가 소멸되고 있는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마을의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되, 복고적인 방식이 아니라 현재 도시 문화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환경에 걸맞게 새로운 방식으로 구성. 생태·교육·자치·문화의 가치를 중심으로 소통의 단절과 개인화의 심화 양상을 극복하고, 거주 지역 단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삶의 공동체 의식과 삶의 주인 의식을 갖는 것

- 시민미디어 : 미디어의 단순한 수동자에서 벗어나 시민이 미디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가치를 담고 있음. 거대 미디어 자본의 수동적 시청자가 아니라 미디어를 생산하고 개입할 수 있는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활동. 미디어옴부즈맨 활동과 미디어 제작 주체로 참여할 뿐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 발언하고 싶은 사회·경제·문화 영역의 토픽들을 미디어를 매개로 해서 공론화하는 활동
- 따라서 마을미디어는 미디어를 통한 "공동체문화"의 새로운 형성과, 시민에 의한 "미디어 생산과 수용"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4)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실험장소로서 마을미디어

- 미디어의 대량화·디지털화·글로벌화가 마을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마을의 제한된 공간을 넘어서게 하는 환경 요인으로 볼 수 있음. 하지만 오히려 디지털 미디어 유비쿼터스 환경이 마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효과적으로 마을의 정보를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유비쿼터스 미디어의 작은 실험 : 스마트폰·무선 인터넷 망을 활용하여 마을 단위의 작은 이야기들과 소소한 일상에 대한 정보를 거리와 시간에 상관 없이 공유할 수 있음
- SNS와 웹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이 마을미디어 활성화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음
- 디지털 무선 환경이 마을을 매개하는 미디어의 본래의 기능을 충실하게 전달

2) 마을미디어의 목표

(1) 마을 민주주의의 실현

- 서울시민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 및 문화 향유권 확대. 지속가능한 마을미디어 공동체 모델링. 주민이 직접 생산·소비하는 마을미디어 생태계 구현 (『2013년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결과자료집』)
- 마을 공동체 미디어 생태계(활성화 기반) 조성 (『서울시 마을공동체미디어 중장기 종합계획(초안)』)
- 시민들이 마을 단위에서 활발한 미디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마을의 민주주의를 실현. 마을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마을의 주인인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치활동을 통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함. 마을미디어는 마을 단위에서 미디어 참여와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하는 중요한 장으로 기능

(2)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교육을 통한 문화시민 되기

- 서울시민들의 미디어 소비는 일상적이고 빈번함. <정보통신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들의 스마트폰 일일 사용시간은 66분이고, <한국인터넷정보문화진흥원>의 조사에 의하면 스마트폰 중독 위험 군에 속한 사람들의 일일 평균 사용시간은 4시간 13분. 이밖에 텔레비전·인터넷 등 미디어의 사용은 시민들의 미디어 소비 가중에 기여. 그러나 이러한 미디어 소비가 미디어를 주체적으로 소비하는 문화시민으로의 역량 강화에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미디어와 문화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시민들의 역량 강화의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음
- 유저 중심에 기반 한 뉴미디어 기술과 콘텐츠의 창의적 교육과, 마을과 공동체 문화를 지향하는 미디어 교육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와 공동체문화의 의미를 인지하는 문화시민의 역량 강화

(3)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

- 미디어에 접근하기(accessing media) : 방송과 언론에 대한 주체적인 수용능력을 키우고, 미디어의 수동적 소비자가 아닌 능동적 참여자로서 역량을 키움
- 미디어를 만들기(making media) : 공동체라디오, 지역방송, 지역신문, 지역웹 등 시민들이 직접 미디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교육하고 활동
- 미디어를 활용하기(using media) : 미디어를 활용하여 마을의 다양한 정보들이나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서로 교환하고 공유
- 미디어를 소통하기(communicating media) : 공동체라디오, 지역방송과 신문, 스마트폰 등 다양한 미디어들을 서로 연결하여 정보를 소통하는 역량

(4) 미디어를 매개로 안전·육아·교육 등 마을의 다양한 정보 소통

- 미디어에 접근하기(accessing media) : 시민들이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미디어들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소개되어야 함
- 미디어의 본래의 의미인 매개하기(mediation)의 기능을 활용하여 마을의 안전·교통·날씨·교육·육아·여가 등의 정보가 시민들에게 전달. 미디어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마을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 자원을 미디어를 통해 활성화
- 마을공동체 주민들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마을미디어 사업을 구상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5) 마을미디어 사업의 활성화로 마을공동체 사업의 문화적 확산 기대

- 마을공동체 사업 중에서 마을미디어 사업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새로운 문화시민들을 양성하는 다른 사업들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생산
-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에 있어 미디어의 역할 매우 중요. 마을미디어 활성화는 그 자체로 마을공동체의 문화적 역량을 높이고, 마을미디어에서 문화콘텐츠들이 다양하게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
- 시민들이 미디어의 주인이자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고 문화시민의 의미를 부여

2-2. 마을미디어 사업 정책 환경 분석

1) 마을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관심

- 마을미디어 사업의 첫 번째 고려사항은 마을공동체 문화. 현대사회가 급격하게 도시화되면서 과거에 존재했던 마을·동네의 문화는 소멸되고, 대신 편리하게 고립된 주거문화와 냉정한 주민문화만 남아 있음
- 박원순 시장의 취임 이후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마을공동체는 시민중심의 시정철학을 반영하고 있음. 또한 뉴타운 개발의 대형 개발의 한계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미시적인 도시재생의 정책 비전을 반영하고 있음
- 마을미디어 사업은 박원순 시장 민선6기 시정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로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음
- 마을공동체는 주거형태나 도시공간 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살고 있는 작은 단위의 지역에서 얼마나 일상적인 소통과 돌봄이 있고, 문화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지가 관건

2) 새로운 문화시민을 위한 미디어교육의 역할의 강화

- 인구 천만 명의 서울시민들은 많은 미디어를 소비하고 있지만, 대부분 미디어를 수동적인 수용자 관점에서 소비하고 있음
- 방송·언론에서 제공하는 뉴스나 오락 시사 정보들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미디어의 적극적인 수용자와 생산적인 해석자로서의 입장으로 전환할 필요 있음

음

- 또한 텔레비전·위성채널·케이블 뿐 아니라, SNS에 기반 한 소셜미디어의 증가로 미디어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고, 미디어를 소비하는 주체들이 생산과 소비를 함께 공유하는 '생비자'(prosumer)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 따라서 새로운 방식의 미디어교육이 필요한 상황

3) 마을미디어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새로운 비전 제시

- 마을공동체 사업 중에서 마을미디어 사업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새로운 문화시민들을 양성하는 다른 사업들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생산
- 마을공동체의 중요성과 새로운 방식의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이 결합하여 마을미디어교육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수립할 적절한 시기
- 박원순 시장의 재선에 따른 마을공동체 사업의 구체화·내실화가 필요한 시점. 마을공동체 사업의 특성화 사례로 마을미디어 사업을 확대하고, 사업의 필요성·타당성·적절성·비전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 박원순 시장이 제시한 60대 공약 중에 <세상에 딱 하나 내가 만든 우리마을, 주민희망마을>이 제시되어 있고, "복합갈등지역을 우선으로 희망마을 10곳 선정", "마을방송국·마을극장·마을체육관 등 마을 공동인프라 조성", "마을어린이집·마을의료생협·마을결혼식 활성화", "협동주택·공유주택·에너지절감주택 등 새로운 주택모델 확산", "주민이 원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기금 조성 및 운용" 등의 구체적인 공약이 제시되어 있음
- 현재 추진된 마을미디어 사업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마을미디어 사업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의 시정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중장기 비전을 제시

2-3. 마을미디어 현행 사업 평가

1) 마을미디어 사업 현황

(1) 사업 개요

- 추진근거 : 시장공약사항 8-4-1 (시민이 만드는 라디오·방송국 적극 지원)

<서울마을 방송국 센터 설치>

- 누구나 영상콘텐츠 및 마을방송국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공유
- 상암동 IT-Complex 미디어센터(SMC) 내에 <서울마을 방송국 센터>를 설치하고, 영상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위한 교육 실시

- 사업기간 : 2012년 ~ 2014년 현재

○ 취지 및 필요성

- 미디어 매체가 다양해지고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짐에 따라 시민들이 스스로 정보를 이해·해독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의 향상 필요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민 참여가 요구되는데, 미디어 활동은 중요한 참여수단이며, 미디어는 마을공동체 내 다양한 활동을 위한 주민 간 소통의 도구로서 필수 요소임
- 이에 마을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 간 소통 활성화 및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향상을 위해 시민들에게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마을 단위에서 시민들이 자생적으로 미디어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시민 미디어 활동의 활성화를 꾀함

○ 추진방향

-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시스템 구축

-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마을미디어 활동 육성을 위한 환경 조성
- 지역 미디어센터 지정 혹은 조성을 통해 마을단위 미디어 활동 지원
- 마을미디어 활동을 통해 생산된 콘텐츠를 표출·유통·향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및 확대

○ 추진배경

- 2012년 5월부터 미디어센터, 공동체 라디오, 지역신문 운영진, 마을공동체 관련 전문가 등과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방안 도출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음
- 논의 결과,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향상 및 마을공동체 참여와 소통의 매개 로써 마을미디어 활성화의 필요성과 마을미디어 활동환경 구축의 방향성을 정립함
- 또한 공동체 미디어 교육의 지향점은 ‘학습에서 활동으로, 활동에서 문화로’ 이어지게 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제작 활동을 위해 주민들이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
- 시정운영 계획상의 마을미디어센터를 실제 마을에서 미디어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 또는 활동단위로 개념을 정립하고 기존의 ‘미디어센터’란 용어와 구별하여 ‘마을미디어 공방’으로 지칭. 그리고 마을미디어 공방의 활동 지원을 위해 미디어 교육, 장비·스튜디오 지원 및 컨설팅, 평가 등을 수행하는 지역미디어센터를 운영하는 시스템에 의견이 모아짐
- 마을미디어 공방에는 활동 공간, 초기 활동을 위한 장비 및 운영비용 지원, 사전 교육 및 활동 중 심화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을 제공하기로 함. 또한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되, 추진상황 평가 및 향후 발전방안 도출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를 추진하기로 함

(2) 추진경과 및 실적

○ 추진경과

- 2012년 : 마을미디어의 개념을 알리고 교육지원을 통해 마을미디어 발굴
- 2013년 : 2012년 교육지원에서 교육/활동/네트워크/정책 등으로 사업영역 및 내용을 확대
- 2014년 : 2013년 사업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공방사업과 아카이브사업 등을 확대 실시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표] 마을미디어 사업 추진개요(2012~2014년)

연도	사업명	예산(천원)	사업내용	사업주체
2012	우리마을미디어 문화교실	500,000	마을미디어 교육지원	우리마을미디어 문화교실 사업단 (영화진흥위원회 위탁)
2013	2013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615,000	마을미디어 교육 및 활동지원, 네트워크 및 축제, 정책연구 등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지정위탁)
2014	2014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615,000	마을미디어 교육 및 공방활동지원, 네트워크 및 축제, 정책연구 등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지정위탁)

[표] 마을미디어 사업 추진실적(2012~2013년)

연도	교육		활동		매체
	프로그램(개)	인원(명)	프로그램(개)	인원(명)	라디오/TV/신문 등
2012	46	600	-	-	5
2013	40	700	25	1,500	19

[표] 마을미디어 세부사업 비교(2013~2014년)

영역	2013년 사업	영역	2014년 사업
교육	우리마을 미디어문화 교실 (마을지원)	교육 / 네트워크	우리마을 미디어문화교실 (마을지원)
	마을미디어 특강		마을미디어 특강
	마을미디어 전문가 양성		마을미디어 네트워크
활동	우리마을 미디어 공방 (마을지원)	공방	- 옷따말 정기모임
	우리마을 미디어 공방 (기획형)		- 네트워크 워크숍
네트워크	옷따말 프로젝트	축제	매체지원(매체형)
	창립워크숍		교육-활동 연계지원 (복합형)
	마을 공동사업	활동지원(아이템형)	
	뉴스레터	서울마을미디어한마당	
축제	영상콘서트	정책 / 홍보, 아카이브	정책연구
	서울마을미디어 어워즈		- 마을미디어 정책포럼
정책연구 및 아카이브	마을미디어 정책포럼		- 기획 운영위원회 워크숍
	전문 코디네이터 지원		홍보: 온/오프라인 홍보
	마을미디어 연구	아카이브	
	마을미디어 아카이브	- 뉴스레터 '마중' 발행	
기타	장비 및 공간지원	장비, 시설	- 마을미디어 활동 기록
	홍보 및 지원		-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
	컨설팅	운영	- 활동 사례집 및 DVD 제작
	상담		장비, 시설 구성 및 지원
		학술용역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
			학술용역 추진

2) 세부사업별 내용 및 평가 (2013년 사업 기준)

(1) 우리마을미디어문화교실 (마을 지원 사업)

<사업 개요>

- 기간 : 2013년 5월 ~ 12월
- 목표 및 방향
 - ①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마을미디어 활동을 위한 환경 조성
 - ② 마을미디어 활동가 교육을 통한 전문 역량 강화
 - ③ 마을미디어 운영단체 간 교류를 통한 마을미디어 네트워크 구축
- 참여대상 : 마을미디어 활동을 원하는 주민 (어르신, 여성, 청년 등 구체적 대상은 참여단체 및 주민모임의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
- 사업 진행내용
 - 성과관리 방법
 - ① 모이는 네트워크 : 선정단체 간담회, 강사워크숍, 중간간담회 등 중상으로 모이는 각종 이벤트를 통해 각 마을 단위의 현황과 고민, 과제 수렴
 - ② 찾아가는 컨설팅 : 운영단체 현장방문, 지속적인 모니터링 제안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
 - ③ 성과 공유와 점검 : 사업계획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제출 및 상호 점검, 공식적인 문서 제출 절차를 통해 성과와 한계를 확인하고 보완. 방향을 공유
 - 사업 진행결과
 - ① 늘어난 참여인원 : 전체 32단체, 453명 참여. 연인원으로는 4,500여명이 참여
 - ② 새로운 주체 발굴 : 채널강서발전소, 한아름방송, (사)열린사회시민연합 강동송파지부, 성북나눔의 집 등 2012년 1차년도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체 단체/주민모임이 등장
 - ③ 다양해진 참여단체 결과물 : 전체 114건(3기 75건, 4기 39건)의 짧은 영상물, 라디오방송 녹음분, 신문 및 잡지 인쇄물 등 다양한 형태로 생산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 사업 성과

- ① 새로운 마을미디어 발굴 및 안착 : 강북FM 강프리카, 채널강서발전소, 중랑라디오, 한아름방송 등은 교육 상·하반기를 거치면서 매체로 안착
- ② 기존 마을미디어의 성장 및 확대 : 은평시민신문 ‘거북이라디오’, 마포공동체라디오 청소년 프로그램 ‘야자빼기 좋은날’ ‘카르페디엠’ 등이 그 예로 마을신문이 라디오로 영역을 확장하거나 제작 참여 계층을 확대
- ③ 교육 이후 동아리 활동으로 연계 : 교육이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참여자들끼리의 모임으로 발전((사)열린사회시민연합 강동송과지부, 채널강서발전소, 성북나눔의집, 아델의청소년문화공간 청청청, 행복한반올림 등은 동아리를 거쳐 영상 제작단으로 성장할 가능성 있음)
- ④ 마을과 공동체를 고민하는 개인의 발견 : 매체나 동아리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마을과 공동체를 이해하고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개인이 늘어남
- ⑤ 지역 내 네트워크 형성 : 참여자 모집, 공간 임대 등의 과정에서 활동 지역 내 단체·기관과의 네트워크가 형성됨. 비슷한 활동을 하는 다른 지역 마을미디어 및 활동가와 연계하는 경우도 있음. 한 예로 노원 공릉 지역에서 활동한 창의미디어이니셔티브의 경우 젊은 예술가 개인이었던 청년들이 지역 단체와 네트워킹하며 마을미디어 사업을 수행, 노원의 명소를 배경으로 한 뮤직비디오를 제작함

○ 향후 과제

- ① 안정적인 상근 활동가 확보 : 마을미디어에서는 운영담당자의 역할이 큰 만큼 운영을 전담할 수 있는 상근 활동가가 마을 당 최소 1인씩이라도 안정적으로 배치되어야 할 것임. 특히 2012년부터 2년 동안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온 단위의 경우 역할 교대 필요함
- ② 참여자 모집 및 홍보 채널 확보 : 참여자 모집 및 지속적 유지 관리의 어려움. 구청, 동 주민센터, 학교 등 공공기관과의 업무 협조 필요함
- ③ 결과물 액세스 및 홍보 채널 확보 :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지상파 액세스 프로그램에 출품하기도 하지만 우리들만의 독립된 채널 필요. SNS, 보도자료 등 다양한 홍보 방안 필요함
- ④ 효율적인 공간 사용 : 동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의 경우 야간이나 주말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 단위에 따라서는 참여자들이 편하게 느끼는 공간이 따로 있을 수 있으니 무조건 무료공간을 권장하기보다는 참여자들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고 대여비를 책정해야 함
- ⑤ 장비의 효율적 사용 : 대여 기간과 수량을 여유 있게 해달라는 평가가 있었고, 라디오 장비 장기대여를 원하기도 함. 편집용 노트북의 경우 프리미어 등 영상 편집 프로그램 외에도 인디자인 등 인쇄매체 편집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있

- 음. 장비 대여 계획 마련 시 소프트웨어 고려할 필요 있음
- ⑥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 마을미디어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커리큘럼 개발 필요. 사업 2차 년도가 지나면서 커리큘럼이 평준화되는 경향이 있음. 공통과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되었는지 재확인할 필요도 있음. 10차시 안에 공통과정을 포함시키는 것이 단체/주민모임의 수준 따라서는 부족할 수도 있음
- ⑦ 평가 체계 확립 :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고 참여자 만족도를 확인할 필요 있음

(2) 우리마을미디어문화교실 특강

<사업 개요>

- 기간 : 2013년 7월 ~ 11월
- 교육시간 : 3시간×8차시 = 24시간
- 교육내용 : 마을미디어 활동가를 위한 이론 및 실습 심화교육
- 참여자 : 마을미디어에 관심 있는 활동가 및 주민 240명
- 사업목표 및 방향
 - ① 마을미디어 사업 홍보 : 특강을 홍보하고 참여자를 모집하는 과정, 진행 후 결과를 공유하는 과정 등에서 일반 시민 대상 ‘2013 서울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홍보하는 계기가 됨
 - ② 마을미디어 사업 참여자 역량 강화 :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참여단체 및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됨.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프로그램 워크숍, 아나운싱 및 생중계, 회계프로그램 및 정산 관련 교육 등 마을미디어 활동에 필요한 교육이라는 평가를 받음
 - ③ 참여단체 간 네트워킹 : ‘특강 이벤트’는 참여단체 활동가들이 서로 만나면서 정보를 나누고 친해지는 계기가 됨. 이후 네트워크 조직, 축제 등으로 확장하게 됨
- 사업진행 내용
 - 성과관리 방법
 - ① 보도자료, SNS, 이메일, 커뮤니티 카페 등을 통해 홍보 채널 확대.

- ② 마을미디어 사업 참여단체 개별 연락을 통해 특강 참여를 독려함
 - ③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센터에 바라는 점, 다음 특강에 바라는 점 등을 묻는 사후 설문문을 통해 평가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사항을 다음 특강에 반영함
- 사업진행 결과
- ① 8개 프로그램, 전체 240명의 주민들이 특강에 참여함
 - ② 참여 주체들이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갖고 마을미디어 활동에 적용하게 됨. 특강을 통해 다른 마을미디어 참여자들과 교류하며 공동 사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도 함
 - ③ 신규 참여 주체 발굴 : 특강 참여 등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던 일부 단체는 하반기 우리마을미디어문화교실 참여단체로 성장하기도 함

○ 사업 성과

- ① 마을미디어 사업 참여 단체/주민모임 주체들끼리의 내부 네트워킹
- ② 2013 마을미디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개인 및 단체에 외부 홍보
- ③ 단체 내부 교육에서 소화할 수 없는 내용 보완 : 플랫폼, 라이브방송, 아나운싱, 모험놀이, 다큐멘터리 등 교육 및 활동에 접목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

○ 향후 과제

- ① 참여자 양적 규모 확대 :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강연을 기획할 필요가 있음. 인지도 있는 강사, 매력적인 강의 주제 발굴 등 보완 방안을 찾아야 함
- ② 충분한 교육 시간 확보 : 내용 전달을 위한 충분한 교육시간을 확보해야 함. 짧은 시간에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다보니 내용 전달 측면에서 아쉽다는 사후 평가가 많음. 또한 강의 내용에 따라서는 실습을 별도로 프로그램으로 배치할 필요도 있음
- ③ 홍보 다각화 : 강사 및 운영자뿐만 아니라 마을 단위별 교육 참여자에게도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마을미디어 사업 외 다른 마을사업 참여단위에도 홍보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확보
- ④ 프로그램 진행 후 사후 홍보 : 참여자 이메일, SNS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결과를 공유하면서 사후 홍보 작업을 이어갈 필요 있음

(3) 마을미디어 활동가 양성과정

<사업 개요>

- 기간 : 2013년 7월, 2014년 2월
- 진행 : 단계별 마을미디어 활동가 양성과정으로 운영 (8차시×2회)
- 사업목표 및 방향
 - ① 마을미디어 활동가 발굴 및 육성 : 기초/심화의 수준별 마을미디어 활동가 양성과정을 구성하여 마을미디어에 관심 있는 이들의 참여를 높이고, 실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거주지역의 마을미디어 현장과의 연계를 꾀함
 - ② 마을미디어 참여 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한 마을 내 인적 순환구조 마련 : 우리마을 미디어 문화교실, 우리마을 미디어 공방 등을 통해 마을미디어에 참여한 주민들이 마을미디어 운영자, 오퍼레이터, 강사 등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진행 내용
 - 성과관리 방법
 - ① 보도자료, SNS, 이메일, 커뮤니티 카페 등을 통해 사전 홍보
 - ② 마을미디어 사업 참여단체 개별 연락을 통한 참여 독려
 - ③ 상근조교를 통한 원활한 수업 운영과 차시별 수업후기 웹카페 게시
 - ④ 사후 평가 설문을 통해 개선 사항 반영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센터에 바라는 점, 다음 특강에 바라는 점 등)
 - 사업진행 결과
 - ① 3시간×8차시×2회 교육 운영
 - ② 총 30명 참여 : 기초 17명, 심화 13명 참여 (성과집계에는 심화과정만 반영)

○ 사업 성과

- ① 기초/심화과정의 운영을 통해 마을미디어의 수준별 교육체계의 기본 틀 마련
- ② 기초과정을 통해 마을미디어 신규 활동가 양성 및 마을과 연결 : 도봉N, 중랑 희망연대 등 양성과정 참여자가 교육 이후 마을미디어 활동시작. 뿐만 아니라 양성과정 참여자가 교육이후 마을미디어 지원 사업 등을 통한 활동 진입 시도
- ③ 심화과정을 통해 마을미디어 사업 참여주민의 라디오 방송프로그램 오퍼레이팅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꾀할 수 있었음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 향후 과제

- ① 양성과정의 체계화 필요 : 단계별/과목별 등 다양한 양성과정 커리큘럼 개발, 기획/운영/강사/오퍼레이터 등 영역에 따른 전문 양성과정 필요, 양성된 인력에 대한 사후관리와 후속지원 프로그램 필요
- ② 양성과정 운영 시기의 조정 필요 : 마을미디어 교육 및 활동 등에 양성된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마을지원 사업과의 일정 조율이 필요
- ③ 본 과정을 통해 양성된 인력의 네트워크 및 사후 지원 필요 : 활동가들의 폭넓은 마을미디어 관련 활동의 기획과 실행을 위한 양성된 인력의 프로젝트 등의 활동지원이 필요함

(4) 우리마을미디어공방 (마을 지원 사업)

<사업 개요>

- 기간 : 2013년 6월 ~ 12월
- 진행절차 : 마을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 → 사업설명회 → 주민제안서 접수 → 심사위원회 → 현장 및 면접심사 → 선정단체 간담회 → 지원금 지급 → 마을별 활동 진행 → 중간간담회 → 중간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 제출 → 정산 및 최종 평가
- 사업목표 및 방향
 - 아이템형
 - ① 마을 주민의 자발적 미디어 놀이터 및 동아리 지원을 통한 주민 소통 강화
 - ②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적 주체의 확대, 공동체 활성화
 - ③ 게시판, 상영 등 새로운 마을 미디어 활동 발굴
 - 매체형
 - ① 라디오, 신문, TV 등의 플랫폼 지원을 통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마을 이슈 생산 및 확대
 - ② 안정적인 마을 콘텐츠 생산을 통한 마을의 다양한 세대별 계층별 이야기 및 이슈의 심화 및 발전
 - ③ 지역 거점 마을 미디어 활동 실험
 - 코디네이터형
 - ① 마을 주민의 자발적 미디어 놀이터 및 동아리 지원
 - ② 제작 및 유통 전문 코디네이터 결합으로 교육 후속 활동 장려

○ 사업 진행 내용

－ 아이템형 (12곳)

- ① 미디어를 활용해 다양한 마을 이야기를 풀어내는 모임 및 동아리 지원
- ② 마을을 거점으로 하는 전시 및 상영 활동 지원
- ③ 주민들의 소식을 면대면으로 전하는 인쇄물 및 게시판 지원
- ④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 공동 사업 지원
- ⑤ 마을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시적인 미디어 활동 지원

－ 매체형 (7곳)

- ① 아이, 성인, 어르신 등 다양한 세대의 마을 이야기를 담는 콘텐츠 유통 지원
- ② 보육이나 돌봄, 환경, 복지 등 마을 공동 주제를 논의하는 콘텐츠 유통 지원
- ③ 지역 현안의 발굴과 확산을 위한 콘텐츠 유통 지원
- ④ 지역적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독창적 콘텐츠 유통 지원
- ⑤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마을 미디어 콘텐츠 제작과 유통, 운영을 위한 장비 대여 및 제작비, 배급비 지원

－ 코디네이터형 (5곳)

- ① 우리마을미디어문화교실 참여자 대상 실습 기회 제공
- ② 교육 후속 활동 성격의 단기 프로젝트 지원
- ③ 코디네이터 강사비 지원, 장비대여 현물 지원

○ 사업 성과

- ① 아동, 청소년, 성인(주부, 청년 등), 노인 등 서울 지역 전 세대와 다양한 계층이 참여 : 연간 누적 인원 7,653명(제작자 532명, 단순 참가 누적 인원 7,121명)
- ② 각 지역별, 세대별, 계층별 특성이 담긴 참신한 마을미디어 콘텐츠 생산 및 활동 수행 : 종별 결과 316편(회)
- ③ 신문/잡지, 라디오, 영상, 상영회, 전시회, 게시판 운영 등 다양한 마을미디어 콘텐츠 생산 및 독창적 모델 발굴, 실험 : 라디오 234편, 영상 38편, 신문/잡지 27편, 상영회/전시회/공연/게시판 운영 17회
- ④ 교육, 워크숍, 홍보 활동 등 마을미디어 활동가 역량 강화 : 52회
- ⑤ 자문회의, 간담회, 네트워크 등을 통한 합리적 운영
- ⑥ 초등학생, 중고교생, 학부모, 도시 텃밭 운영자, 임대아파트 주민, 인디밴드, 지역 예술가, 뉴타운 주민, 봉제 여성 노동자, 어르신, 시민사회단체 등 전 세대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함
- ⑦ 생태, 교육, 주거, 문화, 재개발, 복지, 인권 등의 다양한 주제와 이슈 등을 독창적 미디어 콘텐츠로 녹여냄
- ⑧ 지역의 역사를 담은 책자 발간, 다양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영상 뉴스, 편안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한 수다가 함께 하는 라디오 방송, 독창적 게시판 및 지도, 마을 사진 전시 및 영상 상영 등 참신한 마을미디어 콘텐츠가 만들어졌으며, 친근하고 재미있는 마을미디어 활동을 통해 주민 간 교류와 소통이 강화됨

- ⑨ 정기적인 마을 콘텐츠 방송 및 발간을 통해 지역 이슈에 대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
- ⑩ 자문회의/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교육, 자문,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본 사업을 합리적으로 원활하게 운영함

○ 향후 과제

- ① 다양한 활동 모델 발굴 및 실험 : 이야기 하는 마을 극장, 오픈 게시판 및 인권 지도, 영정 사진 촬영 및 마을 사진 전시회 등 독창적 활동 모델이 만들어짐. 이 같은 다양한 활동의 방식을 소개하고 공유하면서, 마을미디어 활동에 대한 상상력을 키우고, 또 다른 계층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함
- ② 계층과 지역의 확대 :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세대가 참여했으며, 독립생활자, 주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으나, 이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음. 향후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해야 함
- ③ 행정 절차 간소화 및 기준 완화 : 다채로운 마을미디어 활동을 위해서는 각 사업별로 새로운 주체가 많이 발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참여를 위한 조건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야 함. 실제 다수의 주민모임이 고유번호증 발급 등의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대다수 사업 참여 단위에서 행정 서류 과다와 사업비 기준에 대한 개선을 요구함
- ④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마련 및 플랫폼 확대 : 늘어나고 있는 마을미디어 활동과 피드백, 공유 및 확산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플랫폼이 마련되어야 함

(5) 우리마을미디어공방 (기획형)

<사업 개요>

- 기간 : 2013년 8월 ~ 2014년 2월
- 진행절차 : 마을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 → 사전 시장조사 → 업체선정 → 계약체결 → 사업 착수 → 결과물 도출 → 정산 및 최종 평가

○ 사업내용

- ① 각 지역 마을 미디어의 변화 지점과 쟁점을 시기별로 모아 서울 지역 마을 미디어 성장기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개발
- ② 다양한 마을 방송을 모아 누구나 손쉽게 어디서든 보고 들을 수 있는 수평형 스마트폰 앱 개발

○ 사업목표 및 방향

- ① 마을미디어 콘텐츠의 유통 및 배급 활성화
- ② 마을미디어 정보수집 및 접근성 향상

○ 사업진행 내용

- 성과관리 방법

- ① 마을미디어 콘텐츠 제작 현황 및 플랫폼 기초 조사
- ② 마을미디어 콘텐츠 제작 마을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③ 전문 개발 업체 선정을 통한 제작

- 사업진행 결과

- ① 마을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플랫폼 현황 조사 및 의견 수렴: 마을미디어네트워크 정기모임 및 마을미디어 포럼 등
- ②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선정 및 계약
- ③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 사업 성과

- ① 마을미디어 사업 참여 단체/주민모임 주체들끼리의 네트워킹
- ② 마을라디오, 마을TV, 마을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합플랫폼의 마련
- ③ 통합플랫폼을 통해 마을미디어 콘텐츠 접근성 향상
- ④ 마을미디어 콘텐츠의 배급 및 유통 확장을 위한 기반 마련

○ 향후 과제

- ①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마을미디어 유통 및 배급 운영 방침 마련
- ② 어플리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확대

(6) 네트워크 정기모임 ‘웃고, 떠들고, 말하는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모임 (이하 웃떠말)’

<사업 개요>

- 기간 : 2013년 7월 ~ 12월
- 교육시간 : 3시간×8차시 = 24시간
- 프로그램 내용 : 배울거리와 나눌거리로 구성
- 참여자 : 마을미디어에 관심 있는 활동가 및 주민 100여명
- 사업목표 및 방향
 - ① 마을미디어 활동가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기반 형성
 - ② 마을미디어 활동의 공통 의제 발굴 및 과제해결을 위한 논의
 - ③ 마을미디어 역량강화 및 마을간 연계 강화
- 사업 진행 내용
 - 성과관리 방법
 - ①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획/운영 개방
 - ② 보도자료, SNS, 이메일, 커뮤니티 카페 등을 통해 사전 수요조사 및 홍보
 - ③ 마을미디어 사업 참여단체 개별 연락을 통한 참여 독려
 - ④ 사후 평가 설문을 통해 개선 사항 반영(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센터에 바라는 점, 다음 특강에 바라는 점 등)
 - 사업진행 결과
 - ① 마을미디어문화교실, 마을미디어공방 등과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 운영
 - ② 총 8회 네트워크 정기모임 운영, 100여명 참석
 - ③ 마을간 공동사업 운영, 5개 사업 10개 마을 참여 (별도사업으로 운영)
 - ④ 평균 90% 이상의 사업만족도 도출
- 사업 성과
 - ①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② 마을 내 부족한 경험과 역량을 나누며 함께 성장
 - ③ 정보 및 의견 교류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마을미디어 구성과 운영 가능

- 향후 과제
 - ① 마을미디어네트워크의 안정적 운영구조 만들기 :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주민모임이 중심이 되어 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하도록 함. 안정적 네트워크는 향후 마을미디어 사업의 중요한 의견 그룹이 될 수 있음
 - ② 마을 현장 활동가 중심의 네트워크 모임 운영 : 2013년 마을미디어지원센터 주도의 정기모임을 마을 주도로 전환해 마을 현장 활동가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③ 네트워크 활동의 다양화 : 전체 모임/권역별 모임/매체별 모임 등 필요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모임 구성이 가능함. 각 마을미디어의 수요를 반영해 네트워크 활동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 있음
 - ④ 마을간 공동사업 및 정책연구 기능 강화 : 마을 현장의 필요에 의한 정책을 발굴하고 의제를 담론화 할 필요 있음. 이는 마을간 공동사업이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가능함. 네트워크 참여 활동가들의 필요에 따라 정책 연구 기능을 강화 할 수도 있음

(7) 네트워크 창립 워크숍

<사업 개요>

- 일시 : 2013년 8월 23일 (금) ~ 8월 24일 (토) | 1박 2일
- 장소 : 서울국제유스호스텔 (남산)
- 참여자 : 2013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참여 단체 및 주민모임 등 50여명
- 사업목표 및 방향
 - ① 마을미디어 활동가 교류 및 역량강화
 - ② 마을미디어네트워크 창립 및 운영 논의
- 사업진행 내용
 - 성과관리 방법
 - ① 보도자료, SNS, 이메일, 커뮤니티 카페 등을 통해 사전 수요조사 및 홍보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 ② 마을미디어 사업 참여단체 개별 연락을 통한 참여 독려
 - ③ 사후 평가 설문을 통해 개선 사항 반영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센터에 바라는 점, 다음 특강에 바라는 점 등)
- 사업진행 결과
- ① 마을미디어 활동가 등 50여명 참여, 강의 및 포럼, 워크숍으로 구성
 - ②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마을미디어 현장교류 및 역량강화

○ 사업 성과

- ① 친근한 공동 프로그램 및 다과 등을 통한 마을 미디어 활동가 간 교류 확대
- ② 강의, 주제별 워크숍 등을 통한 마을 미디어 활동가 역량 강화
- ③ 각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
- ④ 아이 돌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참여 확대
- ⑤ 사전논의를 통한 네트워크 구성의 필요성 도출 : 마을현장의 필요와 공감대 형성을 통한 네트워크 구성

○ 향후 과제

- ① 사업 및 네트워크에 대한 마을 간 편차 개선 사업 및 논의 참여 정도에 따른 마을 간 편차 극복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② 사전 공지 등을 통한 마을 사업과의 시기조율 필요 : 전체 공모 일정 지연으로 하반기 사업이 집중되어 시기적 한계가 있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전 일정 공지를 통한 마을 사업과의 시기 조절,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구성 등이 필요함

(8) 서울마을미디어뉴스레터 <마중 (<http://maeulmedia.tistory.com/>)>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3년 7~12월 (월 1회, 총 6회)
- 주요 사업 내용 : 마을미디어 인터뷰, 이슈, 소식, 기술 및 활용 정보 제공, 지원센터 소식 전달
- 사업목표 및 방향

- ① 마을미디어 활동에 대한 정기적 정보 생산을 통해 마을 간 소통 활성화
- ② 마을미디어 관련 이슈 개발 및 분석
- ③ 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 대한 친근감 확대

○ 사업진행 내용

- 성과 관리 방법

- ① 발행 횟수, 기사 수, 참여자 수, 방문자 수, SNS 등을 통한 독자 의견 등
- ② 시기별, 주제별, 코너별 주제 및 이슈 선정, 기사화 등을 통한 내용 평가 등

- 사업 진행 내용

- ① 월 2회 기획회의 진행 → 기사 작성 → 편집 및 디자인, 코딩 → 발행
- ② 블로그를 통해서 포털사이트 및 모바일 접근성 높임 (한 달 평균 방문자 수 600여명)
- ③ 티에디션을 통해 블로그가 아닌 뉴스레터 형태로 볼 수 있게 구현
- ④ 메일링 등을 활용하여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구현 (한 호당 평균 200여명 메일 발송)
- ⑤ 코딩을 통한 메일판으로 해당 페이지로의 링크가 이뤄지도록 함
- ⑥ 기존 플랫폼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술적 잡무를 최소화하여 내용과 유통에 집중하도록 운영
- ⑦ SNS (트위터, 페이스북)와의 연계를 통한 접근성 향상 (2014년 2월 현재 페이스북 친구 468명, 트위터 팔로워 수 309명)
- ⑧ 자연스러운 네트워크 활성화, 흥미 유발, 중장기 목표를 둔 카테고리 설정 등으로 마을 활동가의 지속적 방문 유도, 공론장 마련, 향후 활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사업 성과

- ① 총 6회, 62개 원고 생산, 객원 필자 31명 참여
- ② 마중 블로그 2013년 7월 9일 개설, 2014년 7월까지 총 8,000여명 방문, 한 달 평균 약 700명 방문, 한 호당 200여 명에게 메일 발송
- ③ 각 마을미디어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소식 공유 및 교류 활성화
- ④ 마을미디어 활동에 유효한 관련 정보 제공
- ⑤ 마을미디어 생산 콘텐츠 리뷰를 통한 마을미디어의 의미 확산
- ⑥ 마을미디어지원센터 활동에 대한 정리 및 의미화
- ⑦ SNS 연동 등을 통한 마을 미디어 활동 확산 (2014년 2월까지 페이스북 친구 785명, 트위터 팔로워 수 379명)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 향후 과제
 - ① 마을미디어 이슈 발굴 : 기사 내용이 다소 행사 후기에 편중됨, 적극적으로 마을미디어의 쟁점과 내용을 발굴 및 기획하는 것이 필요함
 - ② 마을미디어 사례 확대 : 뉴스레터 발행 초기라 기존에 오래 활동을 해왔던 단체를 중심으로 다뤄졌으나, 향후 신진 마을미디어 활동 단체 등 다양한 마을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③ 마을 활동가 참여 확대 : 공모 지원으로 마을미디어 활동이 하반기에 집중되면서 마을 활동가들의 참여를 마을 소식 형태로 최소화할 수밖에 없었음, 향후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마을 간 소통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9) 마을과 미디어가 만나는 영상콘서트

<사업 개요>

- 일시 : 2013년 9월 28일(토) 오후 12시 ~ 1시40분
- 장소 : 서울시청 시민청 B1 활짝라운지
- 내용
 - ① 영상 작품 상영 : 성북마을방송 와보송 '아빠들의 수다' / 마을신문 도봉N '친절한 남자' '나의 serendipity 도봉N' / 아델의 청소년문화공간 청청청 '기타를 찾아서' / 다큐희망 '어른들에게 궁금한 것들' / (사)열린사회시민연합 강동송파지부 '터진 김밥' 등 5개 단체 6개 작품 상영
 - ② 축하공연 : 도봉 어린이 칸타빌레 중창단 / 청소년 믹스댄스 동아리 J lection / 시, 책, 평화를 노래하는 가족합창단 화모니
- 참여자 : 교육 참여자 및 일반 관객 포함 전체 100여명
- 사업목표 및 방향
 - ① 마을미디어 참여자 자존감 향상 및 네트워크 강화
 - ② 마을미디어 활동의 성과물 공유 및 대시민 홍보
 - ③ 시민이 직접 계획 및 참여하는 축제 실행

○ 사업진행 내용

- 성과관리 방법

- ① 보도자료, SNS, 이메일과 커뮤니티 카페 등을 통해 사전 홍보 : 웹용 포스터와 소셜멘터리 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홍보함. 사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연합뉴스 등 언론매체에서 기사화되면서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짐
- ② 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을 통한 참여적 기획 과정 실행 :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 참여 마을들과 함께 논의하여 주민들이 행사를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함. 성북마을방송 와보송, 아델의 청소년문화공간 청청청, (사)열린사회시민연합 강동송파지부, 마을신문 도봉N 등 영상콘서트 참여 주체와 함께 기획 및 평가를 진행함
- ③ 영상작품 공모전 실시를 통해 참여 유도 및 홍보 다각화 : 우리마을미디어문화교실 참여단체 외에 마을미디어를 다루는 다른 단체/주민 모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영상작품 공모전을 실시함. 이를 통해 외부 참여를 유도하고 행사도 홍보

- 사업진행 결과

- ① 우리마을미디어문화교실 참여단체 중 5개 단체 참여, 6편 상영 : 성북마을방송 와보송, 아델의 청소년문화공간 청청청, (사)열린사회시민연합 강동송파지부, 마을신문 도봉N 등 5개 단체의 작품 6편을 상영함
- ② 마을 아마추어 공연 3팀 참여 : 영상 작품을 출품한 마을의 다른 아마추어 공연팀도 참여해 행사의 의미를 나눔. 마을신문 도봉N 강사의 딸이 다니는 피아노 학원 중창단, (사)열린사회시민연합 강동송파지부 운영담당자가 속해있는 가족합창단 등 마을 자원이 모여 행사를 함께 만들
- ③ 2013 서울마을박람회 연계를 통해 마을공동체 사업과 연계 : 같은 기간 열린 서울시 정책박람회, 마을박람회 등과 연계해 유관단체와 협력함. 영상교육 단위들이 영상콘서트를 하는 동안 라디오교육을 진행한 마을 단위는 마을박람회에서 보이는 라디오 방송에 참여하기도 함

○ 사업 성과

- ① 참여자의 자존감 향상 : 공적 공간에서의 작품 상영, 참여 기념패 증정 등을 통해 참여자들이 활동을 인정받게 됨
- ② 마을미디어 홍보 계기 : 작품 공모전 안내, 사전 사후 행사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연합뉴스 등 5곳을 통해 기사화됨
- ③ 상반기 영상교육의 성과 공유 : 상반기 우리마을미디어문화교실에 참여한 5개 단체, 6개 작품을 함께 관람하며 상반기 활동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었음
- ④ 마을의 아마추어 공연을 통한 마을 연합 계기 : 외부 유명 인사가 아닌 마을미디어 사업 참여단위 마을에서 축하공연단을 섭외하여 마을이 함께 만드는 축제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가 되도록 함

- ⑤ 행사 생중계 통해 접근 범위 확대 : 서울시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채널을 통해 행사를 생중계하고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식을 전함으로써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과도 현장을 공유함

○ 향후 과제

- ① 마을미디어 사업 참여 단체/주민모임의 참여 활성화 필요 : 다른 마을의 성과 혹은 결과물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 있음
- ② 참여인원 규모 확대 : 마을미디어 사업 참여 단위 외 일반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획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작품의 질 향상, 상영 작품에 대한 사전 홍보, 대중의 관심을 끄는 부대행사 마련 등 보다 참신하고 구체적인 기획이 필요함
- ③ 행사 시간 및 장소 안배 고려 : 학생, 주부, 회사원 등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유동 인구가 많은 공간을 확보해야 함

(10) 2013 서울마을미디어축제 '마을미디어, 판을 벌이다'

<사업 개요>

- 일시 : 2013년 12월 6일(금) 오후 1시 ~ 9시
- 장소 : 서울시청 시민청 활짝라운지/바스락홀/워크숍룸
- 참여자 : 마을미디어 사업 참여단체 강사, 참여자 및 일반 시민 300여명
- 사업목표 및 방향
 - ① 마을미디어 참여자 자존감 향상 및 네트워크 강화
 - ② 마을미디어 사업의 대 시민 홍보
 - ③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축제 실행
- 사업진행 내용
 - 성과관리 방법

- ① 주민 참여적 기획 진행 : 우리마을미디어문화교실, 우리마을미디어공방에 참여한 단체/주민모임의 운영 담당자, 강사들로 구성된 축제 조직위원회에서 행사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여 결정함. 2013 서울마을미디어축제 조직위원회와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는 공식 주관 단체로 축제 행사에 참여하게 됨
- ② ‘마을미디어를 뽑내는 시간, 마뽀시 3분’ 공모전 실시 : 5분 안에 20장의 슬라이드를 소개하는 이그나이트 방식으로 각 마을미디어 활동을 소개하는 프리젠테이션 쇼를 진행하기 위해 사전 공모전을 실시함. 2013 사업 참여단체 중 10개 팀이 참가, 각 마을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전문가가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제작해 제공함. 대상 2개 팀 경품으로는 16ch 오디오 믹서와 DSLR 카메라를 내걸어 마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 ③ 온, 오프라인 등을 통한 행사 사전 홍보 : 엽서형 리플렛을 사전에 제작하여 각 사업 참여 단체/주민모임에 발송, 지역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함. 서울시 출입기자 대상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프레시안 등 인터넷을 통해 사전에 보도됨. 그 외 SNS를 통한 홍보, 블로그 및 카페, 이메일 등을 통해 마을미디어 사업 참여 단체의 참여를 독려함

- 사업진행 결과

- ① 우리마을미디어문화교실 및 우리마을미디어공방 운영단체 50여 곳 참여
- ② 서울 및 각 지역 일반 참여자 포함 전체 300여명 참석
- ③ 영유아 및 어린이 돌봄 서비스 운영을 통한 어린이 및 학부모 참여

○ 사업 성과

- ① 참여자 개인 및 단체의 자존감 향상 및 네트워킹 : 시상식 콘셉트의 행사 운영을 통해 2013년 활동에 대한 공식적 인정, 마을의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교류하는 자리로 만들
- ② 마을이 직접 만드는 축제 : 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을 통한 행사 기획 참여, 발표/공연/전시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함
- ③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의 성과 및 필요성 홍보 : 조선일보, TBS 등 언론 보도, 서울시 뉴스레터 ‘서울톡톡’, 서울시 월별 문화행사 달력 등을 통해 대시민 홍보가 진행됨

○ 향후 과제

- ① 충분한 시간 확보 : 준비된 내용을 참여자들이 충분히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2~3일 정도로 축제 시즌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준비한 내용에 비해 이를 즐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차기 년도 사업에서는 이를 보완해 참여자들이 충분히 한 해 활동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 ② 충분한 공간 확보 : 참여 인원 규모에 맞는 공간을 섭외해야 함. 또한 오후 프로그램과 저녁 프로그램을 별도의 공간에서 진행해 저녁 프로그램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③ 충분한 스태프 확보 : 사전 준비, 당일 행사 운영, 정산 및 사후 홍보 등을 고려하여 스태프를 배치해야 함. 행사기획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단기간 고용한다던지 또는 이벤트 업체에 용역을 맡기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④ 충분한 홍보기간 확보 : 사업 초기부터 시상식 계획 등 축제 프로그램을 공지하여 사업 참여단체/주민 모임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사업 참여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규모를 확대할 필요 있음

(11) 마을미디어 정책 포럼

<사업 개요>

- 기간 : 2013년 8월, 12월 (2회)
- 시간 : 3시간×2회 = 6시간
- 주제 : 마을미디어 콘텐츠 플랫폼, 지속가능한 마을미디어 등
- 포럼 세부내용
 - ① 마을미디어 포럼 VOL 1. 마을미디어 통합플랫폼 구성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 2013년 8월 23일(금) 17:00~21:30, 서울국제유스호스텔(남산)
 - ② 마을미디어 포럼 VOL 2. 마을미디어, 어디까지 가봤니? : 2013년 12월 6일(금) 14:00~17:00, 서울 시민청 바스락홀
- 사업목표 및 방향
 - ① 마을미디어 활동에 대한 공감과 지지 형성 : 마을미디어 활동이 지니는 의미와 현장에서 느끼는 감동과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장의 마련을 통해 마을미디어 활동가들 간의 유대를 형성하고 마을미디어를 처음 접하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함
 - ② 마을미디어 현장의 고민을 바탕으로 한 정책방향 설정 : 마을미디어 현장에서 부딪히는 실질적인 고민을 나누고, 지속가능한 마을미디어 활동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

아침으로써 현장의 고민을 마을미디어 정책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었음

○ 사업진행 내용

- 성과관리 방법

- ① 네트워크 창립워크숍 및 마을미디어축제와의 연계 운영 : 네트워크 창립워크숍 및 마을미디어축제 등과의 연계를 통해 우리마을미디어문화교실, 우리마을미디어 공방 등의 사업 참여단위는 물론 마을미디어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높임
- ② 온·오프라인을 이용한 홍보 및 홍보물 배포 등 폭넓은 홍보 진행
- ③ 규모와 참여자 성격에 맞춘 구성을 통한 다층적 참여와 논의 운영 : 마을미디어 현장의 고민을 주제별로 심도 깊게 담는 형식으로 1차 포럼을, 마을미디어 현장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형식으로 2차 포럼을 구성하여 다층적 참여와 논의를 가능하도록 함

- 사업진행 결과

- ① 포럼 총 2회 진행. 100여명 참석
- ② 주민 주도형 기획 및 운영 : 워크숍 및 축제 조직위원회와 함께 포럼 준비회의 운영 (총 3차례)하면서 사전 준비회의를 통한 포럼 주제 및 운영안 등에 대해 논의

○ 사업 성과

- ① 마을미디어 현장의 고민과 과제 도출 : 네트워크 정기모임, 선정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확인된 마을미디어 현장의 고민을 향후 과제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 마련. 현장의 고민들 속에서 마을미디어 콘텐츠 플랫폼 마련, 지속가능한 마을미디어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등의 주요 정책이슈를 도출해 냄
- ② 다양한 형식의 포럼 구성을 통한 참여 확대 :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누구나 참여하고 함께 고민하며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성을 통해 마을미디어 현장과 정책 사이의 거리를 축소함

○ 향후 과제

- ① 상대적으로 마을미디어 콘텐츠 유통 및 배급 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함. 이후 마을미디어 현장과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론이 필요함
- ② 향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마을미디어 현장의 고민과 과제를 적극 반영하고 주제별 세부논의를 지속해야 할 것임

(12) 전문 코디네이터 특강 및 컨설팅 지원

<사업 개요>

- 기간 : 2013년 8월 ~ 12월
- 교육시간 : 2시간×30회 = 60시간
- 교육내용 : 미디어기술, 마을/공동체 미디어, 마을매체, 유통/배급 등
- 사업목표 및 방향
 - ① 마을매체/제작기술/유통 및 배급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참여단체 역량 강화
 - ② 마을미디어 콘텐츠의 유통 및 배급 활성화
 - ③ 마을미디어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도출
- 사업진행 결과
 - ① 코디네이터 강사 16명 참여, 강의 및 컨설팅 30회 진행
 - ② 미디어기술 분야 18회, 마을/공동체미디어 7회, 마을매체 4회, 유통/배급 1회

- 사업 성과
 - ① 기존 교육에서 부족한 부분 보완 : 우리마을미디어문화교실 10회, 우리마을미디어공방 활동에서 부족한 부분을 코디네이터 컨설팅으로 보완
 - ② 마을미디어 영역의 확대 : 제작 영역에서 유통/배급으로, 미디어에서 문화 분야로 확대
 - ③ 마을미디어 현장의 기획 역량 강화 : 마을미디어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분야의 특강 및 컨설팅을 직접 기획
- 향후 과제
 - ① 코디네이터 영역 다양화 및 강사풀 확대 : 마을미디어 현장에서 성장한 활동가들이 강의 및 컨설팅을 소화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가 필요함
 - ② 만족도 조사 및 정량적 평가 필요 : 마을미디어 참여자 및 코디네이터 개인 평가 포함

(13) 마을미디어 사례연구

<사업 개요>

- 기간 : 2013년 8월 ~ 2014년 2월
- 주제 : 마을미디어 사례분석 연구
- 연구진 : 이희량, 김주현, 박지한, 김희영
- 연구방법 : 다양한 마을미디어 현장의 주요 사례를 선정하여 참여관찰, 사업운영 및 참여자 인터뷰 등을 진행
- 진행내용 : 마을미디어 연구사례 선정 → 마을미디어 현장 참여관찰 → 사업 운영 및 참여자 인터뷰 → 사례분석 → 연구보고서 작성
- 사업목표 및 방향
 - ① 다양한 사례를 통한 마을미디어의 의미와 필요성 발견
 - ② 마을미디어 활동의 개념 및 운영원리의 정리
 - ③ 마을미디어의 향후 과제 도출 및 방향 제시
- 사업진행 결과
 - ① 사례연구를 위한 연구진 구성 및 회의 운영 : 월 1회 정기회의 운영, 필요에 따라 상시회의 진행
 - ② 마을미디어 사례 현장 참여관찰 및 인터뷰 진행 : 총 7개 마을사례 선정, 각 마을별 주1회 또는 격주 1회 참여관찰 진행. 각 마을별 운영자, 강사, 참여자 등 3인 이상 인터뷰 진행
- 사업 성과
 - ① 마을미디어의 7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사례분석 연구보고서 1종 발간
 - ② 마을미디어 현장의 활동이 보다 면밀히 기록되고 관찰되는 계기가 됨
 - ③ 현장 사례를 통한 마을미디어의 기본 원리와 개념정리의 토대를 마련
- 향후 과제
 - ① 보다 다양한 마을미디어 사례가 폭넓게 연구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상시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 적 사례관리와 기록, 연구를 위한 제반여건이 마련된 필요가 있음
- ② 향후 지속적인 마을미디어 사례연구를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미디어 모델의 연구와 개발이 추가로 필요함

(14) 마을미디어 결과자료집 및 DVD 제작

<사업 개요>

- 기간 : 2013년 12월 ~ 2014년 2월
- 내용 : 2013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결과자료집 및 DVD 제작 / 배포
- 세부내용
 - ① 2013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결과자료집 (1종 × 500권)
 - ② 2013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결과DVD (1종 × 500부)
 - ③ 참여마을, 유관기관, 지역 미디어센터 및 마을 활동 단위 등 전국적인 배포
- 사업목표 및 방향 : 마을에서 생산되는 미디어 콘텐츠를 모아 마을 아카이브 조성
- 사업진행 결과
 - ① 사업 실행 마을별 사례평가원고 수집: 우리마을 미디어 문화교실 32곳, 우리마을 미디어 공방 19곳
 - ② 사업내용 및 평가를 통한 결과 사례집 제작
 - ③ 결과사례집 1종, 결과물DVD 1종 발간
- 사업 성과
 - ① 마을미디어지원센터의 지정과 함께 보다 체계화된 사업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된 결과자료집 1종 및 다양한 마을미디어 콘텐츠들이 집약된 DVD 1종 발간
 - ② 결과자료집 및 DVD를 마을미디어 사업 참여단위는 물론, 지역 미디어센터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여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알리고 내용을 공유하는 기회가 됨
 - ③ 미디어엑트 홈페이지 및 마을미디어지원센터 카페 등을 통해 사례집과 DVD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마을미디어 사업 관련 정보를 공유함

○ 향후 과제

- ① 다양한 형태로 생산되고 축적된 마을미디어 콘텐츠들의 유통 및 배급 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함
- ② 향후 아카이브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계획과 원칙이 마련되어야 함

3) 사업의 성과와 과제

(1) 사업의 의미

- 서울의 조건과 환경에 맞는 공동체미디어 지원체계 구축
 - 2012년 ‘우리마을 미디어 문화교실’은 그동안 중앙부처 주도로 진행되어 온 한국의 공동체미디어 지원정책의 흐름 속에서, 지역의 조건과 환경에 맞는 공동체미디어를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한 최초의 지자체 주도 공동체미디어 지원정책으로서 의미가 있음
 - 이는 2013년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기조로 발전되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서울의 조건과 환경에 맞는 체계적인 공동체미디어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음

- 민관협력을 통한 마을미디어의 종합적·장기적 발전방향 설정
 - 마을을 기반으로 한 교육, 활동, 매체 등 마을의 다양한 미디어활동을 위한 직접 지원과 네트워크, 축제, 정책연구 등 마을미디어의 활동을 연계하고 성과를 표출하는 간접지원을 동시에 운영함으로써 마을미디어의 종합적 시야를 가질 수 있었음
 - 민간 전문단위를 중간지원조직으로 구성함으로써 행정과 마을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마을현장의 목소리를 중장기 발전방향으로 수렴함으로써 민관협력을 통한 종합적, 장기적 발전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음

- 마을주민 중심의 공동체미디어 문화 형성 및 확산
 - 행정주도가 아닌 마을주민 중심의 자발적인 마을미디어 구성과 운영은 마을을 구성하는 개인과 공동체 사이에 탄탄한 관계망을 구축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마을 내 미디어를 통한 소통 활성화를 가능케 함
 - 마을미디어가 마을의 다양한 주민·공동체와 만나고 협력하면서 마을 중심의 공동체미디어 문화를 형성하고 확장해 나가고 있음

(2) 사업의 성과

- 교육 및 활동지원, 네트워크 등 종합적인 사업 운영
 - 교육 중심이었던 마을미디어 사업 영역 확대

2부 마을미디어 개념과 현황

- 교육과 활동지원을 중심으로 마을미디어의 개별역량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및 축제 등을 중심으로 마을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마을미디어의 성장을 도모
 - 교육 및 활동, 축제 등을 통한 9,400여명 서울시민 참여, 430여개 미디어 콘텐츠 제작
- 기존 마을미디어의 성장 및 새로운 마을미디어 등장
- <2012 우리마을 미디어 문화교실> 참여 마을이 마을라디오, 마을TV 등의 매체를 구성하여 콘텐츠를 제작, 지역 문화사업 등 다양한 활동으로 확장
 - <우리마을 미디어 문화교실>에 참여했던 마을주민이 교육 및 활동을 운영하는 등 주민에서 참여자로, 참여자에서 운영자로의 주민 성장이 두드러짐
 - 마을미디어지원센터를 통한 상시적 상담 및 컨설팅을 통한 신규 마을미디어 활동단위 발굴
 - 기존 마을미디어가 주변 마을의 마을미디어 구성과 운영을 돕는 인큐베이터이자 코디네이터로서 역할
- 마을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통한 마을과 주민들의 이야기 기록
- 주류미디어에서 주목하지 않는 주민들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콘텐츠 제작을 통해 기록함으로써 개인과 마을에 삶의 의미부여
 - 미디어 콘텐츠 제작과정에서의 주민참여가 활성화되며 주민들의 성취도 및 만족도 상승
- 마을공동체 소통 및 문화 활성화 주요 자원으로써 마을미디어가 자리매김
- 마을미디어 콘텐츠 제작과정 및 배포과정에서 다양한 마을주민들이 서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마을의 다양한 단체 및 주민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마을 내 문화 활동 활성화
 - 공개방송, 축제 등을 통한 마을미디어 문화 콘텐츠 확대
- 민간 전문조직을 통한 효과적인 마을지원
- 마을미디어 전문 인력의 사업 운영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
 - 상시적 상담 및 컨설팅을 통해 마을에서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움
 - 마을미디어 현장 목소리의 청취와 반응을 통한 마을중심의 사업 운영
 - 마을미디어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 및 제언

(3) 사업의 문제점

- 정책의 장기적 비전 부재
 - 마을공동체 사업의 구체화, 내실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마을공동체 사업의 특성화 사례로서 마을미디어 사업의 타당성, 적절성, 비전 수립에 따른 사업 확대가 필요
 - 마을공동체의 중요성, 새로운 방식의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이 결합하여 마을미디어 교육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수립해야 함
- 서울시만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모델이 제시되고 있지 않음
 - 다른 지역과의 관계 속에서의 서울시, 그리고 각 구의 특성도 고려할 필요
 - 서울시의 지역적·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모델 제시를 통해 다른 지역, 나아가 다른 국가의 벤치마킹 사례로 발돋움
- 미디어교육보다 교육 이후에 대한 고민 필요
 - 미디어 교육 패러다임이 단순 교육에서 제작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
 - 교육 이후 시민들로 하여금 어떻게 일상에서 미디어 제작을 할 수 있게 할지에 대한 부분을 고려한 사업 추진
- 일상 속 미디어 활용과 관련한 사업 필요
 - 전문 장비와 시설을 통한 미디어 제작 외에도 스마트 미디어 등 일상 속에서 쉽게 활용 가능한 기기를 통한 미디어 제작교육 사업 필요
-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시설 및 지원 부족
 - 공간, 인력, 장비 등의 부족으로 사업 활성화에 제약 따름
 - 마을미디어 사업의 다양한 활동을 이끌어갈 전문 활동인력 발굴과 성장 미흡

(4) 사업의 과제

- 지속가능한 마을미디어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마련
 - 2012년부터 마을미디어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마을미디어에 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 단위로만 진행하여 거시적 차원에서의 활성화 계획이 부재한 상황

- 박원순 시장 재선에 따라 시정 운영 공약사항 중 하나인 마을미디어 활성화에 대한 장기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복안이 필요
- 서울시의 마을미디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개념과 목표, 방향 정립과 그에 따른 구체적 사업 추진을 담은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이 이뤄져야 함

- 마을미디어의 안정적 활동을 위한 공간/인력/장비 지원
 - 교육, 활동, 매체 등의 다양한 마을미디어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을 위한 공간/인력의 지원
 - 마을에서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제작 장비 보유

-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마을안팎의 네트워크 강화
 - 돌봄, 육아, 다문화 등 공동체 및 타 마을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마을 내 네트워크 확장
 - 마을미디어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마을미디어 이슈 발굴 및 공동사업 강화

- 마을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유통/배급 확대
 - 온라인 중심의 마을미디어 콘텐츠 유통 경로 확대
 - 기존 매체와의 콘텐츠 연계 및 채널 정책 마련

- 마을보조사업 시스템 간소화 및 지원 절차 개선
 - 누구나 쉽게 접하고 시작하는 마을미디어를 위한 지원 자격 완화 : 주민모임의 고유번호증 발급 의무화 폐지 등
 - 복잡하고 잦은 오류가 발생하는 현행 보조금시스템 환경 개선

- 마을미디어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센터 기능 강화
 - 점차 확장되는 마을미디어에의 지원과 네트워킹을 위한 전문 인력 확대
 - 상담 및 컨설팅, 정책 및 연구 등의 마을미디어 기초지원 강화
 - 마을에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 기능 및 시설 확대

2-4. 마을미디어 마을별 사례 평가¹⁾

1) 사업추진 성과

(1) 사업 참여 단체 및 인원

○ 우리마을 미디어 문화교실

구분	지자체	주민모임/단체	프로그램	차수	시간	참여인원	결과물
상반기	15	19	19	189	567	259	68
하반기	13	13	13	130	390	194	51
특강*	-	-	8	8	32	340	해당없음
양성과정**	-	-	1	8	16	13	해당없음
합산	20***	32***	40	335	1,005	806	119

* 특강의 경우, 활동가 특강 및 네트워크 모임 포함

** 양성과정의 경우, 별도사업으로 진행된 기초과정은 포함하지 않음

*** 지자체, 주민모임/단체의 경우, 중복되는 것은 합산하지 않음

○ 우리마을 미디어 공방

구분	지자체	주민모임/단체	프로그램	참여인원*	결과물
아이템형	9	12	12	3,322	119
매체형	7	7	7	4,282	181
코디네이터형	5	5	5	49	16
기획형	해당없음	해당없음	1	해당없음	2
합산	13**	24**	25	7,653	318

* 제작/활동인원 및 단순 참여인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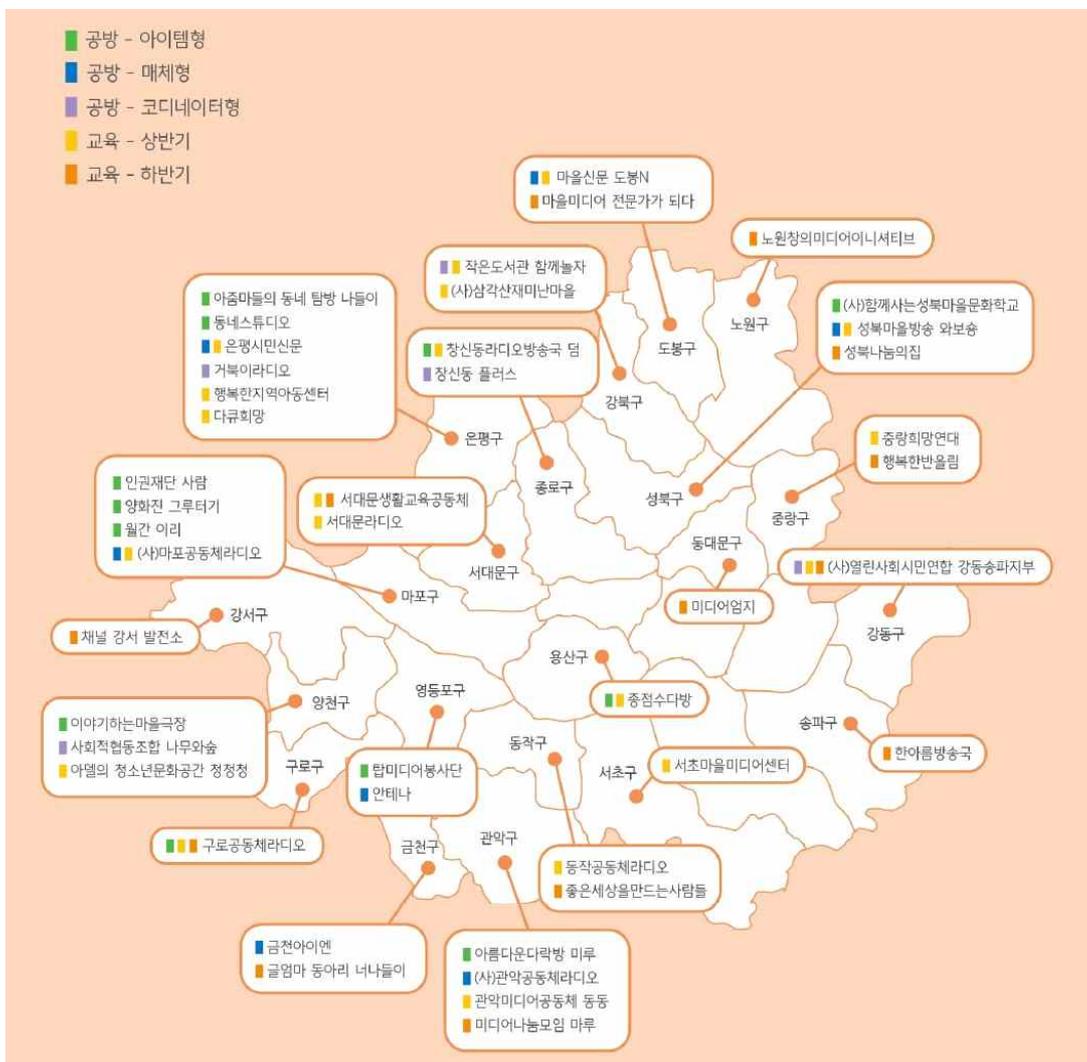
** 지자체, 주민모임/단체의 경우, 중복되는 경우 합산하지 않음

1) 마을별 사례 평가는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 2014년에 발간한 『2013 마을미디어활성화사업 결과자료집』의 내용을 토대로 하되, 본 중장기계획의 취지에 맞게 일부를 재구성하고 분석을 추가했음을 밝힘

○ 기타 사업 참여 인원

구분	프로그램	시간	회수	참여인원
사업설명회	1	2	2	70
선정단체간담회	1	3	3	51
네트워크 워크숍	5	2	1	50
전문 코디네이터 특강 및 컨설팅	1	2	30	360
영상콘서트	1	3	1	110
마을미디어축제	6	3	1	300
합산	15	15	38	941

[그림]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참여단체(2013년 기준)



* 자료: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2014). 2013 마을미디어활성화사업 결과자료집.

(2) 마을미디어 활동 현황

자치구	매체유형	단체/주민모임명	활동내용	홈페이지/채널
관악구	지상파 라디오	관악공동체라디오	굿모닝 세상의 아줌마들, 라디오서점, 관악라디오가 좋다 등 정규 방송	지상파 FM 100.3MHz www.radiogfm.net
	인터넷 라디오	행운동길 팟캐스트	청소년 미디어동아리 운영, 팟캐스트 제작, 지역기관 및 비영리 단체의 콘텐츠 제작, 문화지식에 관한 콘텐츠 웹매거진 발행	www.facebook.com/luckybookcafe www.mirucafe.org www.gwanakstory.org www.magazineg.net
강북구	인터넷 라디오	작은도서관 함께놀자 (강북FM 강프리카)	Hello! 강북, 여행의 기술, 반달곰이 만난 사람 등 3개 코너 운영. 각 코너별 격주 1회 방송	www.podbbang.com/ch/6656
구로구	인터넷 라디오	구로공동체라디오	윤소맘 이야기·우리동네 훈장님·실버 문화카페 등 방송, 기타 동아리 운영, 마을축제 공개 방송 진행	www.facebook.com/gurofm www.podbbang.com/ch/5642
금천구	신문, 인터넷 라디오	금천아이엔	마을신문 정기발행, 금천라디오(마을뉴스, 나는 초딩이다), 미디어센터 영상 교육	www.gcinnews.com, gcinnews.tistory.com www.podbbang.com/ch/5384
도봉구	신문, 인터넷 라디오, 영상	마을신문 도봉N	월 1회 마을신문 발행, 주민들이 만드는 팟캐스트(월드와이드 마마톡, 죽때리는 노래방, 차도남의 이영화 어때, 이제는 3김시대 등), 보이는 마을신문 영상 제작	www.dobongn.kr www.podbbang.com/ch/6506 www.podbbang.com/ch/6852
동대문구	웹 매거진	미디어엄지	동네소식, 잡다한 관심, 쓰고 싶은 이야기	www.heemang.net/news

동작구	인터넷 라디오	동작공동체라디오	낭만과 전설의 동작 구, 싸구려 커피, 동 작사랑방 수다 만만 세, 문화 토크, 중앙 대 세 청년 이야기, 중년의 상담심리학 등 매일 업로드	www.dongjakfm.net www.facebook.com/don gjakfm www.podbbang.com/ch/ 6160
마포구	지상파 라디오	(사)마포공동체 라디오	송덕호의 마포 속으 로, 행복한 하루, 게 릴라디오 등 23개 프 로그램. 1일 20시간 방송	지상파 FM 100.7MHz www.mapofm.net www.facebook.com/map ofm www.podbbang.com/live /mapofm 트위터 @mapofm
	잡지	월간 이리	마포구 자영업자, 직 장인, 기획자, 예술가 등을 중심으로 지역 이야기를 담는 독립 출판물 제작	http://postyri.blogspot.c om 트위터 @postyri
서대문구	인터넷 라디오	서대문생활교육 공동체	가재울라디오 운영. 파킨슨 사랑방·청년 다락방 등 방송	sdmcenter.tistory.com
성북구	인터넷 라디오	(사)성북마을문화 학교 (성북공동체라디오)	성북이 만난 성북의 얼굴들, 추억을 듣는 다, 수다만세, 소금의 일상생활 등 방송	cafe.daum.net/sbvcscho ol
	인터넷 TV	성북마을방송 와보송	격주 1회 성북마을뉴 스 업로드, 리얼 토크 쇼 아빠들의 수다· 언 니들의 호박씨 등 방 송, 마을 포커스·마 을 다큐멘터리 등 제 작	www.sbnnet.or.kr www.facebook.com/Wab osyong www.youtube.com/user/ wabosyong
송파구	인터넷 라디오	한아름 방송국	인생예찬, 어설픈 청 춘, 살며 사랑하며, 두시의 데이트 등 방 송	www.mindup.or.kr www.podbbang.com/ch/ 7173
영등포구	매거진	안테나 (문래동네)	문래동 예술인 및 철 공작 기술인들의 이 야기를 담는 정기간 행물 발행	blogmoon.co.kr/mullae/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용산구	인터넷 라디오	종점수다방 (용산FM 라디오수다방)	아침에 커피 한잔, 엄마와 딸의 동상이몽. 장경미의 영화이야기 등 주 1회 업로드	cafe.daum.net/jongjeom sudabang
은평구	신문	은평시민신문	격주 신문 발행, 시민기자 양성을 위한 기자학교·라디오교실 등 운영	www.epnews.net
	인터넷 라디오	은평인터넷라디오 방송국	은평구 마을활동가에게 듣는다, 책읽어주는 여자 등 방송	www.ebn.seoul.kr/content/index.jsp?CmsCode=CL060401&p_code=EBNP0022
종로구	인터넷 라디오	창신동라디오방송국 덤	쌩쌩~ 그러나 조금은 쉬기도 하는 시간, 예술은 아무나 한다, 졸졸졸 흐르는 수달과 수제비의 이야기 계곡, 오뚜기의 세상풍경 속으로, 글밥 먹는 날, 청소년 방송 등 매주 화요일 업로드	chamanet.iblug.com/index.jsp www.podbbang.com/ch/4565 ※ 플레이스토어에서 '덤'으로 검색
중랑구	인터넷 라디오	라디오스타 in 중랑	세남자 생소 중구난방, 좋은 미교의 TV & Movie, 행복한 라디오 등 방송	peoplehut.iblug.com/index.jsp ※ 아이튠즈에서 '중랑'으로 검색
강동구	동아리	(사)열린사회시민 연합 강동송파지부	성인 및 청소년 참여자 미디어 동아리 정기모임 운영	
강서구	동아리	채널강서발전소	단체 카페에 비정기적으로 영상 업로드	cafe.daum.net/CH-gsftn
성북구	동아리	성북나눔의집	청소년 참여자 중심 동아리 구성, 시나리오 작업 활동	
양천구	동아리	이야기하는 마을극장	매주 화요일 책모임 진행	theworkplace@naver.com
중랑구	동아리	행복한반올림	청소년 영상 동아리 운영, 어르신 영상 자서전 제작을 위한 찾아가는 마을탐방	

* 자료: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2014). 2013 마을미디어활성화사업 결과자료집, 15~17쪽.

2) 마을미디어 세부사례 내용 및 평가(2013년 사업 기준)

(1) 관악구 : (사)관악공동체라디오

<마을 소개 및 활동 개요>

○ 매체 소개

- 2005년 4월 비영리법인 (사)관악공동체라디오 설립
- 관악공동체라디오는 채널 이름을 관악FM 100.3MHz로 하고서 방송을 해오고 있으며, 2005년 초기 하루 6시간 본방송 제작으로 시작해 2013년 12월 현재는 하루 13시간 본방송을 제작
- 거의 모든 방송이 방송 자원 활동가에 의해서 제작되고 있으며, 2013년 12월 기준 177명의 방송 자원 활동가가 활동
- 177명 중 미디어불평 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여성주부 20명, 60대~70대 고령자 18명, 청소년 20명, 이주여성 16명이 함께 방송활동을 하고 있음

○ 마을공동체 특징 및 마을미디어 참여계기

- 관악구 내 시민사회단체의 탄탄함, 네트워크의 탄탄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매체는 관악FM과 같은 공동체라디오가 유일
- 하지만, 그러한 유일함 속에서도 법적 한계(출력 1watt)로 인해 충분한 기능과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우회로가 필요했고, 이전의 마을공동체라디오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되 다른 소통의 경로, 다른 콘텐츠의 개발과 도전이 필요했음

○ 활동 개요

- 활동 기간 : 2013년 8월 1일 ~ 12월 31일
- 활동 장소 : 관악FM을 포함한 서울 12개 지역구(14개 단위)
- 운영진 : 관악FM 및 지역단체(Radios 편성위 . 10명 / 관악구 지역밀착형 방송프로그램제작 10명)
- 활동 참여자 : 관악구, 동작구, 구로구, 용산구, 성북구, 중랑구, 강북구, 종로구, 서대문구의 마을공동체라디오 중심으로 활동 / 관악구의 경우 9개 단체 참여

○ 활동 목표 및 내용

- 활동 목표
 - ① 서울의 마을공동체라디오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통합 플랫폼 운영

- ② 관악구의 다양한 커뮤니티 단체,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지역밀착형 방송 프로그램 제작

- 활동 내용

- ① 서울 마을공동체라디오를 방송 콘텐츠 네트워크를 통한 단일 채널 Radios로 시범 운영: 지역의 사정에 맞게 방송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방송 제작하고, 이를 편성플랫폼(Radios 편성 소프트웨어)을 통해 편성하여 청취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Radios를 통해 청취할 수 있도록 함
- ② 관악구 지역밀착형 방송 제작: 지역의 미디어 소외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계층의 커뮤니티 모임, 마을공동체 활동 모임 등과 결합한 콘텐츠 제작
 - * 결합 분야 및 결합단체 : 다문화(굿모닝세상의 아줌마들, 관악무지개네트워크) / 자활계층(관악자활센터) / 청소년(관악교육복지네트워크) / 마을공동체(관악마을마당, 중앙사회복지관 소망우체통 솔루션위원회) / 경력단절 여성주부(시소와그네, 옥수수와팝콘, 관악공동체미디어동동) / 지역 오피니언 리더(지역 정치인 및 사회적경제 주체 등)

○ 사업성과

- ① Radios : 관악구의 1개 매체인 관악공동체라디오만으로는 어려운 현실을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것을 통합방송 채널인 Radios를 통해 실현. 12개 지역구의 14개 단위와의 네트워크가 한층 두터워짐
- ② 관악구의 다양한 마을공동체단위와의 협력을 통해 방송의 중요성,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에 알리고자 했으며, 지역의 9개 단체, 기관과의 신뢰가 매우 두터워짐

○ 향후 과제

- ① Radios의 경우, 전달(유통)부분에 대한 개선(안드로이드 및 아이폰 애플리케이션 업그레이드 필요) 및 지역구별 맞춤형 미디어가 통합된 앱으로 업그레이드 필요
- ② 12개 지역구의 소통을 담당할 웹 개발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 필요
- ③ 지역의 경우, 정기적 방송프로그램으로 발전 필요. 협업을 위한 자체 예산 배정 필요

(2) 관악구 : 아름다운 다락방 미루 '행운동길 팟캐스트'

<마을 소개 및 활동 개요>

○ 마을 소개

- 서울에서 자치예산이 부족하고, 베드타운에 속하는 관악구는 상대적으로 상업화되지 않아 마을의 전통이 살아 있지만, 대학생, 고시촌, 싱글족의 주거비율이 높아 구세대와 신세대의 융합이 이뤄지지 못하는 지역
- 지역비영리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지원으로 운영되는 미루카페는 관악구에서 지역의 학생들, 주민, 학부모, 창작자들을 위한 비영리카페를 운영하고 있음.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미디어교육과 지역축제의 기획을 지원

○ 매체 소개

- '책 읽는 라디오'는 2010년부터 책을 좋아하는 젊은 대학생들이 뭉쳐 팟캐스트를 제작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600여 편이 넘는 책 소개 팟캐스트를 제작하고 있음
- 다양한 독서문화 캠페인에 참여했고, 현재 북카페 미루에서 팟캐스트를 제작하고 있음.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본단체 취지에 동의하여 '행운동길 팟캐스트'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추진

○ 활동 개요

- 활동기간 : 2013년 9 ~ 12월 (팟캐스트 제작 기간 9월)
- 활동 장소 : 미루카페

○ 활동 내용

- ① 행운동길 팟캐스트 제작 : 3개월 총 10여 편 (5분 내외) 팟캐스트 제작
 - 관악구 행운동을 중심으로 지역의 활동가 및 문화예술가 소개
 - 행운동의 역사와 명물 소개 프로그램 제작
 - 구세대와 신세대를 이어주는 세대소통 공감 프로그램 기획
 - 오프라인 공개방송 개최(1회) : 골목문화 콘서트 공개방송
- ② 행운동 골목 다큐 제작 : 3개월 3편 내외(5분 내외 영상 : 축제 문화)
 - 행운동의 골목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일상과 이야기를 소개함
 - 정기적인 골목의 역사를 기록, 지역의 미디어 활동가들 동참
 - 지역학교 미디어 동아리와 함께하는 공동기획 제작 프로젝트
 - 행운동 골목 다큐영화제 개최 : 지역 학생 미디어동아리, 일반인 참여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 사업성과
 - ① 마을중심으로 벌어지는 다양한 활동과 이야기 공유 (지역축제, 지역전문가, 기관장 소개 등)
 - ② 시니어 중심의 마을단위 활동에 청년활동가의 역량 유입 (은퇴자들의 인생설계 미디어교육)
 - ③ 영상, 오디오를 통한 콘텐츠의 실체적 융합 (지역축제 주민주도 기획영상 제작, 축제 팟캐스트 제작)
 - ④ 콘텐츠를 통한 새로운 참여자 유입으로 소통활성화 (행운동 골목 팟캐스트 공개방송 진행, 지역주민들의 참여기회 제공, 관심도 증가)
 - ⑤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배움의 컨퍼런스 미디어 생산, 공유

- 향후 과제
 - ① 공개방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적극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어, 지역기관을 통해 주민이 만들어가는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함께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마을미디어 교육을 강화할 필요
 - ② 함께 만들어가는 콘텐츠를 위해 주민들의 기획력과 콘텐츠 제작능력 배양도 중요
 - ③ 활동을 위해 연대할 수 있는 인근지역의 활동가들 DB구축 필요
 - ④ 보다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교류협력의 장 마련이 요구됨

(3) 강북구 : 마을이 보이는 공동체라디오 '작은도서관 함께놀자'

<마을 소개 및 교육 개요>

- 마을 소개
 - 강북구는 30여 개 지역풀뿌리 단체들의 네트워크 조직인 <강북마을모임>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마을공동체 활동을 엮어내고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마을미디어 활성화가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마을미디어 활동에 참여

- 교육 개요
 - 교육 기간 : 2013. 7. 17 ~ 10. 12 (10차시)

- 교육 장소 : 두루두루 배움터

○ 교육 목표 및 내용

- 교육 목표

- ① 마을미디어로서 공동체라디오를 활용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주민참여 및 지역사회 소통 강화
- ② 제작체험 과정에 풀뿌리단체 탐방, 전화 인터뷰 등의 적극적인 배치를 통해 마을과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이해도 제고
- ③ 기획, 편집, 생방송 등 방송역량 습득을 통해 지역사회의 미디어 역량 제고

- 교육 내용

- ① 마을 공동체라디오의 이해
- ② 제작의 이해 및 체험
- ③ 편성/유통/수용의 이해
- ④ 방송의 실제

○ 사업성과

- ① 교육 참여자들이 이후 지속적인 마을미디어 활동과 강북구 공동체라디오 방송국을 구축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를 모아냄
- ② 공개 방송, 지역 케이블 방송 보도 등을 통해 지역 단체 및 지역사회에서 마을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

○ 향후 과제

- ① 이후 마을미디어 활동과 방송 제작에 참여할 주민들이 좀 더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도록 고정 공간 확보가 요구됨
- ② 직장인을 비롯한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녁시간대 교육 등 다양한 시간대 프로그램 배치가 필요

(4) 구로구 : 구로공동체라디오

<매체 소개 및 교육 개요>

○ 매체 소개

- 구로FM은 지난 해 1기, 2기 서울시 우리마을 미디어 문화교실에 참여한 학생들

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지역공동체라디오

○ 교육 개요

- 교육 기간 : 2013년 7월 1일부터 8월 19일까지
- 교육 장소 : 서울시 구로구 오류 1동 23-36 은하수 빌딩 3층

○ 교육 내용

- 교육 목표

- ① 구로구 주민들이 라디오가 주는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 있고 어느 곳에서든 라디오 방송을 제작하고 송출할 수 있게 함
- ② 참여주민이 라디오 제작 전 과정을 습득하고 라디오를 통해 다른 삶과 만나고 소통하여 서로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시간을 가짐
- ③ 공동체 라디오 활동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나아가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지식 나눔 공동체를 꾸려감

- 교육 내용

- ① 공동체라디오란 무엇인가? (공동체라디오의 역할 및 팟캐스트의 특징)
- ② 라디오 프로그램 구성 및 방송 대본 만들기
- ③ 라디오 방송 편집프로그램 다루기 및 방송 송출 방법 익히기
- ④ 믹서기 등 녹음 장비 전반에 대한 이해 및 활용
- ⑤ 라디오 방송 실제 제작하기

○ 사업성과

- ① 약 10명의 교육생들이 각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열의를 가지게 되었고, 대본작성, 진행, 녹음, 편집, 믹싱기술까지 기초적인 내용들을 습득하고 실제 제작실습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어, 공동체라디오 구성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춤
- ② 단순히 라디오 제작뿐만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고 나누면서 협동학습 구조로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체험
- ③ 단순한 체험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마을라디오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를 위한 워크숍도 가지고 좀 더 프로그램과 운영체계를 다양화해 이후 지속적인 라디오 활동을 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향후 과제

- ① 초반 5주 넘게 이론교육을 실시했고, 실제 라디오 제작교육은 별도의 특별수업을 통해 진행. 이에 실제 제작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을 충분히 공유를 못했다는

측면이 있음

- ② 이론과 실습, 그리고 실제 제작교육을 적절하게 배치할 필요가 있음
- ③ 교육기간동안 양질의 프로그램이 다수 기획되었으나 그 기획들이 모두 실제 지속적인 방송으로 제작되고 송출되지는 못하고 있음. 꾸준한 기획회의와 일상적 모임을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 제작까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④ 실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라디오 관계 인력에 대한 양성 및 지원이 필요
- ⑤ 공동체라디오가 지역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안정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절실

(5) 금천구 : 금천구 마을방송국 만들기 프로젝트 ‘금천아이엔’

<마을 소개 및 활동 개요>

○ 매체 소개

- 금천아이엔은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마을이 만드는 미디어공동체’를 표방
- 갈수록 심해지는 계층 간 미디어문화 격차와 정보접근 격차의 심화로 발생하는 세대간, 계층별 단절의 극복 대안을 찾고자 함
- 또한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 및 활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지역 미디어문화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소통을 촉진시켜 공동체 형성을 도모

○ 마을공동체 특징 및 마을미디어 참여계기

- 우리마을 미디어공방 사업인 ‘금천구 마을방송국 만들기(이하 마을방송국)’는 지역을 기반으로 동네 일을 다양한 매체로 전달, 공유를 통해 마을공동체간, 주민간의 소통을 높여내자는 것이 기본 취지
- 금천아이엔에서는 공모신청하기 전부터 텍스트 매체인 마을신문 금천in과 이를 기반으로 한 팟캐스트를 제작하고 있었음. 팟캐스트를 제작하면서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방송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라디오를 넘어 영상제작까지 시도해 볼 필요를 느꼈음.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적, 시설적인 부분이 부족했고, 마침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의 공모사업이 발표되어 참여하게 됨

○ 활동 개요

- 활동 기간 : 2013년 8월1일~12월31일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 활동 장소 : 금천아이엔 사무실, 금천학부모사무실, 한내텃밭 야외 스튜디오

○ 활동 목표 및 내용

- 활동 목표

- ① 단체별 방송제작 역량 강화
- ② 컨설팅에 기초한 프로그램 개선 사업
- ③ 마을방송국의 별도 운영체계 구성

- 활동 내용

- ① 텃밭라디오 프로그램 개발. 도시생태농업공원인 한내텃밭이라는 곳에 야외부스를 만들어 텃밭 경작을 하러 오신 분들과 함께 만드는 방송을 시도. 농업이라는 소재로 방송을 만들어 새로웠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시농업네트워크의 회원 소통에 상승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됨
- ② 프로그램 제작 기획, 대본 제작 등을 담당하는 인력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음
- ③ 부모방송, 독서공방 등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 ④ 사회적경제한마당, 가을걷이 축제 등에서 야외방송을 진행함으로써 축제참여자들이 마을미디어에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됨
- ⑤ 미디어 특강을 2회 개최해 대안언론과 마을미디어에 대한 고민공유
- ⑥ 공개방송 긴급좌담회(지역향토문화역사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의 현안에 대해 마을미디어가 고민하는 사례를 만들어냄
- ⑦ 초동 단계이지만 마을방송국의 운영위원회 씨앗이 만들어짐

○ 사업성과

- ① 마을공동체와의 상호 연결 속에서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됐고 이를 통해 자신의 방송을 만들어 가고, 공동체는 회원들과의 교감을 이뤄내는 사례가 만들어짐
- ② 방송을 지속하면서 매번 방송에 임하는 참여자들의 역량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과 마을에 힐링이 됐다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었음
- ③ 도시농업네트워크, 학부모모임, 독서공방 등 지역에 있는 다양한 주민모임 및 단체와 연계하였으며 그 결과 다양한 공동체 간의 소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음
- ④ 또한 금천IN의 사무실이 아닌 주민이 있는 현장에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금천마을방송국 텃밭스튜디오, 독산동 스튜디오를 확대

- 향후 과제
 - ①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어 재원이 들지 않았지만 시설이 노후화 되고 정돈되지 않아 많은 장애가 예상됨에 따라 보완이 필요
 - ② 단체를 중심으로 기존 경험을 살려 방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필요
 - ③ 장비의 구축 및 양질의 품질이 나올 수 있는 투자 필요. 하지만 좋은 품질이기 전에 참여자들이 전문적이지 않아도 쉽게 다가와서 녹음하기 위해서는 장비의 오작동 가능성을 낮춰야 함

(6) 도봉구 : 마을신문 도봉N

<마을 소개 및 활동 개요>

- 매체 소개
 - 마을신문 도봉N은 ‘동네 사람들이 만드는 마을신문’을 지향하며 지난 2009년 창간준비 1호 발행을 시작으로 (기타간행물로 2009년 9월 28일 등록) 매월 타블로이드 8면 1만부로 도봉구 주민들을 만나고 있음
- 마을공동체 특징 및 마을미디어 참여계기
 - 2012년 제1기, 제2기 우리마을미디어문화교실 사업을 계기로 팟캐스트와 영상 매체까지 포괄한 종합적인 ‘온갖 마을미디어’로 발전
 - 2013년 제3기 우리마을미디어문화교실을 진행한 후 제4기 주민모임 주최 교실을 지원하고 ‘마을미디어 공방’(매체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마을미디어 매체 활동을 하는 ‘마을방송국’으로 거듭나고 있음
- 활동 개요
 - 활동 기간 : 2013년 8월 1일 ~ 12월 31일
 - 활동 장소 : 도봉 마을예술창작소 ‘창고’ 와 마을 주변
 - 활동 참여자 : 마을신문, 팟캐스트, 영상 제작/유통 과정에 50여명
- 활동 목표 및 내용
 - 활동 목표
 - ① 마을미디어 교육에 참가한 주민들이 실제 다양한 매체를 제작함
 - ② 누구나 다양한 마을미디어로 소통할 수 있는 ‘마을방송국’ 구축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 활동 내용

- ① 마을신문 3호 제작 (10월, 11월, 12월호)
- ② 마을라디오 (팟캐스트) 41편 제작/유통
- ③ 마을영상 15편 제작/유통
- ④ 마을미디어 연계 주민참여 강좌 4회

○ 사업성과

- ① 다양한 마을미디어 매체를 활용해 총 59편 제작 / 유통
- ② 다양한 프로그램과 주민 참여로 지속적인 제작 기반 구축
- ③ 마을미디어와 연계한 주민 참여 강좌로 관계망 확장

○ 향후 과제

- ① 다른 매체에 비해 마을신문 투입 노력 비중이 높아 목표 수준인 16면은 1호 (11월)만 발행(나머지 2호는 8면). 마을신문 지속성 보완 필요
- ② 안정적인 공간 마련(현재 평일 주간과 저녁, 주말에만 제작 가능)과 추가 장비 (캠코더 등) 필요
- ③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실행하지 못함. 더 많은 기획과 재원이 필요
- ④ 주민들이 흥미를 갖는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으로서 마을미디어 역할이 크지만 의미 있는 마을공동체, 지방자치 이슈에 관한 취재력, 편집/제작 역량을 갖추게 하는 데는 여전히 부족함
- ⑤ 강좌 중심의 간헐적인 교육 사업보다는 지속적인 제작 환경을 구축하는 데 지원 비중을 더 높일 필요가 있음

(7) 동대문구 : 미디어엄지

<마을 소개 및 교육 개요>

○ 마을소개

- 동대문 관련 정보를 검색하면, 현재 놀토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엄지신문'이 가장 검색율이 좋을 정도로 일반적 정보노출 부족
- 마을공동체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에서 교류와 정보공유의 부족으로 정보교류차원의 네트워크가 크게 필요

○ 교육 개요

- 교육 기간 : 2013년 9월 20일 ~ 12월 31일
- 교육 장소 : 서울시립대학교 및 동대문구 컴퓨터 교육장 활용, 지역 내 모임 공간 및 자체운영 어린이도서관 활용

○ 교육 목표 및 내용

- 교육 목표

- ① 마을공동체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에서 정보 교류차원의 네트워크가 필요
- ② 동대문구와 관련한 일반적인 정보노출이 부족하여 마을미디어의 필요성 인식
- ③ 지역의 주민 및 청년들과 미디어를 통해 지역 아동들과 연계하여 지역의 소식을 미디어로 기록 및 홍보

- 교육 내용

- ① 사업 준비 워크숍을 통한 구성원 간 상호 인터뷰
- ② 미디어교육을 통해 보다 전문성 있는 영상, 사진, 기사 배우기
- ③ 취재 및 실습(기사쓰기, 편집)을 통해 수집한 자료로 결과물 제작 (신문 8P 발행)
- ④ 미디어엄지 웹진으로 기사 업데이트
- ⑤ 사업 후 미디어 모임과 회의 지속 준비

○ 사업성과

- ① 미디어교육 교재 발행
- ② 미디어엄지 웹진 업데이트
- ③ 신문 8P 발행

○ 향후 과제

- ① 지속적인 취재활동 및 온라인 “미디어엄지” 정기 업데이트 필요
- ② 사업 홍보와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 개선
- ③ 신문 편집 디자인 실무 교육 실시

(8) 동작구 : 동작공동체라디오

<매체 소개 및 교육 개요>

○ 매체 및 마을 소개

- ‘동작공동체라디오’는 서울시 동작구에서 최초로 지역밀착형, 주민주도형 마을방송국
- ‘마을미디어’, ‘주민방송’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다가 되었던 동작구에서 현재 매주 약 20명의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인터넷 마을라디오 방송을 제작하고 있으며 동작공동체라디오를 통해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
- 지역공동체 구성원 누구에게나 소통과 발언의 기회가 주어지고, 구성원들이 자기 표현의 방법을 체득하여 수평적이고 촘촘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는 견제와 감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주민자치 풀뿌리대안언론을 만들고자 함
- 계급계층간의 차별 없이 누구나 사회적 발언권을 획득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고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을 만드는 생태계에 일조하고, 주민 개개인의 목소리와 지역의 요구를 가장 먼저 보듬어 안는, 누구나 창작자이면서 주민이 주체인, 지역허브 방송국을 만드는 것이 목표

○ 교육 개요

- 교육 기간 : 2013년 7월 22일 ~ 9월 28일
- 교육 장소 : 동작FM 스튜디오

○ 교육 목표 및 내용

- 교육 목표
 - ① 지역주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높임
 - ② 지역밀착형 방송 제작을 통해 주민자치활동을 자극하고 독려함
 - ③ 마을라디오방송을 통해 주민 간 소통 증대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
- 교육 내용
 - ① 기존의 동작FM 방송 분석과 비평
 - ② 지역사회와 공동체라디오의 이해
 - ③ 라디오 방송제작 실습 (5분, 10분, 20분)
 - ④ 방송의 편성과 유통, 수용의 이해
 - ⑤ 수료방송기획

- 사업성과
마을 방송국 설립에 대한 인식 확산과 지역적 기반 마련의 고민이 시작될 수 있었고 20명 가까운 방송제작 자원활동가들이 양성되어 매주 꼬박꼬박 직접 방송제작을 하고 있음
- 향후 과제
다양한 주민 DJ 양성 교육 외에도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커리큘럼을 만들고 다른 지역, 다른 마을방송의 사례들 취합 필요

(9) 마포구 : (사)마포공동체라디오

<매체 소개 및 교육 개요>

- 매체 소개
 - 마포FM은 마포 지역의 목소리를 나누고자하는 공동체라디오
 - 평소에도 여러 연령층과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마을 미디어교육을 통해 특히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모아 방송해 보고자 참여
- 교육 개요
 - 교육 기간 : 2013년 6월 17일 ~ 10월 31일
 - 교육 장소 : 마포FM 모이는 방(회의실), 큰 스튜디오
- 교육 목표 및 내용
 - 교육 목표
 - ① 청소년들에게 미디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② 미디어를 통해 청소년들의 경험과 고민 공유
 - ③ 청소년들의 공동체 형성을 유도
 - 교육 내용
 - ① 친해지기, 자기소개, Ice Breaking
 - ② 청소년만의 고민 모으기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 ③ 마을 탐방 (성미산 마을)
- ④ 공동체라디오 특강
- ⑤ 방송 기술교육 및 프로그램 제작

○ 사업성과

- ①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마음껏 고민하고 건강하게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② 청소년들이 직접 미디어를 경험해본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음. 학교 방송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들이 만든 방송이 전파를 통해 직접 전달되고, Feed-back을 받아 보면서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경험을 해볼 수 있었음

○ 향후 과제

- ① 후속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필요
- ②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 녹음 일정을 잡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음. 참여하는 학생들이 일정에 관계없이 편하게 녹음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
- ③ 사업의 특성상 일을 할 수 있는 책임자가 많지 않음. 책임자는 대부분 단체나 마을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일 경우가 많음. 따라서 사업 담당자를 설정할 때에 내부 인원의 참여를 제한하는 부분에 대한 완화가 필요

(10) 마포구 : 월간 이리 '월간 이리 Refresh 2013'

<매체 소개 및 활동 개요>

○ 매체 소개

- 프로젝트 이리_마포구의 자영업자, 직장인, 기획자, 예술가 등을 중심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다양한 목소리와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독립출판물 <월간 이리> 간행
- <월간 이리 Refresh 2013>은 온라인 콘텐츠의 다각적 활용, 오프라인 책자의 부수와 퀄리티 조정을 통해 온, 오프라인 플랫폼을 업그레이드 하고, 마포구 상수, 서교, 합정 지역, 더 많은 지역예술가 및 주민의 참여를 유도,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고자 함

- 활동 개요
 - 활동 기간 : 2013.8.1 ~ 12.30
 - 활동 장소 : 서울시 마포구 상수, 서교, 합정동
- 활동 목표 및 내용
 - 활동 목표
 - ① <월간 이리> 9, 10, 11, 12월호 온, 오프라인 발간
 - ② 미디어, 온라인 서비스 및 오프라인 배포처를 통한 홍보
 - ③ 이리 카페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 공방 활동/전시, 공연, 드로잉 교실
 - 활동 내용
 - ① 정기간행물 4종_부수 2,000부 간행/ 온라인 책자 제작 서비스
 - ② 지역예술가 및 주민, 고정 필진 30명(매월 15인 이상)의 참여
 - ③ 매월 온라인으로 미디어를 구독하는 인원수 약 2,000명 누적
 - * 온라인 배포사이트_ <http://postyri.blogspot.kr/>

- 사업성과
 - ① 기존보다 많아진 배포 분량으로 노출 빈도가 높아졌고, 마을 독자를 미디어의 필진으로 수용할 수 있는 홍보의 폭이 넓어짐
 - ② 온라인 배포 기술을 개선하여, 쉽게 잡지를 구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향후 과제
 - ① 이리 카페에서 열리는 공방 사업에 마을공동체 일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② 다양한 연령대의 필진 수용
 - ③ 타 지역 마을공동체 사업 군과의 교류

(11) 서대문구 : 서대문생활교육공동체 ‘가재올라디오드라마’

<매체 소개 및 교육 개요>

- 매체 소개
 - 2013년 상반기 마을미디어 사업을 통해 가재울 지역에 공동체 미디어를 위한 토대가 마련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 2013년 상반기 교육을 통해 배출된 주체들이 좀 더 끈끈한 관계와 지속적인 공동체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위해 하반기 교육을 지원, 진행

○ 교육 개요

- 교육 기간 : 2013년 10월 ~ 12월
- 교육 장소 : 거북골 사랑방, 서대문건강가정지원센터

○ 교육 목표 및 내용

- 교육 목표

- ① 우리마을 미디어 문화교실 상반기 교육의 후속 교육을 진행
- ② 상반기 교육의 심화 교육으로서 라디오 드라마 교육을 진행
- ③ 가재올라디오 제작

- 교육 내용

- ① 마을미디어와 공동체라디오
- ② 호흡과 발성
- ③ 라디오 드라마 교육과 실습
- ④ 라디오 드라마 제작

○ 사업성과

- ① 기존 라디오 제작과는 다른 라디오 드라마라는 새로운 장르에 대한 제작 교육을 통해 교육 참여자들에게 공동체라디오의 새로운 면을 경험하게 하고, 새로운 콘텐츠의 활용가능성을 높임
- ② 라디오 드라마의 커리큘럼 안에 편성된 호흡과 발성 교육 등은 참여자들이 필요성을 느끼던 부분으로서 참여자들의 필요에 맞는, 심화된 내용으로서 심화 교육을 제공

○ 향후 과제

- ① 교육을 진행할 때 홍보를 다양화 하는 등 다양한 참여자들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 이를 위해 참여 예정자들, 참여가 예상되는 대상자들에 대한 욕구 파악도 중요
- ② 공동체라디오 교육에서 라디오 드라마 교육은 선택이 없었던 만큼 이번 커리큘럼을 중심으로 이것을 대중화시키기 위한 교안, 그리고 추후 교육에서 수정사항들을 반영한 교안이 필요
- ③ 교육생들의 심화 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컨셉의 추가 교육 기획이 필요

- ④ 공동체라디오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교육과 녹음 등 라디오 제작 전반의 과정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장소가 필요
- ⑤ 타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울 마을미디어 단체들과의 지속적인 연계와 상호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

(12) 성북구 : (사)성북마을문화학교 ‘온에어 성북공동체라디오’

<매체 소개 및 활동 개요>

○ 마을 소개

- 학부모회에서 마을공동체를 꿈꾸는 엄마들 - 우리는 삼선동에 거주하며 2008년부터 삼선초등학교 학부모회와 운영위원회를 통해 토요 휴업일마다 다양한 문화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사랑샘 교실을 운영
- 토요 휴업일에 마땅한 문화체험을 할 수 없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위해 미술교실, 독서교실, 원예교실, 난타교실, 탁구교실까지 확대되었고 같은 생각을 가진 엄마들이 모여 일일 교사가 되고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체험을 겪음
- 4년 동안 매년 100여명의 초등학생들이 토요 학교를 경험하고 엄마들의 소질 개발이 이루어지는 사이 2012년부터는 서울시우리마을미디어 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1기는 동영상 교육을 하는 미디어 교육으로, 2기는 라디오 공동체 경험을 하게 되었고 ‘사단법인 함께 사는 성북마을문화학교’를 통한 서울시공동체 라디오 네트워크에 참여하며 미디어공방 사업을 진행

○ 활동 개요

- 활동 기간 : 2013년 9 ~ 12월
- 활동 장소 : 성북구청, 미디어공방 등
- 운영진 : 성북공동체라디오

○ 활동 목표 및 내용

- 활동 목표
 - ① 성북공동체 라디오 교육과 지역 청소년 라디오 교육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미디어 경험을 하게 하고, 이를 통해 동아리를 결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마을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라디오 방송물 제작
 - ② 마을라디오방송국의 지속적 운영과 성북미디어 네트워크 확대
 - ③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모델로 미디어 제작 사례 구축과 바람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직한 지역문화 형성

－ 활동 내용

- ① 청소년 교육 : 자신 있는 글쓰기 지도와 방송 녹음 연습
- ② 라디오 동아리 교육 : 초급 마을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이해, 미디어를 이용한 자료수집, 통계활용, 구글 활용법
- ③ 서울시 공동체라디오 라디오스를 통해 송출할 생방송 진행
- ④ 편집 기술 향상을 위한 실습
- ⑤ 참여하는 성북주민 신문 발간

○ 사업성과

- ① 자신의 목소리와 삶을 담아내는 과정을 통해 라디오와 신문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주민들의 의식 향상과 공동체 복원
- ② 청소년 미디어교육을 통한 청소년 활동 체계 마련
- ③ 주민들의 자발적인 욕구와 참여를 통해 성북공동체라디오 활동 주체 확대
- ④ 보이는 라디오 진행을 통한 미디어 활동 홍보,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 서울공동체 라디오 네트워크 플랫폼을 이용한 상시 활동 지속
- ⑤ 아리랑미디어센터와 성북미디어공동체 네트워크 형성에 주도적 참여를 통한 성북구 미디어 네트워크 추진
- ⑥ 성북구 2기 주민참여예산위원 활동을 통한 네트워크 확대와 지역 활동 공간의 확대(정릉 지역 미디어교육 추진)

○ 향후 과제

- ① 전문가적인 방송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 ②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방송시설 지원이 요구됨

(13) 성북구 : 성북마을방송 와보송TV

<매체 소개 및 활동 개요>

○ 매체 소개

- － 多 나, 너, 우리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는 방송
樂 유쾌하고 발랄하게 마을을 풀어나가는 방송

放 우리 손으로 만들고 공유하는 방송

○ 마을공동체 특징 및 마을미디어 참여계기

- 마을공동체 특징: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성북구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 함께 하는 성북마당 등의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성북구 특성의 마을공동체 지역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중
- 마을미디어 참여계기: 미디어 교육활동으로 다져진 영상 제작에 대한 역량을 밑거름으로 마을방송 와보송 개국. 지역주민이 방송의 주체가 되어 마을의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함께 즐길 수 있는 소통의 도구가 마을 방송임을 인식. 지속가능한 영상제작의 필요성과 마을미디어가 만나게 됨

○ 활동 개요

- 활동 기간 : 2013.8월 ~ 12월
- 활동 장소 : 성북구 전역
- 운영진 : 기획팀 6명, 운영팀 5명, 기술팀 4명
- 활동 참여자 : 주민앵커 19명, 와보송 회원 21명, 주민여러분 다수

○ 활동 목표 및 내용

- 활동 목표

- ① 우리들의 이야기가 재미있는 방송
- ② 대안미디어인 주민 제작참여 방송
- ③ 마을공동체의 소통공간인 방송
- ④ 누구나 참여 가능한 민주적 운영 방송

- 활동 내용

① 영상물 제작

- 정기적인 영상물 제작 : 마을뉴스(10편), 마을 포커스
- 특집 영상물 제작 : 북정마을이야기, <언니들의 호박씨> 3편, 와보송의 어제

와 오늘

- ② 영상제작 특별교육 : 영상제작 심화교육, 집중 편집교육
- ③ 주민영상 콘서트 : 마을앵커들이 만남 <송년상영회>

○ 사업성과

① <모든 주민은 앵커이다>

- 폭넓은 주민 앵커들을 발굴하고 이들이 방송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마을공동체의 주인이 됨
- 주민들의 소소한 일상이 영상매체를 통해 방영됨으로써 개인의 삶이 모여 공동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 체를 이루어나감을 경험
 - 다른 사람의 다양한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보는 시간을 만나게 됨
 - ② <북정마을이야기>, <언니들의 호박씨>
 -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어 다양한 형식의 영상 제작물을 만들고 영상 기획력과 기술적인 역량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 과정을 통해 자신감도 갖게 됨
- 향후 과제
 - ① 공모사업의 한계를 극복할 방안을 마련해야 함. 지금까지의 주민주체 공동체 영상문화 콘텐츠 활동의 성과를 지속 발전하기 위해 공모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
 - ②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마을미디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사업을 확대해야 함. 적은 예산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인터넷매체와 SNS를 적극 활용하고, 찾아가는 영상상영회를 고민. 마을의 이야기를 마을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당 마을상영회를 위한 기획예산 편성이 필요

(14) 송파구 : 한아름방송국

<매체 소개 및 교육 개요>

- 매체 소개
 - 한아름방송국은 송파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새로운 사업 기획안으로 처음 시작된 정신장애인(조울, 조현, 반복성 우울장애)이 주인되는 방송으로 2013년부터는 연출, 기획, 진행 등 제작 전반을 정신장애인들이 스스로 책임지고 있으며, 새로운 진행자의 교육비용과 새로운 연대를 모색하고자 마을미디어 참여하게 됨
- 교육 개요
 - 교육 기간 : 2013. 10. 10 ~ 2013. 12. 19
 - 교육 장소 : 송파정신건강증진센터 내 프로그램실
- 교육 목표 및 내용
 - 교육 목표

- ① 정신장애인에게 새로운 미디어를 접하게 함
 - ② 그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유도
 - ③ 한아름방송국의 지속성을 높이고, 많은 당사자들의 참여를 꾀함
- 교육 내용
- ① 자신을 드러내고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을 함양
 - ② 방송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여 라디오 방송의 이해를 높임
 - ③ 팀을 이뤄 혼자만의 생각을 탈피, 타인과의 소통 능력을 배양
 - ④ 대본 작성의 능력을 교육하고 훈련
 - ⑤ 진행을 직접 해보고, 들어보며, 자신과 타인의 장단점을 파악

○ 사업성과

기존 방송 진행자들의 재교육은 물론 전혀 경험 없는 신규 교육생들도 마을미디어를 통해 한아름방송국의 위상과 자신의 역할에 대해 재고하는 기회는 물론 강한 열정을 갖는 계기가 됨

○ 향후 과제

교육생 중 진행의 뜻이 강하고 능력도 갖추었으나 적은 활동비조차 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진행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던 바, 서울마을미디어의 지원이 지속성을 가질 필요가 있음

(15) 영등포구 : 안테나 '문래동네 Podcast 및 동영상 제작'

<매체 소개 및 활동 개요>

○ 매체 소개

- '문래동네'는 비주얼컬처 안테나가 발행하는 컬처매거진으로, 문래동의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뿐만 아니라 문래동과 관련된 예술인 또는 철 공작 관련 기술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정기간행물
- 2011년 7월호를 시작으로 매달 발행되며 2012년 12월까지 발간되다가 마을미디어에 선정되어 2013년 7월부터 다시 발행되기 시작
- 또한 팟캐스트도 함께 시작되어 문래창작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 마을공동체 특징 및 마을미디어 참여계기
 - 지역의 다양한 콘텐츠를 기록하고 알리는 목적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알아보던 중 마을공동체 마을미디어에 신청하여 지속가능한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됨
- 활동 개요
 - 활동 기간 : 2013년 7월 1일 ~ 2013년 12월 31
 - 활동 장소 : 문래창작촌 일대
- 활동 목표 및 내용
 - 활동 목표
 - ① 문래창작촌의 다양한 콘텐츠를 기록
 - ② 문래창작촌의 외부 홍보
 - ③ 문래창작촌 작가들과 주민들의 소통
 - 활동 내용
 - ① 문래창작촌 작가들의 리서치
 - ② 문래창작촌 공장들의 리서치
 - ③ 문래창작촌 활동의 기록

- 사업성과
 - ① 매달 문래동네 3,000부씩 발간
 - ② 2013년 7월 ~ 11월 까지 총 15,000부 발간
 - ③ 팟캐스트 4호 업로드 및 동영상 제작 6편 제작 오픈
- 향후 과제
 - 지속적인 발간을 위한 수익모델 개발

(16) 용산구 : 종점수다방

<마을 소개 및 활동 개요>

- 마을 소개
 - 남산을 끼고 자리한 용산구 용산 2가동(혜방촌), 후암동에는 오래전부터 거주하던

주민들이 많음. 해방촌과 후암동에 부모가 살고 계시기 때문에 외지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아이를 낳고 살림을 꾸리는 자식들이 많아 노인 인구 비중이 높고, 새로 이사 오는 사람들은 높은 전세 값으로 인해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음. 최근 젊은 층이 하나 둘 이사 오지만 동네는 여전히 정체되어 있으며, 영세한 맞벌이 부부가 많아 자녀의 교육환경 또한 좋지 않음. 동네의 공동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서로 관심을 가지고 노인과 젊은 사람들, 아이 키우는 젊은 부모들이 떠나지 않도록 함께 어울려 사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

- 우리마을 미디어 문화교실 2기와 3기를 통해 동네 라디오를 진행하는 법을 익혔고,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마을미디어 공방활동을 통해 미디어와 친해지기를 기대. 마을미디어 활동은 마을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하니 보다 창의적이고 주민 주도적인 활동이 필요. 따라서 재정적 지원과 컨설팅을 받고자 신청. 마을미디어 공방활동을 통해 주민모임을 만들고, 우리동네 이야기, 우리 이야기를 시작. 종점수다방의 마을미디어 공방활동은 마을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용산FM의 전망을 만들어 갈 것

○ 활동 개요

- 활동 기간 : 2013. 8 ~ 12
- 활동 장소 : 용산구 후암동, 해방촌일대, 종점수다방(공간)

○ 활동 목표 및 내용

- 활동 목표

- ① 이웃들과 공동체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미디어 주민활동가를 육성
- ② 정기 모임으로 미디어 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주민 커뮤니티를 활성화
- ③ 용산 마을미디어 방송센터(용산FM)를 띄우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 활동 내용

- ① 주민활동가 주도 프로젝트 : 강사 도움을 받아 방송제작 공정을 하나하나 익히는 5회 과정으로 진행
- ② [라디오 초대석: 출발! 500M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각자 정한 주제에 맞게 방송을 녹음, 편집을 완료
- ③ 용산FM 구성원들 각자의 라디오 방송에 대한 욕구와 전망을 이야기하며, 이후 용산FM의 전망에 대해 토론하는 워크숍 (1,2회차 연속)을 진행
- ④ 후암동-해방촌 마을공동체와 함께 준비한 해방촌 신흥시장 바자회에서 용산FM은 라디오 생방송(6시간)을 진행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 사업성과
 - ① 주민 스스로 방송을 제작할 수 있게 됨
 - ② 용산FM의 전망을 세우기 위한 경영 워크숍을 진행하고, 용산FM의 신홍시장 생방송 진행해 마을 내 인지도를 높임
- 향후 과제
 - ① 더 많은 방송 진행자를 확보함으로써 방송제작 역량을 강화
 - ② 용산구 내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용산구 안에서 공동체라디오 방송국 인지도를 높이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함
 - ③ 용산FM 공간 확대 및 라디오 방송국으로서의 역할 확대

(17) 은평구 : 은평시민신문

<마을 소개 및 활동 개요>

- 매체 소개
 - 2004년 6월 창간 준비위원회 발족하여
10월 인터넷 지역 언론으로 출발하였고 창간기념 종이신문 발간 및 인터넷 은평시민신문(www.epnews.net) 개통, 한양주택 생태마을 총 20여 차례에 걸쳐 집중 보도
 - 2004년 11월 시민단체 연대회의 '은평마당' 좌담회 현장보도
 - 2004년 12월 올해의 시민기자 선정 및 시상
 - 2005년 1월 은평뉴타운 관련 50여 차례 집중 보도
4월 신문법시행령(안) 제정을 앞두고 지역인터넷언론연대와 함께 공동대응
10월 신문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인터넷 언론으로 공식 등록
11월 창간 1주년 기념 종이신문 발간
창간 1주년 기념 문화공연 "나팔꽃과 함께 하는 가을 기행" 개최
 - 2006년 9월 은평시민신문 뉴스사이트 개편 및 10월 창간 2주년 기념식 및 시민기자상 수상
 - 2007년 11월 은평시민신문 뉴스사이트 개편
 - 2008년 5월 지역 시민단체 연대체인 '은평지역사회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은평마을 상상축제' 참여
 - 2008년 10월 은평시민신문 시민기자학교 운영

- 2009년 12월 (주)은평시민신문사 법인 등록 및 종이신문 발간. 현재 후원회원 180명, 시민기자 약 300명, 뉴스레터 회원 약 5,000명으로 시민들이 키우고 만들어가는 지역인터넷신문으로 자리매김
- 2010년 5월 지방선거 집중취재 및 보도, 10월 은평시민신문 후원의 밤 개최
- 2012년 7월 우리마을 미디어 문화교실(1기) 진행
 - 9월 공동체미디어활성화를 위한 ‘우리마을미디어 3.0 UP!’ 진행
 - 10월 은평구 신사동 산새마을 잡지, 마을신문 제작
 - 12월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와글와글 신문 만들기’ 진행
 - 12월 은평시민신문 마을기자단, 청소년기자단 운영
- 2013년 3월 주주총회 개최, 새 이사진, 자문위원, 편집위원 선임
 - 7월 우리마을 미디어 문화교실(3기) 진행 및 우리마을미디어공방 운영
 - 10월 거북이 기자학교 운영
 - 찾아가는 이야기콘서트 진행
- 2014년 1월 은평시민신문 77호 발간 및 은평시민신문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 활동 개요

- 활동 기간 : 2013년 8월 ~ 12월
- 활동 장소 : 은평구 일대
- 운영진 : 은평시민신문 시민기자

○ 활동 목표 및 내용

- 활동 목표
 - ① 은평 지역의 다양한 소식들이 모여 지역민들에게 소통되게 함
 - ② 다양한 네트워크기반을 만들어 마을미디어가 유통될 수 있게 함
 - ③ 마을미디어 활성화로 지역의 이슈를 새롭게 생산해 냄
- 활동 내용
 - ① 마을신문 만들기 : 2004년 지역 언론으로 출발한 은평시민신문 발행에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지속적인 매체발행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게 함. 한 달에 한번 발행되던 신문을 격주 간 발행이 가능하도록 조직과 체계 등을 새롭게 준비하는 계기가 됨
 - ② 기자학교 운영 : 마을에서 시민기자들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며,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짚어보고 기사 쓰는 요령, 어떤 것이 기사거리가 되는지 등을 공부하였음. 또 기사쓰기에 꼭 필요한 사진 찍기 기초교육과 마을에서 소통하면서 사진 찍는 방법 등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 짚어보았음
 - ③ 찾아가는 이야기콘서트 : 은평시민신문 창립 9주년을 기념하고 새롭게 협동조합으로 출발하기 위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역 내 문화예술인들의 공연도 함께 보는 자리로 마련. 특히 은평뉴타운 지역은 같은 은평구이면서도 서로 소

통하거나 왕래하기 어려워서 은평뉴타운 내 물푸레카페에서 두 번째 이야기콘서트를 진행. 마을신문이 왜 필요한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시작하는 시간을 가짐

○ 사업성과

- ① 지역주민들이 마을미디어가 왜 필요한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은평시민신문을 격주간으로 발행할 수 있는 기본토대를 만들 수 있었음
- ② 기자학교를 운영하고 이야기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지역주민들 간의 새로운 네트워킹이 가능하도록 계기와 장소를 마련하였고 지역주민들이 서로 협력하여 마을신문을 만들고 미디어활동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음

○ 향후 과제

- ① 지속가능한 마을미디어 활동을 하기 위해 수익구조 마련 및 분야별, 계층별 다양한 시민기자 발굴 필요
- ② 다양한 미디어 활동 중에서 신문발간사업이 갖는 의미나 역할 등에 대해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지속적인 신문발간을 위해 필요한 조직체계, 재정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
- ③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필요한 다양한 미디어를 개발하고 지역에서 소통될 수 있는 네트워킹을 마련
- ④ 미디어 제작 사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요구됨

(18) 은평구 : 은평인터넷라디오방송국 ‘동네 스튜디오’

<마을 소개 및 활동 개요>

○ 마을 소개

- 은평에는 오래전부터 ‘살고 싶은 마을’을 고민하는 여러 시민단체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음. 주민이 주도하는 ‘은평 상상 축제’는 덩치를 키우기보다 더 작은 지역에서 ‘동네축제’로 확장되었고, 구산동에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를 동력삼아 마을도서관이 만들어짐. 그리고 지자체와 주민이 함께 하는 다양한 사업의 기회가 확대되면서, 민관협력의 ‘누리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마을의 유희공간을 활용하는 마을예술창작소 설립을 준비하고 있음

- 은평에는 오래전부터 지역 사회의 이슈를 다루는 신문이 꾸준히 발행되어서 마을 미디어 역할을 담당해왔음. 다만, 라디오 혹은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지역방송 케이블과 은평구청의 홍보실에 국한되어서 진짜 주민의 목소리와 이야기를 수렴할 수 있는 마을미디어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음. 때를 맞춰 지역의 다양한 공간에서 미디어교육이 진행 중이었고, 이들의 역량이 발현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기대가 모아짐

○ 활동 개요

- 활동 기간 : 2013년 8월 ~ 2013년 12월
- 활동 장소 : 은평인터넷방송국(EBN)

○ 활동 목표 및 내용

- 활동 목표

- ① 이웃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마을공동체의 유대감 형성
- ② 라디오매체를 바탕으로 지역미디어 역할을 담당
- ③ 마을미디어 제작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역량 강화

- 활동 내용

- 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다양한 참여그룹 결성
- ② 미디어콘텐츠 제작을 위한 운영인력의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③ 마을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 기획
- ④ 음악, 영화, 육아, 책 등 다양한 관심사를 중심으로 하는 콘텐츠 확대
- ⑤ 진행자와 청취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합동공개방송 진행

○ 사업성과

- ① 은평의 특성을 살린 라디오 진행이 가능했고, 라디오를 통해 사람을 만나고 이웃의 이야기를 통해 마을 살이에 한걸음 다가다갈 수 있게 함

○ 향후 과제

- ① 마을에 청년이 부족한 바, 마을 안에서 비전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청년 그룹과 시니어그룹이 함께 시너지를 내도록 하는 노력 필요

(19) 종로구 : 창신동라디오방송국 '덤'

<마을 소개 및 활동 개요>

○ 마을 소개

- 창신동은 동대문에 의류를 납품하는 소규모 봉제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봉제업을 하는 주민의 경우 장시간 노동의 벼으로 라디오를 즐겨 듣기 때문에 창신동에 가장 적합한 미디어는 라디오임
- 창신동에는 오랜 세월 거주해 온 주민이 많고 서민, 저소득층이 다수이나 부지런히 자신의 몸을 움직이고 땀 흘려 정직한 돈을 버는 노동자들이 많은 지역. 때문에 주민들의 여가 시간이 적은 관계로 이동시간과 돈, 에너지가 적게 드는 지역기반의 문화 활동이 필요한 곳. 또한 생계 활동에 드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아 사회적 발언, 의견 조율 등을 경험할 기회가 적다는 특징이 있음
- 전태일 열사를 비롯해 지역아동센터,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많았던 지역으로 앞으로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많은 지역

○ 교육 개요

- 교육 기간 : 2013년 7월 7일 ~ 2013년 9월 8일
- 교육 장소 : 미디어엑트, 청소년센터 친구네, 창신2동 주민센터

○ 교육 목표 및 내용

- 교육 목표

- ① 관심 있는 주민들의 라디오 제작 참여를 확대
- ② 시간이 많지 않은 사람들도 참여 가능하도록 부담 없는 코너 제작을 목표로 함
- ③ 방송국 개국 멤버들이 전원 운영진으로 참여해 '마을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목 함

- 교육 내용

- ① 1, 2기 수료생들이 운영진으로 활동
- ② 마을미디어로서의 라디오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삶과 연결해 생각해 봄
- ③ 잦은 녹음과 청취, 피드백의 순환 과정을 거침으로서 수강생들에게 스스로 판단하고 동기부여 할 기회를 줌
- ④ 프로그램 전체 진행의 부담을 주지 않고 5분 이상의 '코너'를 개발해 쉽게 제작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 활동의 가능성을 높임
- ⑤ 대본이 있는 녹음과 이야기는 윤곽만 결정하고 대본 없이 대화하는 녹음을 모두 해봄으로서 그 차이와 특징을 이해

- 사업성과
 - ① 참여자들로 하여금 지역공동체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 제공
 - ② 3기 교육생들이 두 개의 최종 라디오 방송물을 만들고 청취회를 개최
 - ③ 지속적 참여를 결심하는 라디오 진행자들을 발굴
 - ④ 덩 개국 멤버들(라디오교실 1기, 2기 수료생) 전원 운영진이 되어 교육을 진행해봄

- 향후 과제
 - ① 참여자가 운영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시간의 훈련과 지원이 필요.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
 - ② 지속적 활동 의사를 밝힌 수료생들이 라디오 진행자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20) 중랑구: 중랑공동체라디오방송 '라디오스타 in 중랑'

<마을 소개 및 활동 개요>

- 마을 소개
 - 중랑희망연대는 기존의 중랑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던 시민단체 및 개인 활동가들의 활발한 연대와 공동의 대주민사업 마련, 자생적 주민조직의 행정적, 경험적 어려움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1년 만들어진 시민단체 및 활동가 네트워크

- 교육 개요
 - 교육 기간 : 2013년 7월 13일(토) ~ 8월 31일(토)
 - 교육 장소 : 중랑 민중의집 <사람과 공감>

- 교육 목표 및 내용
 - 교육 목표
 - ① 지역 공동체라디오방송국 설립을 위한 참여자 모집
 - ② 1, 2기 교육생 중심의 실무능력 배가
 - ③ 2~5개 이상의 신규 지역방송팀 세팅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 교육 내용

- ① 방송 실습 및 대본 이해 :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체험, 라디오방송 대본의 이해
- ② 방송언어 및 방송윤리의 이해 : 라디오방송 심의 사례를 통한 라디오방송 언어 이해, 방송윤리 중 '정확성'에 관한 중요성 인식
- ③ 녹음 실습 & 방송기획 과정의 이해 : 무작정 녹음하기 체험, 방송사례로 살펴본 방송기획과정 살펴보기
- ④ 녹음 실습 & 모니터, Filler 제작 : 구체적 기획안 제출, 녹음 파일을 들어보고 자체 평가회, 방송에 사용할 Filler 파일 제작 실습
- ⑤ 사운드 편집 프로그램 & CM 제작 : 사운드포지, 베가스 프로그램의 소개, 라디오 CM 제작

○ 사업성과

- ① 교육결과물: 무작정 라디오방송물 4건 제작 (중마고우, 빛과 소금, KT방송, 세상만사)
- ② 서울공동체라디오네트워크 채널 및 애플리케이션 '라디오스' 내 중랑라디오 프로그램 개설

○ 향후 과제

- ① 다양한 직업군은 확보한 듯 보이나, 다양한 연령층 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향후, 초, 중, 고교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
- ② 신규 교육생들의 참여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쉽게 실제 제작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를 미리 기획해 놓을 필요가 있음
- ③ 컴퓨터 성능 및 프로그램 안정성의 문제로 간혹 문제가 발생함.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
- ④ 이미 활발히 진행 중인 다른 마을미디어들과의 연계가 필요
- ⑤ 학교 등의 공공시설에 사업에 관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21) 강동구 : (사)열린사회시민연합 강동송파지부

<마을 소개 및 활동 개요>

○ 마을 소개

-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작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 내 주민들이 마을문화를 가꾸고, 교육과 환경 등의 문제를 다양한 방식을 통해 풀어 나가고 있는 공동체
- 연령별 육아품앗이, 동아리,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미디어를 통한 청소년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이 생각과 고민을 소통하며 마을을 이해하고 공동체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

○ 교육 개요

- 교육 기간 : 2013년 7월 11일 ~ 9월 14일, 2013년 9월 2일 ~ 12월 20일
- 교육 장소 : 작은도서관 함께크는우리

○ 교육 목표 및 내용

- 교육 목표 : 미디어를 활용한 마을 주민간의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마을과 청소년을 이해하고 새롭게 인식하는 기회 제공
- 교육 내용
 - ① 마을의 이해 및 공동체 교육
 - ② 다큐멘터리 제작 이해 및 영화 감상
 - ③ 팀별 기획안과 콘티 작성
 - ④ 촬영 및 편집기술 교육
 - ⑤ 영화제작 및 작품발표회

○ 사업성과

- ① 청소년을 주제로 한 영상제작을 통해 마을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세대 간 소통에 기여하고 마을행사에 참여하는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② 미디어제작 역량을 갖춘 청소년 동아리를 구성하여 12월 강동구 동동축제와 청소년 문화축제에서 <축제의 화모니> 영상제작 및 발표, 노래공연 등의 활동 펼침
- ③ 청소년들이 마을과 공동체에 대해 관심을 갖고 마을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 또래 및 세대 간 소통에 기여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 향후 과제
 - ① 청소년의 경우 팀별 작업이, 성인의 경우 개인적인 다큐멘터리 작업에 대한 욕구가 강함에 따라 향후 기획 시 추가 장비 확보가 요구됨
 - ② 강의시간 내 노트북과 카메라 실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장비 확보 필요

(22) 강서구: 채널강서발전소

<마을 소개 및 활동 개요>

- 마을 소개
 - 채널강서발전소는 강서구 구석구석의 소식을 발로 뛰며 전하는 마을 공동체방송국으로 강서구 주민이 주체가 되어 운영
- 교육 개요
 - 교육 기간 : 2013년 9월 24일 ~ 11월 26일
 - 교육 장소 : 강서 영상미디어센터 대강의실과 디지털 교육실
- 교육 목표 및 내용
 - 교육 목표
 - ① 마을 공동체와 마을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함
 - ②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채널 강서 발전소 콘텐츠 개발
 - ③ 강서구 마을 공동체방송국인 채널 강서 발전소 설립을 위한 마을 활동가 양성
 - 교육 내용
 - ① 마을 미디어와 마을공동체 이해하기
 - ② 마을 방송국에 대한 이해
 - ③ 카메라 촬영방법 숙지
 - ④ 마을 영상 콘텐츠 기획
 - ⑤ 촬영과 편집을 거쳐 영상을 직접 제작

- 사업성과
 - ① 마을 공동체와 마을 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넓어짐
 - ② 영상 제작에 필요한 기획, 촬영, 편집 등 영상 제작 전반에 대한 리터러시 향상
- 향후 과제
 - ① 교육시간을 확대해 보다 심층적인 교육을 가능하게 할 필요
 - ② 기초교육 이후 심화과정에 대한 커리큘럼이 이뤄져야 함

(23) 성북구: 성북나눔의 집

<마을 소개 및 활동 개요>

- 마을 소개
 - 1990년대 후반 이후 성북지역을 휩쓸고 지나간 수익형 재개발, 특히 급속한 뉴타운 개발로 인하여 주민 구성이 양극화되고 소외계층의 상대적 박탈감과 교육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성북구의 동부지역인 장위, 월곡, 종암동 지역의 일부는 최근 10년 내에 재개발되어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이루고 있으나,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는 불량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밀집 거주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환경 속에 방치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보며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들을 기획하게 됨
 - 영상미디어를 통해 각자가 살고 있는 공간을 확인하고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 혹은 내가 내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주체적인 창작자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를 희망함
 - 각자 가지고 있을 문제들, 예를 들어 학교문제, 집안문제 등을 직시하고 지역 내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이러한 문제들을 공유하고 함께 풀어낼 수 있는 공간을 각자 찾아내기를 희망함
- 교육 개요
 - 교육 기간 : 2013년 10월 ~ 12월
 - 교육 장소 : 성북 나눔의 집, 미디어액트, 충무로 오재미동
- 교육 목표 및 내용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 교육 목표 : 청소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더불어 자신만의 이야기를 통해 영상미디어를 생산해내며, 미디어 생산자로서 마을공동체와 소통하는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교육 내용
 - ① 마을 미디어 이해하기 : 마을에서 미디어를 제작하는 의미 이해하기
 - ② 영화 기획, 구성하기 : 극,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 스스로의 이야기를 꺼내보기, 전문적인 영화제작의 과정 이해하기
 - ③ 영화 촬영하기 : 개인별, 혹은 팀별로 각자의 이야기들을 각자의 스타일로 촬영해보기
 - ④ 영화 편집하기 : 개인별 혹은 팀별로 촬영본을 편집하기 & 편집을 통해 새로운 나의 언어 만들어보기
 - ⑤ 관객들과 소통하기 : 내, 외부 시사회를 통해 내부의 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법 이해하기

○ 사업성과

- ① 영화제작과 상영회를 통해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존감과, 공동제작을 통해 함께할 수 있다는 자신감 배양
- ② 교육 운영자들의 많은 관심과 집중력이 원활한 교육에 크게 이바지

○ 향후 과제

- 전체 교육 차시가 부족. 보다 유의미하고 효과적인 교육이 되기 위해서 교육 차시 확대가 필요

(24) 양천구: 모기동 ‘이야기하는 마을극장’

<마을 소개 및 활동 개요>

○ 마을 소개

- 행정구역상 ‘목2동’을 읽혀지는 대로 써서 ‘모기동’이라는 애칭을 붙였음. 친한 친구가 생기면 서로에게 애칭을 만들어 불러주듯, 모기동 역시 마을축제도 하고, 취미도 함께 나누면서 애정을 가지고 모인 가까운 사람들이 친근한 이름을 만들고 싶어 부르게 됨

- 모기동은 목동하면 떠올리는 ‘아파트 단지’, 소위 ‘잘사는 동네’라는 이미지와는 조금 다르게 ‘난쟁이 마을’ 과 같이 5층 이하의 낮은 빌라촌으로 이루어진 주거 밀집 지역. 목2동은 긴 세월 살아오신 터줏대감 어르신들부터 역세권이 되면서 이동이 용이해진 직장인, 신혼부부가 모여 사는, 어디를 가도 볼 수 있는 혼한 곳
- 이곳에서 ‘마을공동체’를 상상하게 되었던 것은 2011년 10월, ‘카페 숙영원’과 ‘나무 도예방’을 중심으로 (목2동 옆창역 근처 위치) 진행된 작은 골목축제가 열리고 서부터임. 마을 안에 이미 다양한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었지만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없었고, 일의 접점을 만들고자 하는 동기 역시 부족했음. 2011년의 축제, 어떤 의도와 목적도 없이 그냥, ‘심심해서’ 진행된 그 작은 골목축제는 우리에게 만큼은 많은 변화들을 일으켰음. 다양한 문화 활동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진행되기 시작했고 삶의 필요를 나누는 실천들 또한 천천히 진행되고 있는 중

○ 활동 개요

- 활동 기간 : 2013년 8월 1일 ~ 12월 10일
- 활동 장소 : 나무 도예방, 모기동 마을예술창작소

○ 활동 목표 및 내용

- 활동 목표 : ‘미디어’에 대한 장벽을 허물고, 일방적으로 보고 혼자 감상하는 차원을 넘어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아날로그 플랫폼을 만들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모기동’에 매력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 활동 내용
 - ① 함께 보고 수다 떠는 극장_보는 극장 : 빛그림 공연 및 책 읽어주기, 공동체 상영, 모기동 자체 제작 콘텐츠 보기
 - ② 미디어와 가까워지기_배우는 극장 : 마을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미디어 활동 교육, 구로 FM을 답사해 공동체 라디오 만들기 체험
 - ③ 만드는 극장 : 빛 그림 공연, 책 읽어주기 콘텐츠 제작, 마을극장 관련 기획 회의 진행

○ 사업성과

마을극장을 진행하면서 사람들이 마을극장에 대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며 부족한 부분은 논의를 통해 보완하고 극장을 이끌어가면서 참여자에서 주체로서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 가짐. 이를 통해 활동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자기화 할 수 있었음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 향후 과제

- ① 마을 네트워크 단위에서의 홍보와 현수막, 홍보물 배치 및 부착 정도의 수준에서 홍보를 진행해 홍보물을 볼 수 없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극장을 인지할 수도 없었음.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황임
- ② 대부분 한 명의 활동가가 세 가지 이상의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일에 대한 과부하로 인해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음. 활동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의 활동가 이외에 새로운 주체적 활동가를 양성해야 할 것임

(25) 중랑구: 행복한 반올림

<마을 소개 및 활동 개요>

○ 마을 소개

- 행복한반올림은 중랑구 지역의 특성, 그리고 그로 인한 자발적인 주민활동의 부재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키워드로 ‘청소년’과 ‘마을’을 설정, 지역 청소년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활동을 돕는 일과 주민공동체를 복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취약계층을 비롯한 아동과 청소년들이 친근하게 어울릴 수 있는 모임공간을 통해 세대 간 소통은 물론 마을에서 함께 키우고 나누는 자연스러운 공동체를 만드는 풀뿌리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

○ 교육 개요

- 교육 기간 : 2013년 10월 5일(토) ~ 12월 17일(토)
- 교육 장소 : 중랑민중의 집 <사람과 공감>

○ 교육 목표 및 내용

- 교육 목표

- ① 미디어 참여에 대한 심리적 장벽 제거를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미디어’ 참여 욕구 고취
- ② 영상미디어 교육을 통한 마을공동체 표현 활동
- ③ 미디어활동 경험과 활동가, 장비 등 구비로 초기 형태의 ‘지역미디어지원센터’ 역할 수행

- 교육 내용

- ① 마을공동체와 마을미디어 소개 : 마을공동체 소개, 스스로 만드는 미디어, 앞으

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제시

- ② 촬영의 이해 및 실습 : 촬영방법을 배우고 직접 촬영해보기. 인터뷰 컷을 추가한 촬영실습 진행
- ③ 영상편집 이론 : 영상편집 프로그램 '프리미어' 배우기
- ④ 영상기획 실습 : 자신의 관심사를 알고 이를 토대로 내용 구성. 그 결과를 대본으로 작성
- ⑤ 영상편집 실습 : 직접 찍어온 영상의 편집, 완성

○ 사업성과

- ① 마을인근 지역 교육생 10명 이상 확보(가족단위)
- ② 영상제작에 대한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향후 과제

- ① 홍보물과 지인들의 소개를 통한 교육생 추가 모집이 필요
- ② 좁은 장소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외부 활동 연계가 요구됨
- ③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적극 활용해, 주부 교육생들의 참여 확대
- ④ 교육생들의 참여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쉽게 실제 제작에 접근 가능한 콘텐츠를 미리 발굴할 필요가 있음(보조강사와 활동가 등 짧은 영상물 작품 등)
- ⑤ 입문자에 한해 보다 쉬운 프로그램으로 접근하게 하는 방법 필요
- ⑥ 기자재 낙후로 교육생 모두가 프로그램을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향후 관련 기자재 보완이 요구됨

2-5. 마을미디어 사업의 해외 사례 평가

- '마을미디어'는 미디어 연구나 시민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으로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체제 하에서 시작한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구체화되기 시작
- 따라서 직접적으로 마을미디어 개념을 사용한 해외 유사사례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마을미디어'의 가족개념이라 할 수 있는 '공동체미디어', '퍼블릭액세스' 등과 관련된 해외 프로그램 및 정책을 찾아 평가하고 마을미디어 사업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1) 캐나다의 공동체라디오 기금 지원프로그램 '라디오미터(Radiometre)'



(1) 개요

- '라디오미터'는 2012년 7월부터 캐나다 공동체라디오 영역을 대상으로 시작된 국가적 차원의 기금 지원 프로그램
-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이하 CRTC)의 지원 결정은 캐나다 국가 방송시스템 내에서 공동체라디오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한데서 비롯됨
- 라디오미터는 2012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89개 공동체라디오의 148개 프로젝트에 총 3백만 달러(한화 약 28억 7,000만원) 이상을 지원

(2) 추진배경

- 캐나다의 기금 지원 시스템은 공동체라디오 영역의 오랜 역사적 전통과 활발한 활동,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규제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 옴. 특히 국가 차원의 공적지원이 공동체라디오가 발달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음
- 기존 캐나다의 기금 보조 시스템으로는 공동체라디오만을 지원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금 조직인 ‘캐나다 공동체라디오 기금재단(The Community Radio Fund of Canada, 이하 CRFC)’가 존재해왔음. 그러나 이 재단은 다른 나라의 사례와 같이 국가 주도로 설립되어진 것이 아니라, 캐나다의 3개 주요 공동체라디오 연합의 연대를 통해 2007년 설립된 비영리 민간 기금 재단. CRFC는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해 공동체라디오 방송국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특정 프로젝트에 간접 지원을 하는 형식을 띠었음
- 즉, 공동체라디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캐나다의 핵심 기금 보조 구조는 미흡했다고 볼 수 있음. 특히 중앙정부 차원의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공적지원 구조가 취약했음. 영국의 공동체라디오 기금처럼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동체라디오를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운영비, 인건비, 기술적 업그레이드 등에는 지원되지 않았으며, 매년 고정적으로 할당되는 핵심 지원 모델이 없었음. 이에 캐나다의 공동체라디오는 적은 광고 수익, 불안정한 기금, 적은 교부금 등의 재원 관련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RTC는 2010년 공동체라디오 방송에 대한 정책을 새로이 규정하면서 기금 정책을 포함. CRTC가 처음으로 캐나다 공동체라디오를 위한 견고한 기금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 이 결정으로 매년 75만 달러 이상이 CRFC에 지원되어 공동체라디오 영역의 안정화에 크게 도움을 주게 되었음
- 기금의 운영은 CRFC가 담당하며, CRFC는 2년여 간의 준비를 거쳐 2012년 7월 3일 라디오미터라는 이름의 새로운 펀딩 프로그램을 시작

(3) 특징

① 기금 재원: 상업방송사의 수익 환수

- 공동체라디오 방송 영역에 대한 공적지원 기금은 상업방송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징수된 재원을 통해 이루어짐. 캐나다는 방송들이 캐나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익의 일부를 ‘캐나다 콘텐츠 발전기금’(Canadian Contents Development, 이하 CCD)으로 징수하고 있음
- CRTC는 이 CCD 기금의 일부를 공동체라디오에 지원. 다만 상업방송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업방송사들의 CCD 기금 비율을 높이지 않는 대신, 이 기금의 일부를 공동체라디오방송 영역에 지원하는 방식을 취함. 이에 따라 년 매출 125,000달러 이상의 수입을 가진 모든 상업방송사들은 CRFC에 최소 자신들의 CCD 기부액의 15%를 기부해야 함
- 정기적인 CCD 기부 이외에도 면허 갱신이나 소유권 이전 시 이익의 일부를 기부하도록 함. 상업라디오 방송국의 소유권 이전이나 사업의 경영권에 대한 이전이 있을 경우, CRFC는 그 이전가치의 최소 0.5%에 달하는 이익을 받게 됨

② 기금 지원 항목 및 지원 금액

- 기금 지원 프로그램은 성과기반(Outcomes-based) 방식으로 이뤄짐. 기존 펀딩 지원 방식은 공동체라디오 방송국의 스텝 인건비나 기술적 업그레이드, 자본 지출 등과 같은 직접적 운영과 관련한 핵심적인 항목에 대한 지원보다는 특정영역의 프로젝트 기반의 분산된 지원 시스템이었음
- 이에 반해 성과기반 방식의 지원은 각 방송국에서 필요한 자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펀딩지원으로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를 측정하는데 초점을 둔 방식. 성과는 기금 지원으로 이루어진 활동의 결과나 변화를 말하며, 이에 대한 측정은 장기적으로 이루어짐
- 라디오미터는 캠퍼스와 공동체라디오, CRTC 그리고 캐나다 방송시스템의 주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주요 성과를 설정
 - ① 고품질, 지역성을 반영한 음악과 음성프로그램
(High-quality, locally-reflective music and spoken word programming.)

- ② 지역 콘텐츠제작과 운영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의 숙련과 지속적인 참여
(Skilled and sustainable volunteer participation in local content creation and operations.)
- ③ 방송국 관리, 프로그램 그리고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공동체 참여
(Diverse community participation in governance, programming, and content.)
- 기금 지원은 장기적으로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각 방송국에서 제출한 항목에 유통성 있게 지원함. 각 방송국에서 지출할 수 있는 비용항목은 의무고용 비용을 포함한 임금 및 사례금, 프로젝트 코디네이트 비용, 외부 교육비용, 500달러 한도의 기술적 비용(휴대용 레코더, USB, CD, 편집소프트웨어 등), 프로젝트에 대한 광고 또는 홍보 자료 비용, 프로젝트와 관련된 여비, 프로젝트와 관련된 웹 사이트 비용, 세금 등임
- 즉, 기금은 캠퍼스와 공동체라디오 방송국들이 자원봉사자와 프로그램 제작 그리고 커뮤니티 참여를 지원하는 주요한 목적을 두고 있으며, 주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자원봉사자 모집 캠페인, 자원봉사자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제작, 지역 공동체 대상 캠페인 및 교육, 방송국 운영과 관리를 위한 지역 공동체 참여 등)에 들어가는 강사나 스태프들의 인건비, 자료, 홍보물, 행사 등에 기금을 지원

③ 기금의 배분과 평가

- 기금에 대한 모금과 배분은 CRFC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기금의 지원과 배분 과정은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함. CRFC는 기금 사용에 대한 계획을 CRTC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금을 받은 방송국들은 연 2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보고서에는 지원받은 기금액수, 기금 사용항목들을 담도록 해 기금의 사용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 기금 지원에 대한 성과는 장기적으로 측정되며, 성과에 대한 지표를 설정하여 측정함. 성과지표는 기금 프로그램의 3가지 주요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양적 지수화하였음.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지역 뉴스 프로그램 시간, 지역 제작 콘텐츠 방송 시간, 지역 예술가 인터뷰 수, 자원봉사자 수, 자원봉사 시간, 방송된 인터뷰 수, 지역 공동체 출연 방송 수, 프로그램 제작 외 자원봉사 시간 등임

[표] 캐나다 라디오미터의 기금지원 성과 측정 지표

성과	결과 및 실행 지표
고품질, 지역성을 반영한 음악과 음성 프로그램	○ 지역 뉴스 및 공공사건 보도 지표 : 프로그램 시간, 이슈 보도의 형태 및 범위 ○ 지역 음악 방송 지표 : 지역제작 콘텐츠 방송시간, 지역 예술가 인터뷰 수
지역콘텐츠 제작과 운영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의 숙련과 지속적인 참여	○ 방송제작 자원봉사자들의 숙련 정도 지표 : 자원봉사 시간, 방송된 인터뷰/스토리 수 ○ 프로그램과 운영에 대한 자발적인 기여 지표 : 자원봉사자 수, 프로그램 제작 외의 역할 및 기능에 있어서 자원봉사 시간
방송국 관리, 프로그램 그리고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공동체 참여	○ 공동체-액세스 프로그램 지표 : 공동체가 출연한 방송 수, 프로그램 방송시간 ○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 지표 : 참여 공동체 구성원 수, 공동체 기여 시간

* 출처 : 최성은 (2013. 6. 30). [ACT! 84호 미디어인터내셔널] 캐나다 공동체라디오 신규기금 지원프로그램, "라디오미터"(<http://actmediact.tistory.com/88>).

(4) 시사점

- 캐나다는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새로운 기금 지원 프로그램인 라디오미터를 통해, 공동체라디오의 핵심적인 활동 전반(자원봉사 훈련, 지역 프로그램 제작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 활동 등)의 안정적이면서도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
- 라디오미터는 국가적 차원에서 공동체라디오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안정적인 지원 구조를 마련했다는 것과 이를 위해 상업방송 영역의 협조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물론 공동체라디오 방송의 재원을 다양화할 필요는 있으나 공동체라디오 방송의 안정과 지속가능을 위해서 공적지원은 반드시 필요
- 때문에 CRTC 역시 다양한 재원 구조를 갖는 것이 공동체라디오 방송의 건전한 구조를 갖는데 도움이 된다는 견해를 유지하면서도 국가차원의 공적지원 구조 시스템을 강화한 것으로 보임

2) 남미의 ‘퍼블릭액세스’ 전략

(1) 개요

- 국내의 경우, KBS의 <열린채널>이나 시민채널 RTV 개국으로 대표되는 여러 퍼블릭액세스(PublicAccess)가 있었지만, 확대는커녕 최근에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상황임
 - ※ 퍼블릭액세스 :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공적(퍼블릭) 접근(액세스)의 권리“이나, 넓은 의미로 보자면 ”어떤 매체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도 적용될 수 있는 원리로서 주로 권력과 자본이 독점하고 있는 매체 영역의 일부(시간 혹은 채널)를 개방해서 일반 민중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 남미 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몇몇 부유한 가문과 미디어 재벌이 미디어를 독점해왔음. 하지만 지난 15년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우루과이 등 해당 지역의 몇몇 정부들이 미디어를 민주화하기 시작함
- 이들은 미디어가 상품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라고 재정의함. 정부는 전파를 재분배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 공동체 방송국을 우선시켰으며, 방송에서 소외된 그룹이 차별당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2) 국가별 추진 현황

① 베네수엘라, ‘Ley Resorte법’

- 2000년 베네수엘라 입법자들은 국가의 통합통신법(Organic Telecommunications Law)을 ‘통신을 인권으로서 보장하고 개인, 지역, 공동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립’하는 방향으로 개혁
- 2002년 베네수엘라 주류 채널들은 휴고 차베스 대통령에 반하여 일어난 짧은 쿠데타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조작된 영상을 사용하는 행태를 보이는 등 정치적 편향이 심했음. 그러나 차베스가 권력을 되찾은 후, 정부는 30개의 공동체 TV와 라디오 방송사에 법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베네수엘라의 가난한 지역에서 생산된 공동체미디어를 지원하기 시작함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 2004년 국회는 베네수엘라 역사상 가장 논란이 심했던 미디어 규정을 통과시켰음. 이 규정은 TV와 라디오의 사회적 책임 규정(Ley Resorte)으로, 증오, 편견, 인종차별, 범죄행위를 조장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내용, 선출된 권력을 불신임하거나 법을 어기는 내용의 방송이 송출되는 것을 금지
- 2007년 베네수엘라 정보통신위원회(CONATEL)는 2002년 쿠데타에 대해 공개적인 지지를 보낸 대가로 RCTV의 승인을 갱신하지 않기로 함. 이로 인해 RCTV는 지상파에서의 방송권을 잃고, 케이블과 위성방송만 하게 됨. RCTV가 없어진 채널에서는 새로운 퍼블릭액세스 네트워크 TVes가 방송 시작
- 2009년 베네수엘라 정보통신위원회는 면허가 박탈된 32개의 개인 라디오와 TV 방송국의 폐쇄를 발표했는데, 이들은 모두 규정을 어기거나 의무비용 지불을 거부한 곳이었음. 2010년 후반에 들어서 국회는 이 사회적 책임 규정의 적용범위를 인터넷에까지 확장시킴
- 베네수엘라 방송 채널의 스펙트럼은 지난 14년간 새롭게 발효된 정책들로 인해 극적인 변화를 겪음. 1998년에 한 해 동안 운영된 상업방송국은 331개인데 비해 퍼블릭액세스 FM 방송국은 11개, 개인방송국 36개, 지상파 TV 방송국은 8개. 2012년 4월에는 상업방송국이 67개로 줄고 개인방송국은 499개, 퍼블릭액세스 방송국이 83개,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은 247개로 크게 늘었고, 13개 공공서비스, 38개 공동체 텔레비전도 존재하게 됨
- 미국 상원의외교위원회와 ‘프리덤하우스’, ‘인권감시단’ 등의 미국 주류 인권 단체는 전통적으로 베네수엘라 내 개혁 반대파인 상업적 미디어와 동맹을 맺고 있는데, 이들은 차베스 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규탄해왔음. 공동체미디어가 주류 이데올로기를 거의 재생산하지 않는, 지역의 광고주라는 이유
- 하지만 베네수엘라의 풀뿌리미디어 생산자들은 그들의 주장을 부정하며, 정부가 공동체미디어에 관한 전자·통신 프로젝트를 인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한 이후로 미디어 포용정책 부분에서 큰 발전이 있었다고 주장

② 아르헨티나, '33% 전략'

- 2009년 아르헨티나 의회는 시/청각/통신서비스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통과 시킴. 이 개정안은 방송권을 재분배하여 33%는 개인소유, 33%는 공공영역, 33%는 비영리에 나누어 주는 것으로, 미디어 소유권의 불공평한 집적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 개정안의 내용은 방송사업자가 소유할 수 있는 허가권의 수를 10개로 제한하고 방송권 또한 20년 단위가 아니라 10년 단위로 갱신하도록 하여 권한이 더 자주 순환하고 소규모 방송국들이 경쟁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 개정안 통과 후 얼마 되지 않아 'UN 표현의 자유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은 이 법안이 "남미에서 급증하는 미디어 집중 경향을 거스르는 커다란 한 걸음을 내딛었다"며 극찬. 하지만 '아르헨티나 라디오 제작 센터' 대표 프란시스코 갈라이는 미디어 소유권 문제는 아직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
- 개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 특히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큰 미디어 재벌 기업인 '그루포 클라린(Grupo Clarín)'은 사설을 통해 그 법안이 기업의 독점을 깨도록 강요할까 우려하며 그루포 클라린에서 보유 중인 허가권을 1년 안에 새 기준치에 맞춰 10개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음
- 그루포 클라린을 지지하는 이들은 개정안이 키르히너 정부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즈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미디어 회사들을 저격하기 위한 부당한 구실이라는 주장을 펼침
- 수백 개의 풀뿌리 조직과 독립 미디어 제작자들로 구성된 '민주방송연합'은 개정안에 대한 21가지 의견을 준비했는데, 그 대부분은 최종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대안미디어네트워크'와 같은 독립 미디어 그룹은 "비영리 미디어"라는 분류가 일부 지역, 공동체 방송인들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개정안을 적용하더라도 그들은 강력한 종교 단체나 허가업체의 연합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

(3) 시사점

- 한국에서 현재 퍼블릭액세스를 지원하는 방식과 제한점은 다음과 같음
 - ① 방송법 69조 6항과 시행령 51조에 의거하여 ‘매월 100분 이상 한국방송공사에서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정한 것. 이 조항에 따라 KBS에서는 <열린채널>이라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음. 그러나 저조한 시청률과 참여율로 곤혹을 겪고 있음
 - ② 방송법 70조 7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방송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것. 하지만 이는 KBS에 대한 조항만큼 강제성이 없으며, 관련 예산 축소와 정책적 후퇴로 파행을 겪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
 - ③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두고 지원하는 것이나, 광역시 중심의 4~5개 센터로 지원하기에는 그 한계가 분명함

- 주파수의 상당량을 퍼블릭액세스에 할당한다는 점, 또 인종 및 성차별 등 반인권적인 내용을 제외하고는 내용 검열을 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 등에서 남미의 퍼블릭액세스 정책은 굉장히 급진적·획기적인 모습을 보임

- 남미의 퍼블릭액세스 정책은 하루아침에 정착된 것이 아니며, 굉장히 오랜 시간 정치적 투쟁과 노력을 통해 얻어진 것임. 한국과 남미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맥락이 상이함에도, 퍼블릭액세스 확대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노력을 경주해나갈 필요

3) 미국의 공동체라디오(LPFM: Low Power FM)를 위한 주파수 확보와 신규 허가 신청정책

(1) 개요

- FCC가 난 2012년 11월 12년 만에 처음으로 공동체라디오 방송국을 위한 신규 신청을 받겠다고 발표. 신청은 2013년 10월에 진행

- 신규 허가는 2011년 1월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지역공동체라디오법(Local Community Radio Act of 2010)’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진행
- FCC는 지역공동체라디오법 발효 후 공동체라디오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실행해 왔음. 2012년 1월 공동체라디오가 대출력(full-power) 상업 FM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는 연구 결과를 수행했으며, 이어서 2012년 3월에는 공동체라디오를 위한 주파수 확보조치를, 2012년 11월에는 공동체라디오 신규 공모일정 및 새로운 허가규칙을 발표

(2) 공동체라디오 주파수 확보 정책과 개정된 규정 (New LPFM Rule)내용

① 공동체라디오(LPFM) 주파수 확보 정책

- 현재 미국의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정책 방향은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면허 기회를 확대하는 것. 공동체라디오의 사회적 필요성과 함께 공동체라디오가 기술·경제적으로 기존 상업방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전국적 차원에서 공동체라디오에 신규 허가를 진행
- FCC는 공동체라디오의 주파수 자원을 확보하고, 특히 도심 지역의 공동체라디오 허가를 위한 주파수를 보호하기 위해 보류중이었던 FM 중계국(translator)의 허가 신청을 반려하기로 함. 미국에서는 2003년 이후 6천 개 이상의 FM 중계소가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임
- FCC는 FM 중계소와 관련한 신청에 대해 라디오 방송 시장 환경을 고려해 3 단계로 구분하여 처리하기로 함
 - ㉠ 도시의 경우 미래의 공동체라디오 방송국을 방해하는 모든 중계국의 허가 신청을 취소하기로 함
 - ㉡ 도시 외곽의 경우는 신청자가 중계국을 설립하는 위치에 공동체라디오 방송국을 위한 주파수에 여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중계국 허가 신청을 취소하겠다고 밝힘
 - ㉢ 기타 지역에서는 공동체라디오를 위한 주파수가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보고 모든 중계소 신청을 처리하기로 함
- 단, 각 라디오 방송 시장에서 중계신청의 상한을 50%로 제한하도록 함. FCC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의 이러한 조치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콘텐츠를 그대로 중계하는 중계소에 의해 사용되던 라디오 채널들이 이제 공동체라디오에 개방되게 되었음

- 물론 이 조치로 중계 신청이 취소된 주파수 모두가 공동체라디오를 위한 공간이 되지는 않음. 특히 대중적인 라디오 시장인 대도시(뉴욕, LA 등)의 경우 주파수 여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공동체라디오 방송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공동체라디오 허가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도심 지역에 새로운 공동체라디오를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공동체라디오를 위한 미래의 주파수 자원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 조치는 큰 의미를 가짐

② 공동체라디오 신규 규칙: 공동체라디오 방송의 신청 및 운영 관련 기준 유연화

- 제 2인접채널(Second adjacent channel) 규정 면제
 - 기성 방송국의 두 번째 인접 주파수에 면허를 허가하는 것
 - 이 조항은 새로운 규칙 중에서 가장 큰 이슈인데, 이 규칙의 적용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공동체라디오를 허가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
 - 전국적으로 공동체라디오 방송국의 수가 2~3배 정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특히 도심 지역에서의 공동체라디오 방송국 설립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됨
- 공동체라디오와 중계국 교차소유(Cross-ownership of LPFM and translators)
 - 공동체라디오 방송국이 중계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기존까지 공동체라디오는 중계국을 운영할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적은 출력으로 방송되기에 주변지형이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 방송 커버리지가 매우 적을 수밖에 없었음
 - 그러나 새로운 규칙의 적용으로 공동체라디오 방송국들의 방송 커버리지가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문제는 중계국의 비용이 수만~수십만 달러로 매우 비싸다는 점이므로,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 중계국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방송국은 극히 소수일 전망
- 포인트 시스템(point system)
 - 공동체라디오 면허 신청 시 한 지역에서 복수의 신청자가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FCC는 포인트제를 통해 최고 포인트를 받은 신청자에게만 면허를 부여. 포인트 시스템은 공동체라디오의 목적인 '지역성'에 기반하고 있음
 - 기존 포인트 항목은 ㉠ 운영시간(하루 최소 12시간 이상 운영), ㉡ 지역프로그램

램(하루 8시간 이상 지역프로그램 편성 - 여기서 지역이란 안테나로부터 10마일 이내 지역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인정), © 지역기반 (최소 2년 이상 지역 거주, 신청 공모가 열리기 2년 전부터 안테나로부터 10마일 내에 본사 또는 캠퍼스 위치 또는 이사회 75% 이상이 거주)의 세 가지로 각 항목에 최대 1점씩 부여

- FCC는 이 포인트 시스템을 개정하였는데, 전반적으로 공동체라디오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성과 다양성을 강화

○ 동점자처리 - 시간공유(Timeshares)

- 복수의 신청자가 신청할 경우 동점자가 발생할 수 있음
- 동점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기존에는 ㉠ FCC가 동점 신청자들에게 자발적 합의(시간공유; 복수의 방송국들이 동일한 주파수를 공유하는 것)를 권고하는 방법과, ㉡ 비자발적인 시간공유(involuntary timeshares)가 있었음
- 하지만 새로운 규칙에서는, 만일 지원자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FCC는 비자발적인 시간공유 대신 설립연도가 오래된 3개 단체에게만 자발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3개 단체를 제외하곤 나머지 신청을 취소. 만일 3개 단체가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FCC는 동시에 그리고 비공개로 선호하는 타임 슬롯(time slot)을 위원회에 제출하라고 함
- 이는 지역사회에서 존재가 가장 오래된 단체로 증명된 단체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FCC는 이 방법이 이전의 비자발적 시간공유보다 지속가능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이라 보고 있음

○ 최소운영시간(Operating Hours)

- 기존 규칙에서 공동체라디오방송국들은 하루에 최소 5시간, 일주일에 적어도 6일, 일주일에 최소 36시간 운영하면 됨
- 반면, 새로운 규칙에서는 최소 1년 동안 매일 12시간을 운영하지 않으면 방송시간을 다른 방송국과 공유해야 함
- 공동체라디오 방송국의 최소운영시간을 늘린 이유는 방송시간이 늘어남으로 인해 방송의 양적 증가와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함
- 그러나 FCC는 처음 방송을 시작한 후 3년 동안은 운영 능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방송국에 점증적으로 방송시간을 늘려나갈수록 융통성을 발휘할 예정. 즉, 방송 시작 후 3년 동안은 규정을 바로 적용하지 않고 점차 시간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

- 공동체라디오 유형(Classess of Service)
 - 현재 미국의 공동체라디오는 100와트(LP100)와 10와트(LP10)의 두 가지 유형이 있음
 - 그러나 FCC는 10와트(LP10) 방송국 면허를 전혀 발급하지 않았음. 그래서 현재 모든 공동체라디오 방송국들은 100와트(LP100)이다. 하지만 새로운 규칙에서 FCC는 LP10을 삭제
 - 라디오 유형과 관련해서 공동체라디오 진영에서는 LP50의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음. LP100을 위한 주파수 환경이 부족한 도시 지역에서 더 많은 공동체라디오 방송국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기 때문
 - 반면 FCC는 LP250의 신설을 제안.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거주하고 있는 시골 지역의 경우 좀 더 높은 출력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그러나 FCC는 이번 규칙개정에서 LP250을 신설하지 않는 대신 좀 더 연구를 진행하기로 결정

(3) 시사점

- 미국의 공동체라디오는 지역공동체라디오법 발효 이후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음. 특히 미래의 공동체라디오를 위한 주파수 확보 정책은 공동체라디오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차원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
- 새롭게 개정된 규칙 역시 공동체라디오의 특성을 유지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좀 더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했음. 또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관련 단체와 소통하고 의견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지역 공동체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최근의 변화 지점들은 미국 공동체라디오의 미래에 대해 기대하게 함
- 그러나 무엇보다도 미국 공동체라디오 정책과 관련하여 특기할 점은, 공동체라디오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임. 특히, 한국의 공동체라디오가 제도적으로 도입된 지 10년이 다 되었음에도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를 위한 정책 변화가 그동안 거의 이뤄지지 않아왔음을 감안하면, 미국 공동체라디오 관련 일련의 변화들은 주목할만한 사례가 된다고 할 수 있음

4) 영국의 공동체라디오 커뮤니티 ‘커넥트: 트랜스밋(Connect: Transmit)’

(1) 개요

- ‘커넥트: 트랜스밋’은 공동체 라디오 활동을 이미 하고 있는 이들과 처음 시작하는 젊은이들의 커뮤니티 웹사이트로, 공동체 라디오를 만들어가는 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보를 공유하고 인맥을 넓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
- 이 사이트는 또 ‘커넥트:트랜스밋 프로젝트’를 기록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도 한데, 이 프로젝트는 노르웨이, 브래드포드, 프레스턴 등 여러 지역의 센터들과 연계하여 젊은 라디오 방송인들을 교육하고 육성하는 활동을 함께함
- 사이트에 첨부된 유튜브(YouTube) 동영상들 통해 각 센터에서 하고 있는 교육은 어떤 것이고,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함께하며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소개하고 있음

[그림] 영국의 공동체라디오 커뮤니티 ‘커넥트: 트랜스밋’ 홈페이지



* 출처 : ‘커넥트: 트랜스밋’ 홈페이지(<http://www.connecttransmit.org.uk>).

(2) 추진배경

- ‘커넥트:트랜스밋 프로젝트’는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공동체 라디오 센터인 ‘라디오 리젠(Radio Regen)’에서 ‘폴 햄린 재단(the Paul Hamlyn Foundation)’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
- 라디오 리젠은 환경운동가이자 사회운동가이며 BBC에서 라디오 PD로 일했던 필 코벨(Phil Kobel)이 공동체 라디오 활동을 위해 1999년에 설립한 비영리단체로, 맨체스터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인재들을 교육하여 공동체 라디오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내면서 활동을 시작
- 라디오 리젠은 공동체 라디오의 개념을 알리는 것부터 여러 지역에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만들기, 공동체 라디오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회의 개최, 인재 육성 등을 활발히 진행해왔고, 현재는 연구 및 정책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데, 그 활동의 일환이 바로 ‘커넥트:트랜스밋 프로젝트’임

(3) 활동영역

- 현재 공동체 라디오 분야의 활동 평가 : 평가 방법 고안, 영국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및 11-19세의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평가 질문지 돌리기
-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들과 연계한 청년 프로젝트 시험제작 : 이 프로젝트들은 각 방송국 전송 담당자들과 공조하여 신중하게 평가됨. 이들은 60여 명의 젊은이들과 청년 프로젝트 시험방송을 함께 진행
- 두 개의 온라인 네트워크 제작 : 청소년 및 성인 공동체 라디오 방송인들이 함께함. 각 네트워크는 실제 방송 전에 시험시행과 평가를 거침
- 청년 공동체 라디오 방송인들이 사용한 방법들을 포함하여 평가한 리포트 게재(@communityradiotoolkit.net) : 최고의/현재 진행중인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평가, 시험 프로젝트 평가 데이터, 온라인 네트워크 피드백 등의 프로젝트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 성공적인 방법들의 실례는 말하기와 듣기 능력을 가르치는 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젊은 공동체 라디오 종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됨

- 청년 공동체 라디오 종사자들을 위한 사전 컨퍼런스를 포함한 국제 컨퍼런스 /행사 개최 : 청년들과 공동체 라디오 종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리포트의 내용을 만들고 거기서 배운 내용을 공유하고, 그 방법과 내용에 대해 토론
- 일련의 ‘지역 세미나’ 운영 : 여러 프로젝트로 공동체 라디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각 지역 프로젝트 협력자들 주변에 있는 교육계 상위 의사 결정자와 청년층 예비 인력을 타겟으로 만나질 동안의 행사를 통해 진행. 각각의 세미나는 지역 프로젝트와, 국제 프로젝트 작업을 발표하고, 제안된 방법들의 유용성이 어떻게 하면 그 지역에서 최대로 발휘될 것인가에 대해 논의
- 입법자들에 대한 로비활동 : 라디오 리젠 대표의 주도로 이루어지며, 런던에서 DCMS, Ofcom, DoE, DCLG와 회의를 갖는 데에 초점을 맞춤. 고등학교 교육과 청년 사업을 지원하는 다른 단체들도 같은 목적으로 미디어 캠페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함께함. 이 단계는 프로젝트 후반부에 진행하며 앞선 시험방송 프로젝트에서 만들어낸 것들을 기반으로 진행. 입법자들도 프로젝트의 결과를 발표하는 컨퍼런스/행사에 참석/참관하게 함

(4) 사이트 내용: 공동체라디오 구축 및 운영, 제작을 위한 매뉴얼

① 라디오 방송국과 그 안에서 라디오 방송 제작을 시작하는 방법부터 알려주는 ‘Making! (만들자!)’

- 글과 사진, 동영상을 통해서 쉽고 간결하게 라디오 만드는 방법에 대해 소개. 특기할 사항은 이 사이트가 단순히 기술적으로 장비 다루는 방법만 소개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라디오를 만드는 이가 가져야 할 태도와 고민할 지점, 기초 단계를 넘어 직업적으로는 어떤 길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짚어주고 있다는 것
- 메뉴의 하위분류
 - ① Geeking Out(제대로 공부하기) : 오디오를 녹음하고 마이크를 사용하는 방법, 녹음된 소리를 편집하는 등 기술적인 방법
 - ② Making radio(라디오 만들기) : 라디오 프로그램 잘 짜는 방법(인터뷰 잘하는 법, 프로그램 구성하는 법, ‘목소리’와 다양성고민하기 등에 관한 조언 등)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 ㉔ Making a difference(더 나아가기) : 라디오 쪽의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이들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법적인 부분 방송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야기

[그림] '커넥트: 트랜스밋' 홈페이지 세부 메뉴

Introduction to making radio



To get started thinking about making radio, listen to this short evaluation by a group of students in Archbishop Temple School, Preston, of a Christmas radio show they had just put together (alternative link [here](#)).



What can I do next?

There are many avenues for people working in community radio. One pathway is working in commercial radio – many established broadcasters have learned the trade and earned their stripes by working in community radio, though many established people stay in community radio too!

Careers in radio

See this video about making a career in, or out of, community radio.



* 출처 : '커넥트: 트랜스밋' 홈페이지(<http://www.connecttransmit.org.uk>).

② 본격적인 공동체라디오 방송국 종사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부분을 알려주는 'Best Practice(실전)'

- 'Making'에서 어떻게 공동체 라디오를 시작하는지 기술적·내용적 고민을 담고 있었다면, 여기서는 이를 기반으로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자로서, 관리자로서,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현장에서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지점들을 다룸
- 메뉴의 하위분류
 - ㉑ Getting started(시작하기) : 공동체 라디오 만들기, 뭘부터 시작해야 할까?
 - ㉒ Seeking funding and contracts(자금 지원처를 찾고 계약하기) : 급변하는 지형에서 자금 지원을 모으는 방법
 - ㉓ Training and mentoring(교육과 멘토링) :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 ㉔ Working with young people(젊은이들과 함께 일하기) : 청년 세대의 이슈와 요구
 - ㉕ Using social media(소셜미디어 이용하기) :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청취자 및 기관들과 연계하는 새로운 방법들

③ 공동체라디오를 만들어갈 이들을 키워내는 교육과정을 만들고자 하는 단체나 방송국을 위한 ‘Course development(교육 과정 만들기)’

- 공동체라디오를 만들어나갈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며, 승인은 어떻게 받고, 관리/감독과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줌. 공동체 라디오는 지역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 만들어가는 것이니만큼 교육과정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도 이 사이트에서 큰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④ 라디오 리젠에서 발표한 논문을 모아놓은 ‘Evidence(연구자료)’

- 이 자료들은 공동체 라디오 부문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청년층 공동체 라디오 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 서론, 방법론, 요약, 훈련에 대하여, ㉡ 문화 교육과 기술 향상, ㉢ 훈련하기, 협업, 도전, ㉣ 평가, 승인, 사례연구와 이 부문에서 요구되는 것들, ㉤ 결론 및 권고사항으로 구분

⑤ ‘Additional Resources(추가 자료)’

- 관련 웹사이트나 소프트웨어, 교육기관과 일자리 정보 등을 제공하며, ‘Conference’ 메뉴에 들어가면 ‘커넥트: 트랜스밋 프로젝트’에서 개최하는 컨퍼런스 정보도 실려 있음

(5) 시사점

- ‘커넥트: 트랜스밋’은 공동체라디오 개국 및 운영부터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 그리고 관련 교육과정 제작에 이르기까지 공동체라디오 전반에 대한 노하우와 사례를 제공하고 있음. 웹사이트의 형식을 띠고 있는 만큼 공동체라디오 관련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접근 또한 용이하며, 쉽게 사이트 내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
- 이와 같은 장점을 마을미디어 사업에도 적극 반영, 관련 노하우와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지역센터 간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사업 및 교육 진행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꾀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영국과 한국의 사회적 맥락, 미디어 환경이 다름에도 ‘커넥트: 트랜스밋’의 다양한 자료는 한국 공동체라디오 개국 및 운영에도 상당 부분 적용 가능

5) 세계공동체라디오방송연합(AMARC, World Association of Community Radio Broadcasters)

(1) 개요

- 1983년에 설립, 2000년 현재 전세계 106개국에 3,0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 미디어운동 조직 중 가장 광범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국제 연대체
- 활동목표 : 연대와 국제적 협력의 원칙에 기초하여 공동체의 참여적 라디오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

(2) 설립취지, 역할, 활동

- 2005년 1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지역총회에서 ‘자카르타 선언’을 통해 언론의 자유, AMARC의 설립 취지, 공동체미디어의 역할, 이해당사자들의 의사소통 등에 대해 전파

[표] AMARC의 자카르타 선언 전문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고,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공동체 라디오 종사자들과 그들이 헌신하는 공동체들사이에서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필요성과, 인권에 대한 인식과 이를 증진시키는 것을 방해하려는 국가나 다른 기관들에 대해 도전할 필요성이 있다.

또, 국제인권기준의 발전과 실행을 방해하는 국가나 입법 사법 기관들에 의해 행해지는 부당함에 저항하기 위해, 공동체라디오종사자들이 연대해 행동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방법들을 제공할 필요성과, 국제인권을 증진하는 조직들과 함께 연합하고 그들과 함께 이들 권리에 관해 시민들을 교육시키며 국제인권기준을 발전시키고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실행법들에 저항하기 위해 그들과 연대하는 일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우리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공포분위기를 퍼뜨리며 분리주의적인 이해와 극단주의관점에 영합하는 법들을 비난한다.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는 많은 국가에서 계속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권에 대한 침해를 크게 염려하고 있다.

특별히 우리는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 정부가 방송주파수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소통권을 증진시키며 방송언론인에 대한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방송법을 공포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파키스탄 정부가 지역공동체, NGO 들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체라디오를 홍보하고 세우는 것을 허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수정하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버마의 군사정부가 언론매체의 다양성과 독립성을 증진시키고 열린 자유민주사회를 만드는데 있어서 언론매체의 역할에서 군부의 개입을 막아주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지상파에 대한 지역사회의 접근을 허용하고 통신매체법, 치안법과 공직자 비밀엄수법을 포함해, 억압적인 법을 수정함으로써 소통권을 증진하고 존중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필리핀정부가 언론인들의 피살을 중단하는 데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고 언론매체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원리를 지지하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네팔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재구축하고 네팔에 있는 공동체라디오와 모든 독립언론을 위한 민주적인 공간을 보장하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호주정부가 언론매체의 자유원리와 방송사업자와 언론인들이 그들의 취재원을 보호할 권리, 박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보도할 권리를 지켜주기를 촉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호주 정부가 치안과 국가안보와 관련된 모든 법들이 지나치게 언론매체의 자유를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태평양 제도의 각 정부가 '태평양 계획의 디지털 전략'에서 공동체방송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태평양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공공방송의 기업화에 대해 염려를 표하면서 우리는 태평양지역정부가 비영리방송사업자들이 적은 허가비용으로도 공동체방송을 세울 수 있는 법조항을 보장하기를 요청한다.

우리는 세계지도자들이 개발도상국가들에게 GNP의 0.7%를 재원으로 공급하겠다는 그들의 약속을, 특별히 공동체라디오를 포함한 지역사회언론매체에 재원을 배당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채택, 비준된 유엔인권선언 실천의 지속적인 수행을 포함하여 폭넓고 포괄적인 의미로서 인간의 통신권의 실현에 대한 우리의 임무를 재차 확인한다.

지구촌 발전과제를 위한 유엔의 청사진이라는 것을 주지하면서 우리는 모든 아시아태평양 정부들과 다자간 및 양자간의 기구들이 공동체라디오를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강력한 매체로 인식하기를 요청한다.

우리는 정부들과 다자간 및 양자간의 기구들에게 MDGs를 성취가능한 행동으로 바꾸고 MDGs를 보다 사람중심의 것으로 만드는데 있어서 사람들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공동체라디오의 역할을 인식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정부들과 다자간 및 양자간의 기구들이 공동체라디오가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세우고 재원을 배당하기를 요청한다.

AMARCO이 공동체라디오에서 여성들의 활발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들의 능력과 남녀 평등을 증진시킬 의무를 가졌다는 것을 주지하면서 우리는 베이징행동강령을 재검토하기 위한, 아시아태평양 상부회의의 결과물인 Bangkok Communiqué 가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항하는데 있어서 공동체언론매체역할을 인식했다는 것과 이러한 미디어는 반드시 정부에 의해 철저한 지지를 받아야한다는 것을 주지하면서, 우리는 정부들과 다자간 및 양자간의 기구들이 여성의 날과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행동의 날인 16일간 (11.25-12.10)에 방송캠페인을 여는 것을 포함해 공동체라디오에 여성들의 참가를 보장하는 재원을 지원하고 배당하기를 촉구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포함한 경제의 세계화와 자유화가 3세계에서 외국 언론매체의 진입을 조장하고 거대 다매체기업의 소규모 독립 매체 지배를 독려한다는 것을 주지하면서 이런 지구의 경제적인 질서가 지역언론매체, 특히 약소한 공동체 라디오에 대해서 적대적이라는 것을 주지하고 있다.

우리는 각 국가 정부에게 공동체 라디오를 위한 일정범위의 공간을 보장하고 그러한 언론매체들이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구한다. 일본 고베와 체추오 지진, 2004년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쓰나미, 2005년 파키스탄 지진과 같은 대참사에서 공동체라디오가 구조와 재활뿐 아니라 재난을 대비하고 처리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그 리고 여성과 소외된 그룹들이 평화와 안보 이슈에 대한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분쟁을 막고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를 건설하는데 활발한 활동을 하게 하는데 공동체라디오의 역할을 주지하면서 우리는 각각의 정부가 아시아태평양 모든 지역에서 공동체라디오가 번성해 사회개발과 인류발전에 활발하게 공헌할 수 있도록 입법환경과 규제장치를 정착시키기를 요청한다.

* 출처 : AMARC 홈페이지(<http://www.amarc.org>).

- 국제 컨퍼런스 개최: 세계 공동체라디오 아시아-태평양 컨퍼런스
 - 개요 :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총 3회에 걸쳐 컨퍼런스를 개최
 - 목표
 - ① 세계 공동체라디오의 발전과 변화
 - ② 세계 공동체라디오 간 협력과 연대를 위한 소통의 장
 - ③ 공동체라디오의 사회적 미션을 확인하고 실천

- ④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여론과 담론 형성의 장
- 기대효과
 - ① 세계 공동체라디오 간의 교류 활성화
 - ②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관심(인식, 인지도) 제고, 활성화 기대
 - ③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를 위한 정부, 민간의 활동 확대
- 개최현황

구분	일자	장소	참가국 및 인원	내용
1회	2005. 11. 24 ~ 27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19개국 150여명 참가	- 아시아 각 지역의 상황 검토 -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의 문제 - 공동체라디오 법제화와 변호 - 여성과 성 - 의장단 선출
2회	2010. 2. 20 ~ 23	인도 방갈로르	19개국 250여명 참가	- 공동체라디오 법제화와 사회적 소수자들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증진 - 환경 재난과 식량 안보 등에 있어서의 공동체라디오의 역할 - 여성과 성평등 - 의장단 선출
3회	2013. 12. 2 ~ 5	대한민국 서울	31개국 450여명 참가	- 라디오방송과 권리 -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인식 - 라디오와 사회정의 - 지역 총회

(3) 시사점

- AMARC은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각 국가의 상황, 환경,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체라디오의 기본 이념과 권리를 환기시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공동체라디오뿐 아니라 마을미디어 사업의 경우도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국제 협력관계 구축은 마을미디어 발전을 위해 장기적으로 필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음. 관련 교육 및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들 간 네트워크 구축은 국제적 차원에서 전문지식과 인적자원 그리고 기술 및 시설 등의 자원 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뿐 아니라, 국내 관련 조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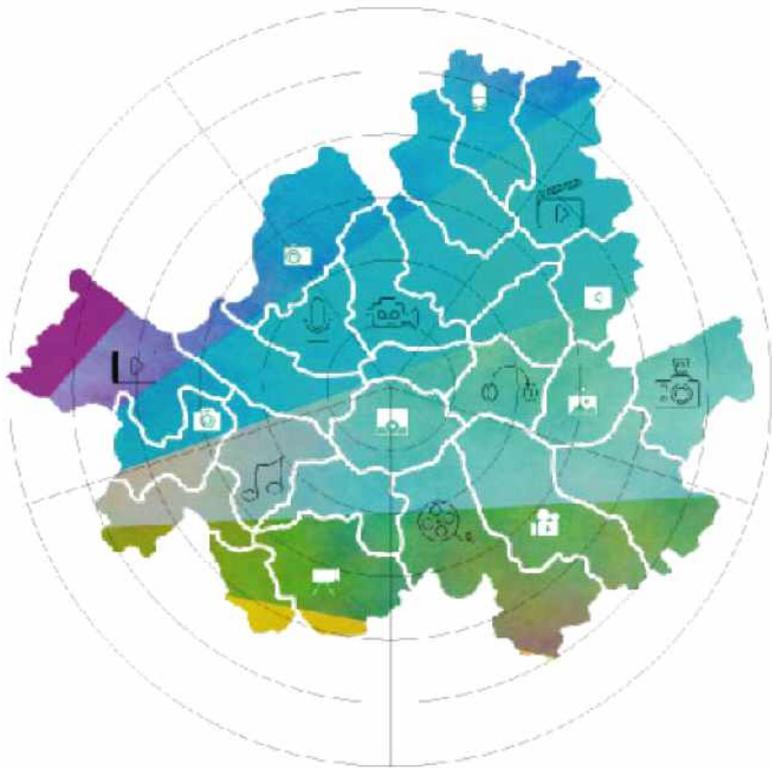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 나아가 국제적 차원에서는 네트워크를 통해 외국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교육 및 사업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서울의 마을미디어 사업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릴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3부

마을미디어 활성화 방향과 추진과제



3-1. 마을미디어 활성화의 추진 필요성과 배경

1) 마을미디어 활성화 추진 필요성

(1) 시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조건 변화와 활용 능력 향상

- 한국사회는 80년대 중·후반 이래 디지털 세대가 주축이 되어 새로운 뉴미디어 매체를 매개로 다양한 사회 참여와 자기 표현의 방식들을 고안. 그동안 독립미디어, 인터넷 (모바일 웹) 공간과 소셜웹의 등장과 성장은 들에게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 기능. 이들 각각의 소통로와 문화들은 누리꾼들의 서로 다른 개성을 표현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미디어 장 역할 수행
- 무엇보다 스마트기기와 소셜웹 등 2010년 이후 디지털 기술 발달의 도약과 이를 활용하는 문화 주체들의 중심축 이동. 미디어 활용 방식의 변화와 뉴미디어로 매개하는 놀이/여가 문화 소비와 활동이 증대하는 상황에는 10-50대 디지털미디어 세대가 미디어 문화생산-소비가 보편화되면서 미디어 문화 향유와 정서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기본 디지털 리터러시의 조건 크게 향상
- 마을미디어의 범위 확장하는 효과. 오늘날 세대들의 다양한 뉴미디어 활용 층위는 마을미디어의 플랫폼 개발과 관련해 전통적 공동체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중심의 사고를 넘어서 마을신문, 마을잡지, 미디어제작교육(미디어문화 교실), 마을 모바일앱, 동아리 활동 등 이전보다 좀 더 폭넓게 자율 미디어의 범위와 규정을 확대하는 효과

(2) 시민의 미디어 권리와 공동체적 가치 신장

-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국영/공영방송)와 시장(상업방송)이 대중의 다양한 공적 가치를 다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제도와 정책, 시장 조건과 제약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고, 그와 연관된 편성과 콘텐츠 생산의 조직과 다루는 내용에서 야기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일찍부터 전문가 중심의 미디어 생태계 혁신의 목소리가 존재했고, 예컨대, 시민미디어 운동 등이 자생적으로 생겨나면서 일상적 의사소통을 확대하고 배제된 시민들 목소리 복원하며 지역 공동체 스스로 말하기를 독려하는 움직임 활성화. 이를 위해 독립 미디어 인프라 확대와 자율 미디어 활성화에 대한 요구 증대
- 주변부화한 매체로 취급됐던 기존 '공동체' 미디어 대한 인식 제고. 시정부와 지자체와의 공동체미디어 '협치'(거버넌스) 모델 고안해 마을 시민 주체들의 미디어를 읽고 쓰고 공유하는 미디어 공적 권리 신장

(3) 마을공동체내 마을미디어의 소통적 매개 역할론 중요

-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속 마을미디어의 소통적 매개 역할론 중요하게 부각. 마을 공동체의 소통 활성화, 공동체 문화 형성, 그리고 마을과 주민의 성장과 변화 발전을 매개하는 미디어의 시민중심적, 지역적 역할론 제고 (이주훈, 2013. 3.)
- 특히 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정책 프레임이 지역/문화적(지역매체, 수용자복지) 관점에서 점차 정치/사회적(참여, 사회통합, 지역성, 민주적 운영) 관점으로 확장되면서 (박채은·최성은·허경, 2012), 미디어의 능동적 역할론 부상. 예컨대, 마을미디어는 커뮤니티 목소리 반영하고 문화다양성 등을 표출하는 통로로서 기여. 그 외 지역성에 기반해 공동체 문제와 이슈를 쟁점화, 서로 다른 다문화간 사회통합적 역할, 국가재난 상황 속 재난방송의 역할 (최성은 2011 참고) 수행 필요

(4) 시민 중심의 지역 미디어 생태계 복원

- 한국사회내 지역을 매개하는 풀뿌리 소통의 미디어 환경이 대단히 취약, 마을미디어 사업을 통해 지역 미디어를 살리고 공동체 이슈를 중심으로 가져오는 실제 촉매 역할 가능
- 미디어·인터넷 등 표현의 자유와 문화예술 창작 활동의 위축과 함께, 최근의 미디어 환경 변화는 무엇보다 주요 지상파 방송의 합리적 의사소통의 공론장적 역할이 붕괴되면서, 다양한 온·오프라인 기반 ‘제3의 미디어’ 개국과 그 영향력이 확대. 이로 인해 시민미디어에 대한 중요성 공감. 즉 언어적 의사소통이 이뤄지기 어려운 현대에서 그 기초를 세울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서 공동체 감각의 회복을 위해 ‘제 3미디어’ 등 시민미디어 역할론 부각
- 미디어 생태계 파괴 속 마을미디어의 대안적 위상/생태계 조성하는 역할 증대. 무엇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커뮤니티 기반형 공동체 언론의 확장. 즉 마을 공동체미디어 등은 파괴된 미디어 생태계를 일부 복원하는 역할

2) 마을미디어 활성화 추진 배경

(1) 마을미디어 중장기 발전의 위상과 철학 마련

- 마을미디어의 개념과 정의, 사업 범위 등에 대한 정확한 위상과 철학 정리
- 마을미디어의 ‘협치’(거버번스) 모델이 갖는 약점(예를 들면 지역주민의 자발성 보다는 수행성 성과주의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감)과 마을미디어의 지역기반 시민주도의 반엘리트주의가 낳을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 중장기적으로 마을미디어의 자율적 역할론과 제도적 지원의 범위와 한계 검토 요청됨

(2) 마을미디어 영역 범위의 확대와 연관 사업과의 연계 마련

- 마을공동체 사업간 혹은 다른 사업과의 교류 및 공동사업 활성화
 - 협의의 미디어 개념과 영역화를 확대할 필요: 이미 마을미디어 사업의 많은 부분들이 미디어 제작, 교육, 동아리 모임, 유통 등을 두루 배우고 관여하고 표현할 수 있으나 여전히 해외 공동체 미디어운동에서 정의하는 ‘미디어’의 범위에 비해 대단히 영역 축소되어 있음, 전통미디어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영역을 미디어로 포괄하고 있는 것처럼,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신장하는 보다 확대된 미디어 개념과 영역간 교류가 필요
 - 예를 들면,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중 ‘문화공동체’(마을예술창작소와 마을북카페) 사업을 중심으로 해 다른 연관 사업들(청소년 휴카페, 다문화마을, 마을아카이브, 안전마을, 마을기업)과의 활동 연계 가능성을 타진 요구

- 스마트 미디어 확장의 활성화 논의
 - 제작 영역을 확대해 온라인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환경 조성 (온라인을 유통의 경로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개입) 마찬가지로 향후 방송지형의 변화, 새로운 스마트미디어 지형이 추가되면서 스마트 환경하 공동체 미디어의 영역화 필요. 예를 들어 젊은 세대들의 스마트기기에 의존한 뉴스 소비 증가. 거의 스마트기기를 통해 콘텐츠 소비 증가하고, 특히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와의 연동성 대단히 큼. 부상하는 주변 미디어라 얘기할 수 있는 영역들이 새롭게 지배적 수용의 매체로 성장할 조짐에 대비
 - 특히, 마을과 지역 소식의 유비쿼터스 환경내 원활한 매개와 유통을 위해, 공유서울,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행정정보 공개 자동시스템, 엘리베이터안 소통게시판 설치 사업과 기존 단말기 활용, 가로변 시내버스 정류소 사업, 마을버스안 내 단말기 사업 등과 연계 필요

(3) 마을공동체 미디어 지원 인력·시설과 사업 예산 확대

- 마을미디어 전담 관련 직원의 신설 배치
- 지역 공동체미디어 상근인력 확보 및 교육, 재생산 (동단위 미디어 큐레이터 필요)
- 사업 규모의 영세성 및 민간거버넌스의 취약성 극복 (지원 시스템 역할을 할 수 있게 서울시 마을미디어지원센터 역할 중심에 서야 함)
- 공동체 미디어 콘텐츠 배급의 독자적 플랫폼(서울시 시민방송국) 마련

3-2. 마을미디어 활성화 3대 기본 방향

기본방향 1

시민의 능동적 참여 확대

1) 일상에서의 의사소통 확대

- 의사소통이 가능한 물리적·정서적 공간을 사회적·정치적·경제적 기득권층이 장악하게 되면서 정보와 의사소통 체계 자체에 불평등이 발생
- 따라서 정보가 일방적으로 전달되거나 미디어에 제한적으로 접근하는 구조가 아닌,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새로운 형식의 의사소통 구조 확대가 필요

2) 배제되었던 시민들의 목소리 복원

- 주류미디어에 의해 배제되어왔던 소수자·소외자의 목소리를 살려내고 미디어를 통한 소통의 체계를 다시금 복원시키는 일은 잊혀졌던 시민들의 권리를 되찾는 일과 일맥상통함
- 때문에 수직적·일방적·비대칭적 의사소통에 기반을 둔 전문가 문화의 전파가 아니라 차이의 활성화, 참여의 개방성, 말하고 보고 듣는 행위의 무제한성으로 압축할 수 있는 새로운 소통세계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
- 또한 마을미디어는 사회적 이슈 혹은 소수자의 목소리를 재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가 제작되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소외된 주체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그들의 각성과 주체들에 의한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음

3) 시민이 주체가 되는 미디어 활동

- 마을미디어 활동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됨. 여기서 참여란 시민/주민의 모든 수준에서의 ‘주체적 참여’를 의미. 제작은 물론이고 운영, 관리, 소유, 교육 등 전방위에 주체적으로 개입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는 형태가 되어야 함
- 시민들은 마을미디어를 통해 미디어 소유의 주체, 메시지 생산의 주체로 거듭나며, 공동체의 공유된 이해들을 재현하고 재생산함으로써 사회적·정치적 중요성을 획득하게 됨
- 다른 한편으로 마을미디어 활동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공-존재로서의 ‘나’의 존재감을 인식함으로써 새로운 행위 주체가 되도록 함.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의 존재감이 인식되는 과정에서 자존감이 발생하며, 이러한 자존감의 획득은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드러남으로써 가능하기 때문
- 마을미디어 활동은 참여자들 간의 ‘만남’이라는 연속적 행위로 이루어지며, 만남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관계 형성을 전제로 함. 따라서 주체적 참여를 통해 참여자들은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미디어 활동을 경험해나감으로써 공-존재로서의 자신을 발견하게 됨

4) 마을주민 중심의 공동체미디어 문화 형성

- 마을미디어가 마을의 다양한 주민, 공동체와 만나고 협력하면서 마을만의 특성을 고려한 공동체미디어 문화를 구축하는 일이 가능해짐
- 미디어를 매개로 마을주민 스스로 자신과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고 이를 마을이 함께 소비함으로써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자생적인 미디어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음

5) 미디어를 통한 마을공동체 소통 확장

- 행정 주도가 아닌, 마을주민 중심의 자발적인 마을미디어 운영은 마을을 구성하는 개인과 공동체 사이에 탄탄한 관계망을 구축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마을 내 미디어를 통한 소통 활성화를 가능하게 함

- 마을미디어 콘텐츠 제작과정 및 배포과정에서 다양한 마을주민들이 서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마을의 다양한 단체 및 주민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마을 내 문화 활동을 활성화

기본 방향 2

지역공동체문화 활성화

1) 마을미디어 활동을 통한 비판적 사회 인식 및 주류 미디어 감독 기능 확대

- 지역 시민을 기존 미디어의 내용이나 체계, 제도, 이념을 비판적 안목에서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생산적 주체로 바라보고, 현실 대중매체의 홍수 속에서 중요한 소통 매개체로 마을미디어의 역할론 정초
- 서울시 권역별로 자치구별로 마을공동체를 일구는 지역 시민들의 이야기를 주체적으로 담아 제작하도록 독려하고 이를 통해 삶을 영위하는 이들간의 대안적 이야기를 마을미디어를 통해 담아내며, 더 나아가 주류미디어의 콘텐츠 생산에 있어서 공공적 기능을 회복토록 마을미디어의 비판 및 감시 역할 확보
- 보다 다양하고 자율적인 마을로부터의 이야기를 담아내, 보다 다양한 세대, 계층, 사회적 소수자들의 이슈까지 살피는 마을미디어의 콘텐츠 제작활동 지원

2) 마을미디어 제작 콘텐츠 유통과 배급의 시·공간 편재성 증가 노력

- 마을 인프라에 힘을 얻어 다양한 마을 소식을 취재, 제작, 배포하는 마을미디어의 활동들이 좀 더 공간적으로 어디에든 편재하는 형태로 다양한 미디어와 플랫폼을 통해 확대되고 촘촘하도록 구상
- 새로운 방송통신 융합 환경의 변화에 맞는 마을미디어 콘텐츠 소통 방식의 개발과 보다 많은 마을 주민들이 전통적 미디어와 뉴미디어 경로 모두를 통해 마을미디어 콘텐츠에 접할 수 있는 기회 확보
- 마을미디어 콘텐츠를 상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중적 플랫폼의 마련과 이에 대한 시민들의 대중적 이용 확대

3) 마을미디어를 매개로 한 시민 네트워크 구축

- “공동체 90%, 마을미디어 10%”의 슬로건 중요: 지역 커뮤니티에서 주민들 스스로의 이슈를 가지고 그들 자신의 일상적 표현과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마을미디어에서 찾기 위해서, 마을공동체가 고민하는 중요한 공적 사업들(안전, 육아, 교육, 주거)과 다양한 방식으로의 연계 구성
- 마을미디어 활동을 통해 생산된 관련 마을 콘텐츠를 다른 마을의 활동과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는 상시적이고 광범위한 정보 네트워크 구축
- 서울시 마을미디어 활동의 경험과 성과를 마을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벌이는, 일부 축제 형식을 빌려 상호 활동의 공감대를 마련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마을미디어 활동을 대중화하는 기회 마련

기본 방향 3 기반조성 강화

1) 마을미디어의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 마을미디어에 시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별로 마을미디어 센터 인프라 기반이 조성되어야 함
- 마을미디어센터가 있는 기초 지자체의 경우 인프라를 토대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높은 만큼, 많은 서울 시민들이 생활근접 형 미디어 활동을 체험하기 위해서 인프라 확대는 필수적
- 마을미디어는 단지 시민들의 미디어 참여의 장으로 기능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을민주주의와 마을공동체주의의 이념과 목표를 실현하는 장소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함

2) 마을미디어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전략적 계획

- 기초 지자체 별 마을미디어 센터들의 설립은 21세기 형 마을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기본 토대가 될 것으로 판단
- 현대 도시 문화는 혈통에 기반 한 공동체 문화, 거주 형 공동체문화가 해체되었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한 새로운 유형의 공동체문화의 형성이 필요
- 마을의 안전과 육아 교육 여가 활동에 필요한 정보들을 서로 교환하고 더 나은 마을 만들기를 위해 미디어에 기반 한 공동체문화 형성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음

3) 마을미디어의 자립과 재생산을 위한 공공 투자와 지원

- 마을자치와 마을민주주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서울시의 거버넌스 체계 마련의 차원에서 마을미디어에 대한 공공지원과 투자가 필요
- 지역의 마을미디어의 자립과 재생산을 서울시가 센터 설립과 같은 인프라를 통해 지원해 줌으로써, 마을미디어와 관련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 하는 계기 마련

3-3. 마을미디어 활성화 6대 추진과제

추진과제 1

시민 미디어 교육 확대

1)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 증대

-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에 대해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고,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교육의 결과물로서 학습자들이 획득하는 지식과 기술을 의미
-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 텍스트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읽기’(reading)와 미디어 텍스트를 제작하는 ‘쓰기’(writing)를 필수적으로 포함. 따라서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 그리고 미디어의 적극적인 활용과 능동적인 제작 모두를 목표로 함
- 미디어 교육은 변화하는 사회와 미디어 환경 하에서 시민들이 미디어의 소비자로서 미디어를 해석하고 정보에 근거한 균형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그들 스스로 제작자가 될 수 있게 함. 궁극적으로 미디어 교육은 시민의 비판적인 그리고 창조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과 관련됨

2) 새로운 문화시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 미디어와 미디어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수동적 소비자가 아닌 능동적 참여자, 생산적인 해석자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미디어 교육 실시가 요구됨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 텔레비전·케이블·위성방송 뿐 아니라 인터넷, 게임, 그리고 최근 소셜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미디어의 영역이 확장되는 속에서 미디어를 소비하는 주체들의 '생비자'(prosumer)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어 기존 미디어 교육의 영역 확대가 필요한 상황
- 따라서 시민 중심의 뉴미디어 기술과 콘텐츠에 대한 창의적 미디어 교육을 통해 미디어를 주체적으로 소비하고 나아가 미디어 리터러시의 의미를 인지하는 문화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해야 함

3) 공동체를 위한 마을미디어 교육의 필요

- 그동안 주변부 미디어로 취급돼왔던 공동체적 미디어에 대한 인식 제고의 필요성이 대두됨. 시정부와 지자체와의 공동체미디어 협치 모델을 바탕으로 한 미디어 교육을 통해 시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및 공적 권리 신장이 이뤄질 필요가 있음
- 탈산업 사회에서 공동체가 소멸되고 있는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문화를 회복하되, 현재 도시 문화 환경에 걸맞게 미디어를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소통과 마을 민주주의가 이뤄질 수 있음을 전파

4) 마을미디어 교육을 통한 미디어 활동 범위 확장

- 기존미디어와 뉴미디어를 아우르는 교육을 통해 전통적 공동체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중심의 사고를 넘어 마을신문, 마을잡지, 미디어제작교육(미디어문화교실), 마을 모바일앱, 동아리 활동 등 자율 미디어 활동의 범위를 확장하는 효과를 꾀함
- 마을미디어 교육 또한 단순 교육이 아닌, 제작 및 사후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일 필요가 있음. 다시 말해, 공방에서의 미디어 활용 수준을 넘어 일상에서의 미디어 활용 및 제작 수준까지 고려하는 미디어교육이 이뤄져야 함

5) 맞춤형 마을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 증대

- 맞춤형 마을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교육의 체계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참여 및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지역별 천차만별로 이루어지던 교육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평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향후 지속적이면서도 일관된 교육 진행에도 기여
- 마을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로 하여금 마을미디어 기획자, 운영자, 강사, 오퍼레이터 등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마을 내 인적 순환 구조도 마련할 수 있음
-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마을미디어 신규 활동가를 양성하고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속적인 마을미디어 교육이 이뤄지는 토대를 구축

6) 마을미디어 현장 지원, 유지하는 동단위 미디어 큐레이터의 확보와 배치

- 마을미디어의 다양한 활동을 이끌어갈 전문가적 활동 주체 발굴과 성장 추동을 위해, 423명 단위 지역(동단위)별 마을미디어 활성화 기획 및 코디네이팅 역할자 최소 1인 양성
- 마을미디어 활동의 전문화 특성 및 활동의 지속가능성 동력으로서 미디어 큐레이터의 역할 확보

추진과제 2

매체별 시민참여 활동 지원

1) 시민의 주체적 참여를 통한 마을미디어 활동 전개

- 마을미디어는 시민들이 거주 지역 단위에서 미디어를 통해 유익한 정보를 직접 생산, 공유, 소통하는 것을 의미. 따라서 여기에는 시민의 주체적 참여가 전제됨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 시민들은 마을미디어를 통해 미디어 소유의 주체, 메시지 생산의 주체로 거듭나며, 공동체의 공유된 이해들을 재현하고 재생산함으로써 마을미디어 활동의 사회적·정치적 의미를 확대시킬 수 있음
- 따라서 기존의 “매스미디어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는가?”라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수용자가 미디어와 더불어 무엇을 하는가?”라는 수용자 중심의 생산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었음

2) 주민 간 소통 활성화와 지역적 주제의 공론화

- 마을 주민에게 자발적 참여가 전제되는 미디어 놀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마을 이야기와 공동 이슈를 지속적으로 공유·확산할 수 있도록 하며, 마을 간 소통이 가능한 공론장을 마련
- 마을미디어 활동은 활동가, 주민이 함께 만나 정보를 나누고 친분을 쌓는 데 있어 중요한 토대가 됨. 이후 참여단체 및 개인 간 네트워크는 더 크고 체계적인 조직, 마을미디어 축제 등으로 확장할 가능성을 내포

3) 마을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게 소통의 권리와 접근 증대

- 마을미디어의 상상력을 더욱 추동할 수 있고 마을의 이야기로부터 소외될 수 있는 다양한 계층 (이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노숙인, 주부, 청소년 등)의 적극 참여를 유도
- 마을 주민들의 뉴미디어 활용의 보편적 능력 신장에 맞춘 소통의 권리와 마을미디어 접근권 증대

4) 마을미디어 공방 활동 확대 및 지원 강화

- 자치구에 일정 비율의 마을미디어를 확보해 다양한 마을 이야기를 발굴하고 마을 공동 이슈의 지속적 공유 및 확산
- 세대별, 계층별 마을미디어 콘텐츠 제작, 활용과 플랫폼 접근의 방식을 달리해 마을주민들의 참여와 모임 독려

- 서울마을미디어센터를 통한 상시 컨설팅 지원 시스템 마련과 마을미디어 사업의 새로운 주체 발굴을 위해 행정 절차 간소화

5) 마을공동체라디오에 더 많은 주파수와 채널 마련

- 매체형 마을미디어로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이 지닌 공적 역할론에 비해 서울시 공동체라디오 방송국 숫자가 너무 적고 방송규제를 받고 있어 주파수 개선과 대역 확보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대안적 방송 매체 활성화 지원 필요.
- 마을공동체라디오는 마을공동체 구성하는 지역사회 단체들과의 결합도가 높고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법제화되어 커뮤니티 가치 부응함으로써 신규 허가 늘려야 함
- 매체형 마을공동체라디오 개국에 제도 제약이 걸림돌로 작동한다면 팟캐스트 등 온라인 라디오방송국 개국을 늘리는 방식도 함께 도모.

6) 마을미디어 사회적 기업 지원의 필요성 증대

- 지역 청년에게 항구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취업률을 높이고, 점차 증대되어 가는 마을공동체 서비스 수요에 부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 증대
-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적 관계망에 기초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마을공동체의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는 마을 단위 기업에 대한 지자체 지원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
- 마을 주민 주도로 지역의 특성화된 유·무형 자원(인적자원, 자연자원, 문화 등) 활용을 통해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역주민에게는 복지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마을미디어의 기능은 사회적 기업의 그것과도 일맥상통

추진과제 3 마을미디어 콘텐츠 활용 지원

1) 마을미디어 콘텐츠 노출도 증대

- 기존 대중매체, 온라인 웹 채널 등 가능한 매체 채널화를 통해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 이야기의 콘텐츠 노출도 증가
- 스마트 환경하 마을공동체 미디어 콘텐츠 접근 방식의 다채널화 및 편재화
- 스마트폰 앱 등에 기반한 마을미디어 콘텐츠 방송의 상시 채널이자 마을 미디어 콘텐츠들의 통합 플랫폼으로서 서울 '시민방송국' 운영 구상

2) 마을미디어 대안 콘텐츠 개발과 주류미디어 감시 활동

- 마을미디어 사업이 단순히 다양한 계층에게 마을공동체에 대해 고민하고 미디어를 향유하는 기회의 확대를 부여하는 것을 넘어서서 시민들 자신이 구성하는 미디어 생산과 유통과 배급을 통해 혹은 그것을 매개로 주류 미디어 자본과 사회에 개입하는 실재적 수준 확보
- 기존의 대중매체가 포괄할 수 없는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미디어 콘텐츠를 개발하고 마을미디어를 매개로 시민들이 스스로 발언하려 하는 사회·경제·문화 영역의 토픽들을 공론화하는 활동 구상
- 주류미디어의 공공성 유지 실패에 대한 대안적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구체적 커뮤니티미디어 실험의 장을 구성

3) 마을미디어 제작 콘텐츠의 유통·배급 채널 확대

- 기존 서울시민들의 미디어 채널로 활용되고 있는 전통적 대중매체 채널들을 통해 마을미디어 콘텐츠의 신탁이나 편성을 유도해 보다 많은 마을미디어 콘텐츠의 유통·배급 확대
- 온라인 웹과 휴대전화 플랫폼 앱을 통한 콘텐츠 유통 및 배급 확대해 언제 어디서든 쉽게 마을미디어의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통합 플랫폼 스마트 기반형 애플리케이션(가칭 ‘서울시민방송국’) 개발, 보급해 시민들의 새로운 미디어 소비 패턴에 맞춰 맞춤형 마을미디어 자체 제작 콘텐츠 서비스 제공

추진과제 4

마을미디어 네트워크 구축

1) 마을 재난 및 안전 방송의 구심점으로서 마을공동체 미디어 역할 모색

- 마을공동체 내 중요한 재난 및 안전 관련 마을정보의 매개와 소통의 역할자로서 마을미디어의 중심적 기능 모색
- 서울시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양한 미디어보드와 키오스크 활용해 마을 재난 및 안전 관련 뉴스들을 권역별 혹은 종합 뉴스 형태로 제작 서비스하는 시스템 마련
- 서울시의 안전 및 재난 상황에 대해 마을미디어센터와 권역별 거점 마을미디어 지원센터 제작 콘텐츠를 실시간 방송할 수 있는 체제 마련

2) 마을미디어 콘텐츠 소통과 마을공동체 부속 사업과의 네트워킹 강화

- 서울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중 마을미디어와 협력 네트워킹 가능 영역의 연계를 통해 마을미디어 콘텐츠 개발 및 제공
- 마을 기반 소통 시스템(교통, 주거, 학교 등)과 연계해 마을미디어가 제작한 콘텐츠 전달 통로 및 서비스 마련

- 마을공동체 내 마을미디어 콘텐츠 확산을 위한 전용 게시판(키오스크와 미디어보드 등) 확보 및 이를 통한 마을 뉴스 보급

3) 마을미디어 연합 활동 및 네트워킹 지원 강화

- 마을미디어 콘텐츠와 활동 공유 기회를 위해 마을미디어간 다양한 형식의 연합 네트워킹 모임 개최
- 마을과 마을, 마을미디어 활동 주체들, 마을미디어 활동가와 일반시민 사이 폭넓은 상호 교류를 통해 다양한 마을미디어 현장 활동의 사례 공유 및 참여 독려
- 마을미디어 사업의 성과 홍보 및 향후 아카이브로 남겨 활동의 체계적 이해를 위해 의미화하는 작업 병행

추진 과제 5

마을미디어 인프라조성

1) 기초 지자체 별 마을미디어 센터 설립을 통한 기반 강화

- 현재 서울시가 운영지원하고 있는 마을미디어 센터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영상미디어 센터는 총 6개이며, 공동체라디오 방송국은 2개로 운영되고 있음
- 서울시가 마을미디어센터의 이름으로 2013년에 지원한 단체는 '미디어액트'가 운영하고 있는 '마을미디어 센터'로서 점진적으로 센터의 확대 설립이 필요

-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와 마을을 단위로 하는 시민 미디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초 지자체 단위별로 마을미디어 센터 설립이 필요

2) 마을미디어 센터들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통한 네트워크 확산

- 마을미디어 센터들의 구심 역할을 하고, 교육과 운영에 필요한 종합지원 센터의 필요
- 마을미디어 센터가 기초 지자체 별로 특성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마을미디어의 발전 방향들을 지역 센터에 주지시켜 지역 센터의 특수성과 서울시 마을 미디어 정책의 보편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할 필요
- 마을미디어 종합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마을미디어 센터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네트워크 활동을 활성화

3) 마을미디어 센터 건립 시 기초 지자체 별 특성화 방안 마련

- 현재 마을미디어센터와 유사한 형태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특성을 잘 살리는 센터 설립이 필요
- 공동체 라디오, 영상제작, 신문제작, 시민모니터링과 같이 현재 특성화된 마을의 미디어 네트워크의 환경들을 고려하여 기초 지자체 별로 특성화된 미디어센터 설립을 추진

4) 마을미디어의 내실 있는 활동을 위한 제작 및 프로그램 기술 지원

- 마을미디어의 교육과 활동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해 제작과 배급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반조성이 필요
- 모든 마을미디어 센터마다 고가의 기술 장비들을 보유하기 어렵고, 기술 장비들을 교육할만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술지원을 전문적

으로 담당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것은 필수적임

- 유비쿼터스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마을미디어의 활동 역시 새로운 형태의 소셜 네트워크 기반으로 확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을 위한 교육이나,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을 시민들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기술지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

추진 과제 6

마을미디어 제도 기반 마련

1)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으로 지역문화의 자치와 자립의 안정적인 토대 구축이 필요

- 2013년 12월에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으로 인해 지역의 문화자립과 자치를 위한 구체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지방자치 단체의 예술지원체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문화유산 보존 및 관광자원 활성화와 같은 사업들과 함께 지역에 기반 한 문화시민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마을미디어가 발전하는 제도 기반 마련은 중요함
-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현재 인프라로 조성되고 있는 지역문화원은 향토문화유산이 중심이고, 지역 문화예술회관은 문화향수기회 확대가 중심이라면, 영상미디어센터나 마을미디어센터의 제도적 확산은 지역 시민들의 미디어 수용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특성이 차별화될 수 있음

2) 마을미디어 지원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 마을미디어 센터들의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필요
- 현재 중앙 정부의 영상미디어센터는 영상진흥법에 의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마을미디어센터 설립 및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서울시 조례 제정을 추진해야 함

3) 마을미디어 사업의 체계적인 계획과 집행 수립을 위한 서울시의 전담 지원부서 신설

- 현재 마을미디어 사업은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디자인본부 산하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 마을미디어 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전담인력은 담당팀장과 주무관 각 1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
- 마을미디어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마을미디어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과나 팀 단위의 부서 신설이 필요

4) 마을미디어 정책과 사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기획하는 연구 및 담론 확산이 필요

- 마을미디어의 사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 사업의 필요성과 비전을 이론과 정책 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
- 마을미디어 사업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위한 연구지원도 마을미디어 사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필수적임. 마을미디어 사업의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과 서울 형 마을미디어 사업의 특성들을 공동체미디어 활동을 하는 국제 사회에 알릴 수 있는 연구체계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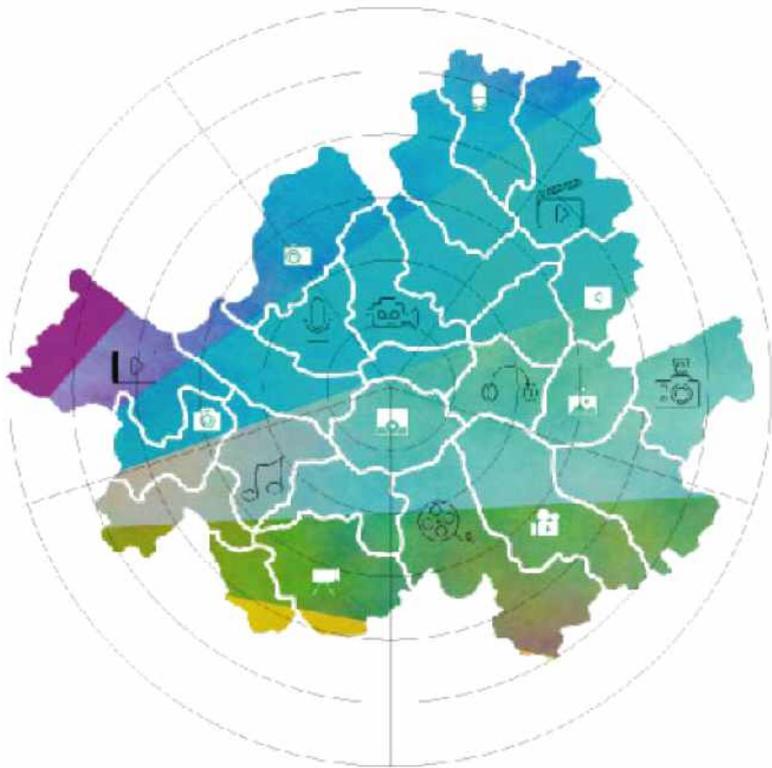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 마을미디어 사업의 의미와 목표, 실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홍보하고 여론화하는 과정도 필요함. 마을미디어의 담론 확산을 위한 별도의 홍보체계 및 연구 활동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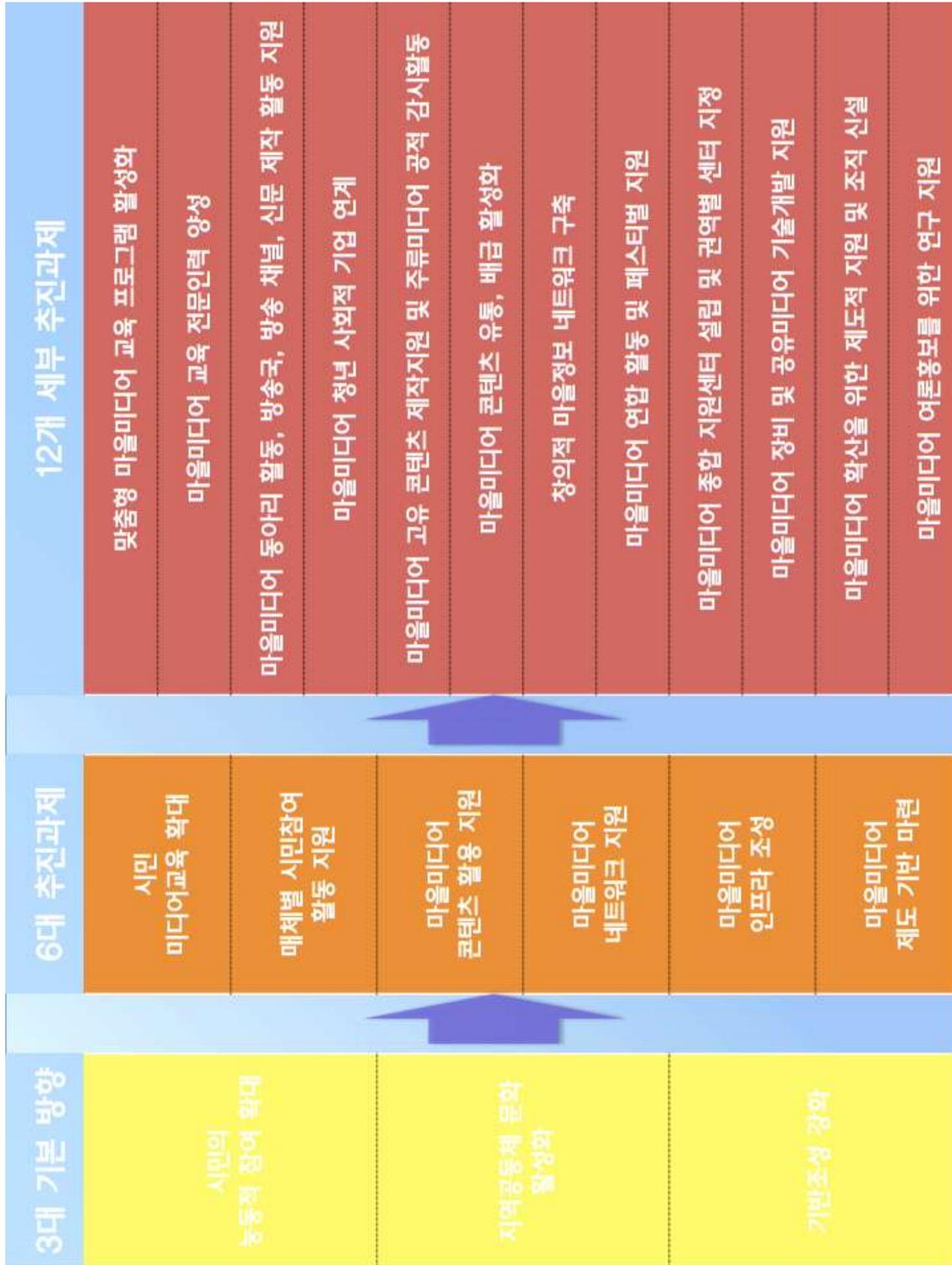


4부

마을미디어 활성화 세부 추진과제



3대 기본 방향	6대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p>시민의 능동적 참여 확대</p>	<p>시민 미디어 교육 확대</p>	<p>맞춤형 마을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p>
		<p>마을미디어 교육 전문인력 양성</p>
	<p>매체별 시민참여 활동 지원</p>	<p>마을미디어 동아리 활동, 방송국, 방송 채널, 신문 제작 활동 지원</p>
		<p>마을미디어 청년 사회적 기업 연계</p>
<p>지역공동체 문화 활성화</p>	<p>마을미디어 콘텐츠 활용 지원</p>	<p>마을미디어 고유 콘텐츠 제작지원 및 주류미디어 공적 감시활동</p>
		<p>마을미디어 콘텐츠 유통, 배급 활성화</p>
	<p>마을미디어 네트워크 구축</p>	<p>창의적 마을정보 네트워크 구축</p>
		<p>마을미디어 연합 활동 및 페스티벌 지원</p>
<p>기반 조성 강화</p>	<p>마을미디어 인프라 조성</p>	<p>마을미디어 종합 지원센터 설립 및 권역별 센터 지정</p>
		<p>마을미디어 장비 및 공유미디어 기술개발 지원</p>
	<p>마을미디어 제도 기반 마련</p>	<p>마을미디어 확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조직 신설</p>
		<p>마을미디어 여론홍보를 위한 연구 지원</p>



세부
추진과제 1

맞춤형 마을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1) 취지와 배경

- 맞춤형 마을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교육의 체계를 확립하고, 참여자들의 접근성 및 교육효과를 제고함
- 디지털화, 스마트기기와 SNS의 유행 등에 따른 미디어 활용 방식 변화, 그리고 뉴미디어를 통해 매개되는 여가문화 증가로 인해 뉴미디어 활용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증가함
-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은 시민들로 하여금 서로 다른 개성을 표현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따라서 시민 중심의 뉴미디어 기술과 콘텐츠에 대한 창의적 미디어 교육을 통해 미디어를 주체적으로 소비하고 나아가 미디어 리터러시의 의미를 인지하는 문화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해야 함

2) 현황 분석

- 2012년부터 진행되어 온 마을미디어 문화교실 사업은 마을미디어 사업의 전신(前身)으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마을미디어 활동을 위한 환경 조성에 크게 이바지해왔음. 새로운 마을미디어를 발굴하고 확장 및 정착시켜왔으며, 지역 내 미디어 활동가와 주민 간 네트워크 형성에도 크게 기여해왔음
- 그럼에도 마을미디어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하고 사업 2차년도가 지나면서 커리큘럼이 평준화되는 경향을 보였음. 연령이나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못했고, 토픽도 다양하지 않았음

- 그동안의 마을미디어 교육은 공동체라디오, 지역텔레비전, 지역신문 등 전통적인 개념의 미디어에 편중되어 이뤄져 왔음. 이에 미디어 리터러시 또한 미디어에 대한 접근 및 미디어 제작에 집중되고, 미디어 활용 및 소통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었음
- 마을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장비 또한 비교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들에 집중되었음. 촬영, 조명, 녹음장비 및 편집실 등 50여 종의 장비 및 시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상시 대여되어 왔음. 이에 반해 스마트 미디어와 같이 일상 속에서 쉽게 활용 가능한 기기에 대한 교육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왔음
- 스마트 미디어의 경우 갈수록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고성능화되고 있어, 일상 속에서 사진, 동영상, 음성 파일 등을 쉽게 촬영(녹음)·편집할 수 있으며, 사용의 편리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음. 때문에 스마트 미디어 활용능력 향상을 통해 전통적 개념의 미디어 활용을 보완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음
- 교육 시 내용 전달을 위한 충분한 교육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꼽을 수 있음. 짧은 시간에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다보니 내용 전달 측면에서 아쉽다는 시민들의 사후 평가가 많았음
- 공공기관(구청, 동 주민센터, 학교 등)과의 협조 미흡으로 참여자 모집 및 지속적 유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 공공기관의 경우 야간이나 주말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음
- 결과물 액세스 및 사전·사후 홍보 채널이 미흡하다는 한계를 보임. 보도자료, 인터넷 홈페이지/커뮤니티, SNS 등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채널이 확보되고 있지 못함. 해당 사업 외 다른 마을사업 참여단위에까지 홍보를 할 만한 네트워크 또한 부재한 실정

3) 사업 내용

(1) 연령별/단계별/토픽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 국내외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커리큘럼 발굴 및 개발을 위한 전문가 확보가 필요. 학계·업계·정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 운영을 통해 커리큘럼을 구체화
- 개발된 커리큘럼을 웹페이지를 통해 DB화하고 마을미디어 센터 간 내용 공유를 통해 교육 커리큘럼을 통일시키고 일관적이면서도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
- 연령별/단계별(기초-중급-심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이 때 마을미디어에 특화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커리큘럼을 디자인하고, 인지도 있는 강사를 초빙하고 매력적인 강의 주제를 발굴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붐업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지역, 교통, 날씨, 육아, 여가, 안전관련 정보 등 다양한 토픽별로 그에 적합한 미디어와 연계한 교육이 고려되어야 함. 예를 들어 교통정보는 스마트폰과 연계한다던가, 안전관련 정보는 공동체라디오와 연계해 제공될 수 있음
- 또한 내용 전달을 위한 충분한 교육시간을 확보해야 함. 짧은 시간에 상대적으로 많은 내용을 전달하다보니, 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2) 시민들의 뉴미디어 활용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뉴미디어 활용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교육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국내외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마을미디어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 기존미디어와 뉴미디어를 아우르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통적 개념의 미디어인 공동체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마을신문과 잡지뿐 아니라, 팟캐스트, 모바일 앱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는 단순 강의식이 아닌, 실습 등 수강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수강생들의 교육 몰입을 극대화
- 실제 교육 진행에 있어서도 단순히 PC나 영상 제작장비만이 아니라, 스마트 기기(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비디오콘솔 등의 기기를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기기에 대한 시민의 활용 범위를 확대

(3) 마을미디어 활동에 최적화된 공간 확보

- 구청, 동 주민센터, 학교 등의 공공기관의 경우 야간이나 주말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 긴밀한 업무협조도 이뤄지고 있지 않아 지속적인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지역 내 공공기관과의 사전 업무협조가 시/구 차원에서 이뤄질 필요
- 공공기관 활용이 무료인데다 참여자들이 비교적 편하게 느끼기 쉬운 공간임에도, 무조건 공공기관을 권장하기보다는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을미디어 활동에 최적화된 공간을 활용하고 대여비를 책정하는 등의 노력 경주
- 지역별 마을미디어센터 설립 확대를 통해서도 마을미디어 활동을 위한 공간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마을미디어센터를 주축으로 주변 공공기관 및 기타공간을 부수적으로 함께 활용하는 전략을 통해 마을미디어 활동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

(4) 교육 효과 및 만족도 측정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

- 교육이 끝나는 시점에서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고 만족도를 확인함으로써,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향후 사업이나 교육 진행에 적극 반영
- 이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 평가체계 확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프로그램별 질적·양적 차원의 평가지표 개발 작업 또한 함께 요구됨

(5) 홍보체계 확립

- 온/오프라인 차원, 시/구 차원의 홍보를 하되, 단순히 수치화된 교육 결과 나열이나 교육 실시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영상 제작물 전시, 관련 축제 개최, 보다 적극적인 방식의 SNS 소통, 온라인 배너광고 등을 통한 입체적인 노력 필요
- 다른 마을사업 참여단위에도 홍보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뉴스레터 발행, 교육 활동 기록,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교육 관련 내용의 DB화, 활동사례집 및 DVD 제작을 통해 프로그램 진행 결과를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위한 방안 마련
- 교육 참여자는 가장 실질적인 홍보주체이기도 한 만큼, 교육과정에서 간이 홍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일상에서의 홍보를 꾀하고, 홍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이뤄져야 함

4) 추진계획 및 예산소요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령별/단계별/토픽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100	-	-	-
뉴미디어 활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	50	-	-	-
마을단위 미디어교육 지원(마을미디어문화교실 + 특강) (건 당 최대 1,000만원, 첫해 최소 50건에서 점차 확대)	500	800	1,000	1,000
교육 만족도 측정 설문조사 실시	10	10	10	10
프로그램 진행결과 공유 및 사후 홍보	50	50	50	50
총액	710	860	1,060	1,060

5) 기대효과

-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을 통해 교육 접근성 및 효과를 극대화하고, 나아가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 및 실질적인 마을미디어 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

- 마을미디어의 범위를 확장하는 효과. 전통적 개념의 공동체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마을신문 중심의 사고를 넘어 팟캐스트 및 마을 모바일 앱 제작, 미디어제작교육(미디어문화교실), 동아리 활동 등 이전보다 더 폭넓게 자율 미디어 활동의 범위와 규정을 확대할 수 있음
- 참여자 조사를 통해 교육의 성과를 측정하고 개선방안을 향후 교육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지속적인 사업 진행 및 보다 나은 교육 프로그램 제공에 이바지
- 사업 및 교육을 홍보하고 참여자를 모집하는 과정, 진행 후 결과를 공유하는 과정, 사후 홍보를 통해 사업 결과에 대한 기록을 남김과 동시에 사업에 대한 분업을 피함

세부
추진과제 2

마을미디어 교육 전문인력 양성

1) 취지와 배경

-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다양한 활동을 이끌어 갈 전문가적 주체 발굴과 성장 미흡
- 마을미디어 활동의 노하우를 쌓고 마을 환경에 맞는 미디어 선별 및 제작, 그리고 마을미디어 강사로도 활동할 수 있는 마을미디어 전문인력 양성이 요구됨
- 전문화된 마을미디어 교육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구성하여 마을미디어에 관심 있는 이들의 참여를 높이고, 실질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거주지역 마을미디어 현장과의 연계를 꾀할 필요
- 마을미디어 참여 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한 마을 내 인적 순환구조 마련. 즉, 마을미디어 문화교실 사업 등을 통해 마을미디어 활동에 참여한 주민들이 마을미디어 교육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2) 현황 분석

- 서울시 22개 자치구에서 45개의 마을미디어가 활동하고 있고, 지금까지 총 2만여개 마을콘텐츠가 제작되어 주민들에게 배포되었음에도 마을미디어의 안정적 운영을 전담할 상근 활동가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 특히 운영담당자의 역할이 큰 마을미디어의 경우, 운영을 전담할 수 있는 상근 활동가(큐레이터)가 마을 당 최소 1인씩이라도 안정적으로 배치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마을이 많음
- 기존에 이뤄져 왔던 우리마을 미디어교실/공방의 경우 마을미디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근본 조건이 부족했음
 - 우리마을미디어교실: 짧은 교육 과정과 이후 활동 보장이 안된다는 한계를 지님

- 우리마을미디어공방: 프로젝트성의 일시적 사업인 경우가 많고 지속가능성 여부가 불투명함
- 그동안 기초/심화과정의 운영을 통해 마을미디어 수준별 교육체계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꾀해왔음. 기초과정을 통해서도 마을미디어 신규 활동가를 양성하고 그들을 마을과 연결하였으며, 심화과정을 통해서도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했음
- 하지만 여전히 단계별/과목별 다양한 커리큘럼이 개발되고 있지는 않고 있음. 기획, 운영, 오퍼레이팅 등 영역에 따른 전문 교육 또한 전문화 실정
- 마을미디어 교육 및 활동 등에 양성된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마을지원사업과의 일정 조율이 필요. 현 상황에서는 기껏 잘 교육해놓은 인력이 적시적소에 투입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양성된 인력에 대한 사후관리와 후속지원 프로그램 또한 미흡한 상황임. 인력 양성결과의 체계적 DB화, 인력 간 네트워크 구축,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 등의 노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3) 사업 내용

(1)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발굴 및 개발

- 국내외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커리큘럼 발굴 및 개발, 활동가 교육을 위한 전문가 확보가 필요. 학계·업계·정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 운영을 통해 커리큘럼을 구체화
- 개발된 커리큘럼의 DB화 및 공유를 통해 지역 간 교육수준 편차를 낮출 필요가 있음. 이는 교육 진행의 일관성뿐 아니라 지속성과도 관련되는 문제임

(2) 큐레이터 양성 프로그램 마련

- 기존의 우리마을 미디어문화교실 가운데 마을미디어 전문활동가 프로그램을 좀 더 특화해 마을미디어의 전반적 유지, 관리, 마을공동체 사업들과의 마을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미디어 뉴스 조율, 마을미디어지원센터과의 연계 등의 역할을 맡을 수 있는 큐레이터 양성 프로그램을 구성

- 최소한 서울시 25개구에 1명 이상의 큐레이터(상근직)는 포함할 수 있게끔 함. 큐레이터는 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 상근. 큐레이터는 마을의 미디어자원을 네트워킹하는 기획자, 마을미디어활동을 만드는 조직자, 마을미디어지원센터와 주민을 연결하는 매개자 역할을 하며, 비상근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마을미디어 진행

(3) 전문가 활동 영역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

- 비상근 전문가의 경우, 기획자, 운영자, 강사, 오퍼레이터 등 활동 영역에 따른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기초-심화 단계별, 과목별로 운영함으로써 영역별 전문성 극대화
- 마을미디어 교육에 참여한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이면서도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그들이 마을미디어 교육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마을 내에서 인적 순환구조를 마련

(4) 양성 인력에 대한 관리 및 사후지원 강화

- 보도자료, SNS, 이메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교육에 대한 사전 홍보를 하고, 상근조교를 통해 원활히 수업을 운영하며, 차시별 수업후기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고, 참가자를 대상으로 평가 설문을 실시하는 등 교육 성과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강사진과 공유
- 마을지원사업과의 적절한 일정 조율을 통해 양성된 인력이 적시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함. 나아가 향후에는 활동 영역,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인원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노력
- 양성된 인력의 DB화, 네트워크 구축, 사후 교육, 그리고 폭넓은 마을미디어 관련 활동의 기획과 실행을 위한 사후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교육 참여를 가능하게 함

4) 추진계획 및 예산소요(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마을미디어 전문가 양성 추진 연구조사	10	-	-	-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개발	30	-	-	-
단계별/과목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회 당 최대 200만원, 연 최소 10회 운영)	20	20	20	20
마을미디어 큐레이터 양성 지원 (1인당 1,000만원, * 양성 지원만 시 차원에서 하고, 운영 지원은 각 구에서 담당)	70	60	60	60
양성 인력 관리 및 사후지원	10	20	20	30
총액	140	100	100	110

5) 기대효과

- 마을미디어 활동의 상근 인력 부족 해소, 그리고 마을미디어의 연속성 보장 할 수 있는 전문가 확보
-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문 활동가의 양적인 수 증가뿐 아니라 교육의 질적 수준을 확보
- 마을 뉴스와 소식 발굴, 수집, 분류 등 창의적 역할을 큐레이팅할 수 있는 지역 전문가 양성
- 양성 인력에 대한 꾸준한 관리 및 사후지원을 통해 지역 내 인력의 선순환 구조 마련

**세부
추진과제 3**

**마을미디어 동아리 활동, 방송국, 방송 채널,
신문제작 활동 지원**

1) 취지와 배경

(1) 동아리 활동

- 미디어 교육 패러다임이 단순 차원의 교육에서 제작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바, 마을미디어 교육 이후 동아리 활동으로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교육을 연장하고, 향후 영상제작단 등 더 큰 모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
- 마을 주민의 자발적 미디어 놀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마을 이야기와 마을 공동 이슈를 지속적으로 공유 및 확산할 수 있게 하며, 마을과 마을이 소통할 수 있는 쌍방향 공론장을 마련해줌

(2) 공동체라디오 방송국

-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 실행과 더불어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매체로서 소출력라디오에 대한 관심이 증가. 지역형 매체이자 풀뿌리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공동체라디오의 역할이 중요
- 라디오 방송국은 단순히 지역 주민들의 소통매체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미디어센터 기능(주민 주체적인 교육·제작 참여, 시설·장비대여, 외주독립제작 프로그램 송출 등)을 일부 수행하는 지역 노드형 공동체미디어의 역할 수행
- 마을미디어 매체들 중 콘텐츠의 유통 및 확산의 채널 (예, 통합방송채널 등 활용), 마을공동체 사업 연계와 참여 등 커뮤니티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음 (예, 청취자 참여형 프로그램 시청자 참여를 일정 비율 법제화, 관악FM의 경우 지역 9개 지역사회 단체들과의 결합 등)

(3) 방송 채널과 신문

- 다양한 세대, 계층, 사회적 소수자들의 마을 이야기와 마을 공동 이슈의 지속적인 공유 및 확산
- 마을미디어를 활용해 마을의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마을 지역 방송과 다양한 매체활동 소모임 및 동아리 지원
- 다양한 마을이야기나 마을 공동의 문제와 고민을 풀어내는 마을미디어 제작 및 운영 지원

2) 현황 분석

(1) 동아리 활동

- 그동안 동아리 사업은 ‘우리마을미디어공방’ 사업으로 구체화되어 왔음. 서울 지역 전 세대 다양한 계층이 이들 사업에 참여했고, 각 지역별·세대별·계층별 특성이 담긴 마을미디어 활동이 수행됐으며, 신문/잡지, 라디오, 영상, 상영회, 전시회, 게시판 운영 등 다양한 마을미디어 콘텐츠 생산 및 독창적 모델이 발굴되었음
- 그럼에도 여전히 다양한 활동 모델 발굴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가짐. 다양한 활동 방식을 소개하고 공유하면서 마을미디어 활동에 대한 상상력을 키우고, 또 다른 계층의 적극적 참여가 이뤄져야 함
- 다채로운 마을미디어 활동을 위해 각 사업별로 새로운 주체가 많이 발굴되어야 함에도, 참여 조건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여전히 복잡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실제 다수의 주민모임이 고유번호증 발급 등의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대다수 사업 참여단위에서 과도한 행정서류와 사업비 기준에 대한 개선을 요구

(2) 공동체라디오 방송국

- 서울시 오직 2곳, 전국 7개뿐인 공동체 라디오 수준: 공동체라디오 운동은 서울시 중심의 마을커뮤니티 복원 운동과 시민미디어 운동의 협치 모드로 전환
 - 2012년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사업 시작. 지역미디어센터 기능: 7개 미디어센터, 2개 공동체 라디오(마포, 관악FM) 개국

지역	공동체라디오명	설립/운영주체	인력현황
마포구	마포 FM	(사)마포공동체라디오	7명
관악구	관악 FM	(사)관악공동체라디오	10명

- 공동체 라디오 주파수 정책: 1W출력 제한과 공적 지원 중단 상황
 -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위해 미니FM이라는 안내방송 형식의 소출력 방송 도입, 2003년에는 소출력라디오방송을 안내방송과 공동체방송으로 분류하고 법제화 추진했으나 시행되지 못함
 - 2004년 소출력라디오 시범사업(전국 8개지역 [마포, 관악, 분당, 공주, 영주, 광주, 대구, 나주] 시범사업자 선정- 시민단체 주도형, 대학과 관 주도형 등)과 2005년 이들의 방송국 허가
 - 출력이나 재원 등의 문제점 도출돼 2006년 방송법 개정 통해 공동체라디오 방송 법제화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 그러나, 정규 사업화가 표류하다 2009년 정착
 - 2009년 1월 공동체라디오 정부차원의 공적지원 중단 (자체 조달, 지자체지원, 광고 재정마련 중심)
 - 2010년 '소출력방송국'에서 '공동체라디오방송국'으로 명칭 변경, 1W에서 10W이하로 출력 변경 (현실적으로 증강 안된 채 1W로 유지), 허가 유효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3) 방송 채널과 신문

- 매년 (2013년과 2014년) 25개 단체 또는 주민모임 마을미디어 활동 지원
- 2013년 '미디어공방' 사업을 통해 마을 주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쇄물,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온라인매체 등 제작 지원. 세 가지 유형, 즉 매체형(콘텐츠 유통 지원), 아이템형(마을 모임 및 제작 지원), 코디네이터형(미디어문화교실 후속 활동 지원)으로 진행

- 기존 마을미디어의 성장과 신진 마을미디어의 등장과 성장, 그리고 <마을미디어 문화교실>에 참여했던 마을과 마을 주민들이 그 다음 해에 <마을미디어공방> 사업에 참여하여 매체를 구성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주체로 성장하는 선순환 구도를 창출
- 서울시 마을공동체 현황

영역	특징	세부목록
공동체라디오 (마을라디오)	- 주파수 보유, 소출력(1W) - 방송법 근거해 정규사업자 운영 중 - 지역을 중심으로 단체 및 주민이 직접 방송 제작, 운영	관악FM, 마포FM
	-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으로 신규진입 - 인터넷방송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매체 구성	구로FM, 동작FM 창신동 '덤' 등
마을TV		와보송 TV
마을신문	- 주민들이 직접 운영, 취재, 보도하는 소규모 지역신문	금천IN, 도봉N 마공미디어, 서초마을신문 등
마을잡지 및 소식지	- 지역 또는 관심분야별 커뮤니티가 중심이 되어 지역과 관련한 이슈 및 이야기를 수록	스트리트 H 서촌라이프 문래동네 등
마을극장	- 마을 주민이 소유, 운영하는 상영중심의 미디어	성미산 마을극장

- 마을미디어를 매개로 마을주민 스스로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 소통, 공유하며 그들 자생의 공동체문화 형성에 이바지

3) 사업 내용

(1) 동아리 활동

- 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마련 및 플랫폼 확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이어갈 필요가 있음. 또한 늘어나고 있는 마을미디어 활동과 피드백, 공유 및 확산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플랫폼이 마련돼야 함
-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가-활동가-시민 간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교육, 워크숍,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합리적으로 원활하게 운영할 필요

② 다양한 동아리 활동모델 발굴 및 실험(아이템형/매체형/코디네이터형)

- 교육, 문화, 주거, 안전, 생태, 재개발, 복지, 인권 등 우리가 사는 사회를 둘러싼 다양한 주제와 이슈 등을 독창적인 미디어 활동으로 녹여낼 수 있도록 함
- 지역의 역사를 담은 책자 발간, 다양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영상뉴스 제작, 편안한 수다가 함께 하는 라디오 방송 제작,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팟캐스트 제작, 독창적인 게시판 및 지도 제작, 마을 사진 전시 및 관련 영상 상영 등 친근하면서도 재미있고 독창적인 활동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함
- 마을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전문 코디네이터의 결합을 통해 교육 후속활동을 장려하고 지역 이슈에 대한 공론의 장을 형성

③ 참여 계층과 지역 확대

-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세대가, 그리고 독립 생활자, 주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으나, 이를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으로까지 확대하여 소외계층, 그리고 나아가 더불어 사는 사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거주지역만이 아니라 인접지역까지 참여계층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간 이슈를 공유하고, 인접지역을 통해 거주지역에 대해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

④ 행정 절차 간소화 및 기준 완화

- 다채로운 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해 참여조건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야 함

- 주민모임의 고유번호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참여 단위에서 행정서류를 줄이며, 사업비 기준을 현실적인 수준에서 개선할 필요

(2) 공동체라디오 방송국

① 공동체라디오 방송국 개국을 위한 주파수 대역 마련과 보호

- 적어도 공동체라디오의 경우 주파수 자원 확보(공동체라디오주파수보호법안 등)나 인허가 문제와 관련된, 방통위 사안으로 이에 대한 공적 지원 확보되어야
- 산악 지형이 많은 한국적 특성 감안, FM주파수 외에 AM 주파수 활용 검토.

② 출력 증강과 공동체라디오 신규 허가 증대

- 1W출력 조건은 전파도달 범위는 물론이고 수신 품질을 떨어뜨림. 공동체라디오 방송의 행정단위별(적어도 현재 마포, 관악의 2개 방송국에 더해 권역 단위 2개 이상 공동체라디오 방송국 개국 필요) 방송 권역 커버리지 확보해야. 적어도 현행 방송법 규정된 법정 한도까지 출력 증강 (10W), 방송 구역에 맞춰 (10W~100W)까지 출력 유동적 적용
- 서울 2개, 전국 7개 공동체라디오 방송 운영은 숫적으로 너무 적음. 커뮤니티형 공동체라디오의 확보를 위해 신규허가를 늘릴 필요. 이미 2008년 가용 주파수 사전수요 조사와 검토 작업 진행하면서 전국적으로나 서울에서 공동체라디오의 신규 허가 요구 확인. 지역단위 가용 주파수 검토 작업 필요(권역이 좁아 전파 간섭 등 문제 별로 없음)

③ 공동체라디오의 보완적 방송국 모델 동시 육성

- 매체형 라디오방송 개국이 비용, 설비, 제도 제약이 존재하면서 ‘아이템형’ 라디오 방송국(팟캐스트 등) 개국을 늘리는 방식도 함께 모색 확대

④ 상업적 영향에 독립적인 충분한 재정적 여건 마련

- 공동체라디오의 비영리적 특성으로 인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공적기금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 상업적(광고주 등) 영향력을 없애고 공동체 라디오의 풀뿌리 기반 비영리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공 자원 확보 마련

⑤ 케이블방송/위성방송 공동체라디오 오디오 채널서비스 도입 연계

- 라디오 방송의 디지털 국면과 관련해 케이블방송의 지역 케이블사업자(SOs)나 위성방송 사업자를 통해서 '디지털공동체라디오' 오디오 채널서비스 도입 활성화. 공동체라디오 개국 확대에 중요

(3) 방송채널과 신문

① 지속적이고 다양한 마을미디어 형식 실험과 주민모임 확보와 안정적 지원

- 마을신문이나 마을방송국 등 매체형 미디어에 대한 안정적 활동 지원과 마을미디어 사업 주체들의 사업 수행 기간의 충분한 확보와 지원책 마련, 현 연간 25개 마을미디어 모임 지원을 권역별로 2018년까지 계속 확대 진행
- 아이템형 사업의 경우에는 보다 마을의 다양한 이야기(역사, 문화, 사회, 육아, 안전 등)를 다각도로 조명하는 다양한 주제와 모델을 발굴하는 활동층에 대한 지원 모색

② 마을 미디어에서 소외된 주민의 참여와 미디어 제작 모임 확대

- 이제까지 마을미디어 제작 방식에 더해, 마을미디어 상상력을 더욱 키울 수 있고 다양한 계층(이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도시 빈민, 주부, 청소년, 노숙인 등)의 적극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환경 확대
- 10-50대의 뉴미디어 활용의 보편적 능력에 비해 중장년층의 뉴미디어 활용 방식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디지털디바이드 현상이 세대간 현저하게 보이는 편. 마을 단위에서 지역의 관심사를 세대별 미디어 활용 능력에 따라 미디어 생산, 배포, 공유의 플랫폼과 콘텐츠 제작 방식을 달리할 필요

③ 마을 미디어 공방 활동 프로그램 컨설팅 기능 강화

- 마을미디어 활동의 상시적인 컨설팅 지원 시스템 마련해 지원
-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네트워크 활용하여 마을미디어에 대한 상시 컨설팅

4) 추진계획 및 예산소요(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동아리 활동	체계적인 동아리 지원 시스템 마련 (자문회의 간담회 교육 워크숍 네트워크 등)	30	30	30	30
	다양하고 독창적인 동아리 활동 지원 (아이템형 건당 최대 500만원/연 최소 20건 매체형 건당 최대 3,000만원/연 최소 10건 코디네이터형: 건당 최대 100만원/연 최소 5건에서 점차 확대)	405	435	460	610
	소계	435	465	490	640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개국 타당성 및 수요조사 연구 용역	30	-	-	-
	공동체라디오의 지역 케이블 오디오채널 서비스 도입 타당성 연구 용역	20	-	-	-
	'아이템형' 라디오 방송국(팟캐스트 등) 개국 지원사업 * 2014년 7월 기준 라디오방송국 16개 1개 매체당 연 10백만원 지원 2015년부터 연마다 3-4개 매체 추가지원	190	220	250	290
	마을공동체 라디오 관련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20	20	20	20
소계	260	240	270	310	
방송 채널과 신문	마을미디어 아이템형 사업 수행 주제 발굴 및 문화다양성 확보 방안 용역 사업	20	-	-	-
	마을미디어 사업 수행 단체 지원 (매체형: 마을방송 - 상시) * 2014년 7월 기준 방송 2개	30	40	50	60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1개 매체당 연 10백만원 지원 2015년부터 연마다 1개 매체 추가지원				
	마을미디어 사업 수행 단체 지원 (매체형: 마을신문/잡지 - 상시) * 2014년 7월 기준 신문/잡지 8개 1개 매체당 연 10백만원 지원 2015년부터 연마다 1개 매체 추가지원	90	100	110	120
	마을미디어 공방활동 내용 컨설팅 (전문코디네이터 지원) 및 상시 컨설팅·상담 년 4회 / 수시	20	20	20	20
	소계	160	160	180	200
	총액	855	865	940	1,150

5) 기대효과

- 마을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소통을 활성화하고 지역적 주제를 공론화하여, 마을미디어 공동체의 지속적인 확대 발전을 꾀할 수 있음
- 지역 커뮤니티 주민 기반 매체 공급 확대를 통해 생생한 지역 뉴스 제작, 배포, 공유하는 소통 매개적 역할 증대
- 안정적인 마을 콘텐츠 생산을 통해 마을의 다양한 세대별·계층별 이야기 및 이슈를 심화·발전시킴으로써 지역을 거점으로 한 마을 미디어 활동을 본격화할 수 있음

세부 추진과제 4

마을미디어 청년 사회적 기업 연계

1) 취지와 배경

- 임시적인 공공일자리를 대체하고 증대되는 마을미디어 서비스 수요에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 확대 필요
-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적 관계망에 기초해 주민의 욕구와 지역문제를 해결하며 마을공동체의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는 마을 단위 기업의 중요성 증대
- 마을미디어야말로 마을 주민 주도로 지역의 특성화된 인적자원, 자연자원, 문화 등 유·무형의 각종 자원을 활용, 청년들에게는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지역주민에게는 복지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에 적합

2) 현황 분석

- 현재 서울시에서는 (예비)사회적 기업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서울형 사회적 기업은 2009년 11월부터 모집을 시작해 2011년 10월 기준 총 411개 기업이 지정돼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분야는 문화교육, 보건교육, 환경 등 기타 등이 있으나 대부분 제조업이나 유통업(인쇄, 복사·제본, 청소용역, 보육도우미 파견, 택배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미디어 관련 사회적 기업은 전무한 실정
- 그러나 마을미디어 또한 마을기업의 3대 특성인 필연성(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문제나 해결을 요하는 문제를 다룸), 자립성(사업초기 안정화 이후 지원 규모가 축소되어도 자립할 수 있어야 함), 공공성(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서비스와 관계되어야 함)에 부합

3) 사업 내용

(1) 마을미디어 청년 사회적 기업을 위한 육성방안 마련

- 마을미디어 청년 사회적 기업 육성의 타당성, 필요성, 목표 및 방향 설정,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을 실시
- 미디어와 관련된 국내외 사회적 기업사례 조사를 통해 여타 분야 사회적 기업과의 차별성을 찾고, 한국적 맥락에 부합하는 사업모델을 발굴함으로써 실패 확률을 최소화

(2) 마을미디어 청년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교육 실시

- 마을공동체 및 마을기업과 관련한 단계별 교육 실시. 기본 교육을 통해 마을공동체와 마을기업의 개념과 철학 그리고,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내용과 절차를 안내하고, 심화 교육을 통해 ‘마을공동체’와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별도로 사업계획서의 작성과 수정·보완을 지원하는 팀 워크숍 진행
- 마을미디어 교육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연계, 사회적 기업 창업을 위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마을미디어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 실시

(3) 맞춤형 경영 컨설팅 지원

- 서울시(예비)사회적 기업 컨설팅을 위한 상임 전문 컨설턴트와 연계, 법무, 인사, 회계, 홍보, 마케팅, 경영 등 각 분야별 컨설팅 지원
- 미디어, 특히 마을미디어가 갖는 일반성과 특별성을 함께 고려, 마을미디어 운영에 최적화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4) 단계별로 차별화된 지원제도 마련

- 마을관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원을 연계해줄 수 있는 인큐베이터를 통하여 현장에서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제도 실시

- 민간의 자발성에 기초한 등록방식으로 상시 접수할 수 있는 상시등록 제도 운영
- 기존의 창업시기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범위를 넓혀 아직 아이템을 구상중인 단계나 이미 창업된 기업을 포함해 주민의 준비정도와 필요한 내용에 따라 지원

(5) 인건비 지원 및 육성자금 응자 지원

- 일반근로자/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구체적인 액수는 서울시(예비)사회적 기업 정책 기준에 근거(일반근로자의 경우 신규채용인원 1인당 1,107천원, 전문인력은 월 200만원 한도). 전문인력 지원기업의 경우 연차별로 인건비 자부담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함(1년차 20%, 2년차 30%, 3년차 이상 50%)
- 공간확보 및 미디어 장비를 위한 시설자금,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구체적인 지원규모는 서울시(예비)사회적 기업 정책 기준(시설자금 2억원 이내, 경영안정자금 5억원 이내)에 근거하되, 마을미디어의 특수성을 고려

(6) 사회적 기업 판로 확보 및 홍보 지원

- 향후 공동체라디오 주파수 자원 확보, 출력 증강, 신규 허가 증대 시 사회적 기업에 우선순위를 줄 수 있도록 지원
- 서울시(예비) 사회적 기업 홍보 지원을 위한 홍보관 운영 및 사회적 기업 박람회 개최

4) 추진계획 및 예산소요(단위: 백만원)

* 사회적기업 연계 예산으로 수렴(실제 마을미디어 예산에는 포함 안 됨)

사업내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마을미디어 청년 사회적 기업 육성방안 마련	50	-	-	-
마을미디어 청년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교육 실시	20	20	50	50
맞춤형 경영 컨설팅 지원	20	20	50	50
단계별 지원제도 마련	20	20	50	50
인건비 지원 및 육성자금 융자 지원*	1,380 (3개)	2,260 (4개)	2,700 (4개)	3,100 (4개)
사회적 기업 판로 확보 및 홍보 지원	10	20	30	30
총액	1,500	2,340	2,880	3,280

* 1개 기업이 신규로 진입할 시 시설자금/경영안정자금을 최대 300백만원씩 지원, 연차별 인건비는 1년에 200백만원을 기준(1년차 80%/2년차 70%/3년차 이후 50% 지원)으로 하여 지원

5) 기대효과

- 지역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실업률을 낮추고, 마을미디어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
- 경제·사회적 조건을 개선하면서 미디어 산업적 측면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공유가치를 창출(creating shared value)하고, 기업과 지역 간의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

**세부
추진과제 5**

**마을미디어 고유 콘텐츠 제작지원
및 주류미디어 공적 감시활동**

1) 취지와 배경

- 최근 미디어 환경은 무엇보다 주요 지상파 방송의 공론장적 역할이 붕괴되면서 해직기자, 방송국 PD, 게릴라 미디어 활동가 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기반 ‘제3의 미디어’ 개국 (예: 뉴스타파, 나는 꼼수다, 저공비행, 손바닥티비, Go발뉴스 등)과 그 영향력의 확대로 요약할 수 있음
- 정치 민주주의의 언어적 의사소통이 근본적으로 붕괴되고 왜곡된 상황에서 민주적 소통 합리성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서 공동체 감각 회복을 위해 제3의 미디어 등 시민들이 스스로 구성하는 마을미디어 역할론 부각
- 마을미디어는 시민이 미디어의 단순한 수동자에서 벗어나 미디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가치를 담고 있음. 거대 미디어 자본의 수동적 시청자가 아니라 스스로 제작에 참여해 미디어를 생산하고, 미디어를 통해 사회 현실에 개입할 수 있는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미디어교육 필요

2) 현황 분석

- 기존 마을미디어 사업은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 유통, 공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왔음. 그러나 마을미디어의 개념이 ‘마을공동체’와 ‘시민미디어’가 함께 결합된 것이라 본다면, 다소 제한적인 틀에서 마을미디어 개념을 사용해 왔음은 부인할 수 없음. 이 점에서 보면 주류 미디어 감시활동 및 대안적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콘텐츠 제작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왔음
- 인터넷 기반 24시간 실시간 방송의 등장(예: 아프리카, 칼라TV 등), 기동성을 보장하는 스마트폰, 인공위성 위치추적 시스템(GPS), 내비게이션, 웹캠 등 모바일 전자장비들을 활용해 어디서든 방송이 가능해지고, 이미지를 실시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간으로 제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네트워크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뉴미디어 융합 환경이 등장

○ 서울시의 최근 마을공동체 매체 및 플랫폼 현황 및 특징

매체분류	플랫폼 구분	세부 플랫폼	플랫폼 특징
라디오	전파 (주파수)	FM	소출력 주파수 (반경 1W)
	온라인	IBLUG, 팟빵 등 스마트폰 앱	-무료 콘텐츠 업/다운로드 -개별채널(페이지) 개설 가능 -SNS 연동가능
	오프라인	CD 등	-콘텐츠 직접배포 (미용실, 슈퍼, 공장 등)
텔레비전	온라인	유튜브 등	-무료 콘텐츠 업/다운로드 -개별 채널(페이지) 개설 가능 -SNS 연동가능
신문 및 잡지	온라인	웹카페, 자체 홈페이지 등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
	오프라인	종이 인쇄	직접 배달 및 우편발송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안드로이드 앱	마을미디어 통합 플랫폼

○ 그 외에도 시민들의 온라인 블로그와 같은 1인형 개방형 저널리즘, 다수의 협업에 의해 만들어지고 상호 공유되는 소셜 웹 문화가 다양한 자율적 미디어 환경을 형성. 상기의 기존 마을미디어 제작 시스템 지원의 지속성 확보 필요와 좀 더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 대안적 콘텐츠 제작을 독려하는 지원 체계 부족

○ 전통적 채널을 통한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서 보더라도 서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방송의 부재. 예를 들어, KBS, MBC, SBS, 종편방송은 서울에 본부가 소재하나 이는 전국방송으로서 서울지역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지역 커버형 방송인프라 환경이 부재한다고 볼 수 있음

- 2014년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 지원받은 지역 지상파방송 7곳 중에 서울은 없음 (KBS의 열린채널이 존재하나 이도 전국방송)
- 2014년 시청자프로그램 운영 지원받은 지역케이블 방송 24곳 중에 서울지역은 단 5곳(씨앤엠 노원케이블TV, 씨앤엠 서초케이블TV, 씨앤엠중앙케이블TV,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티브로드서대문방송)에 불과

3) 사업 내용

(1)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고려한 미디어 감시활동 및 콘텐츠 제작 지원 계획 수립

- 마을미디어를 매개로 시민들이 스스로 발언하고 싶은 사회·경제·문화 영역의 토픽들을 공론화하는 활동을 펼치기 위한 구체적·실질적 체계 마련
- 모바일 환경, 다양하게 형성되는 자율적 미디어 환경 등을 고려, 시·공간적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콘텐츠 제작을 위한 지원 계획의 타당성·필요성·목표 및 방향·단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용역 실시

(2) 미디어 감시를 위한 기본소양 함양 교육 실시

- 기존 미디어의 내용이나 체계, 제도, 이념을 비판적 안목에서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본 교육 실시
- 대중매체의 역사적 발전과정, 대중매체의 정보제공 기능과 오락제공 기능의 양면성, 현실의 실제 세계와 대중매체에 의해 창조되는 미디어 세계의 본질 및 차이, 대중매체 종사자들의 책임과 그들에 대한 통제요인, 여론형성 또는 여론조작에 대한 대중매체의 영향력 및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수용자의 힘, 대중매체 내용물의 시청 및 평가방법 등 매체에 대한 감상력·비판력·식별력 배양
- 미디어 렌즈를 통해 사회를 바라보는 비판적인 안목, 적극적인 사고, 해박한 지식, 끈기와 인내를 기르기 위한 소양 교육

(3) 서울 시민 대상 콘텐츠 제작, 유통, 공유를 위한 플랫폼 마련 및 사후지원

- 라디오, TV, 신문 등 전통적 개념의 미디어뿐 아니라 인터넷 방송, 블로그, 팟캐스트, 스마트폰을 활용해 제작한 동영상 등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 마을미디어 통합 플랫폼을 이용, 제작된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배급 및 유통 확장을 통해 미디어 감시활동의 파급효과 극대화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 제작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상영회 및 전시회 개최, 관련 포상 마련 등을 통해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온·오프라인 홍보 실시, 통합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이용 현황 피드백 등 사후지원 강화

4) 추진계획 및 예산소요(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미디어 감시활동 및 콘텐츠 제작 지원 계획 수립	20	20	20	20
미디어 감시를 위한 기본소양 함양 교육 실시 (회 당 최대 200만원, 연 최소 10회 운영)	20	20	20	20
콘텐츠 제작/유통/공유 플랫폼 마련과 사후지원	30	20	20	20
총액	70	60	60	60

5) 기대효과

- 전문가주의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시민이 직접 미디어를 운영하고 자신의 메시지를 생산, 유통함으로써 시민 권능(empowerment)을 도모하는 미디어로 마을미디어 개념과 의미를 확장
- 어느 때보다 시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디어 감시활동 및 콘텐츠 제작에의 참여 지원은 공공성을 상실한 미디어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기능
- 대중매체 내용의 평가 및 선별능력, 나아가 대중매체를 이용한 수용자의 의견개진 기회와 능력의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음

세부
추진과제 6

마을미디어 콘텐츠 유통·배급 활성화

1) 취지와 배경

- 마을미디어센터, 공동체라디오, 지역신문, 지역 영상제작 집단 등 마을미디어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들이 제작되고 있음
-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미디어 콘텐츠의 노출도 증가시킬 필요. 즉 마을미디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콘텐츠를 스마트폰, 케이블/위성TV, IPTV, 지상파TV, 인터넷 등 거의 모든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는 환경 마련
- 방송지형의 변화와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장치들 추가되면서 스마트 환경하 공동체 미디어 콘텐츠 접근 방식의 다채널화
- 젊은 세대는 물론이고 중장년층의 스마트기기에 의존한 뉴스 소비 증가. 거의 스마트기기를 통해 콘텐츠 소비 증가하면서 마을 미디어 콘텐츠 활용과 소비 방식에 변화 필요
- 마을미디어에서 생산 제작된 콘텐츠는 수준 높은 내용을 갖고 있는 것들도 많아, 제작물을 인터넷과 방송 등에서 유통 배급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
- 서울시 민선 6기 업무보고에서 마을미디어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은 '15년도 마을미디어 컨트롤타워 '서울 마을미디어센터' 설치(IT-Complex<1·2층>, 597㎡). '권역별 거점 미디어센터' 지정·운영 : 1개소('15년도) → 4개소('18년도). 마을미디어 활동 지원 2배 확대 : 25개('14년도) → 50개('18년도). 마을미디어 교육 확대 : 연 700명('14년도) → 연 1,050명('18년도)로 명시 되어 장기적으로 마을미디어 콘텐츠가 많이 확대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유통·배급이 필요

2) 현황 분석

- 현재 마을미디어에서 제작된 콘텐츠가 시민들이나 방송제작 시장에 원활하게 유통·배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관악, 마포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의 경우 이곳에서 제작된 미디어 콘텐츠가 송출되지만, 소출력이어서 정보가 많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FM 출력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사안이라 신규 설립이 어려운 상황
- 마을미디어에서 교육받은 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해서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형태로 제작되고 있지만, 지상파, 케이블, 인터넷, SNS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 마을미디어의 제작된 방송, 영상 콘텐츠나 디지털 콘텐츠들을 전문적으로 유통·배급하는 체계가 부재한 상황

3) 사업내용

(1) 기존 대중매체에 마을미디어 콘텐츠 신탁을 통한 다채널 유통

- 기존 지상파, 케이블 방송 채널(KBS 열린채널, 시민방송 RTV 등)에 마을미디어 프로그램 노출도 증가
- TBS(케이블TV, 라디오)를 통한 마을미디어 콘텐츠 상시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케이블 방송사(SOs) 현재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지원 서울 지역 5곳에 더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필요), 위성방송, IPTV 등의 오디오/방송채널에 마을미디어 콘텐츠 신탁을 통한 마을미디어 콘텐츠 프로그램 운영

(2) 온라인 웹 채널 통한 마을 미디어 콘텐츠 상시 노출도 증가

- ‘시민청’을 활용하거나 유튜브,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와우서울 등 활용한 콘텐츠 노출
- 공유서울,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등 서울시 추진 주요 사업들 중 마을미디어와 공유 가능한 내용 연계 노출 증가

(3) 온라인 플랫폼과 스마트폰 앱에 기반한 서울 시민방송국 운영

- 마을미디어 제작 콘텐츠의 배급 및 유통 확장, 그리고 대중화를 위한 기반 스마트 폰 앱 등 통합 플랫폼(서울 시민방송국)을 안드로이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앱마켓에서 쉽게 무료 다운로드해 듣고 볼 수 있도록 확대
- 어플리케이션 구성요소 및 인터페이스 설계 용이성 점검 및 인지도 증가를 위한 홍보 증대
- 마을미디어센터 등에서 제작된 미디어콘텐츠들을 전문적으로 홍보, 유통 배급할 수 있는 미디어 매개자 양성
- 교통방송을 활용하여 마을미디어 관련 보도를 정규편성
- 마을미디어의 정보를 아파트, 마을버스 정거장, 작은 도서관 등 근린 형 문화 기반시설 등 주거 지역 마을에 전달될 수 있도록 마을미디어 활동 전담인력 양성
- 마을미디어 콘텐츠를 스마트 기반 환경을 통해 확산될 수 있도록 유튜브, 앱, 팟캐스트 등 맞춤형 미디어 플랫폼을 개발

4) 추진계획 및 소요 예산(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웹 기반 마을미디어 콘텐츠 노출도 활성화 연구 용역	20	-	-	-
대중매체(라디오방송, 케이블방송 등) 기반 마을미디어 콘텐츠 노출도 활성화 연구 용역	20	-	-	-
교통방송 마을미디어 정규 프로그램 편성	100	100	100	100
마을미디어 유통활성화를 위한 미디어 플랫폼 개발 지원	100	100	100	100
마을미디어 영상콘텐츠의 상영 배급 지원	100	100	100	100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스마트폰 앱 버그 및 개선 용역	30	-	30	-
스마트폰 앱 운영 및 기술지원 비용	5	5	5	5
어플리케이션 홍보	1	1	1	1
총액	376	306	336	306

5) 기대효과

- 마을미디어에서 제작된 콘텐츠의 유통 경로를 다원화하여 시민들의 제작참여에 강한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마을미디어에서 제작된 우수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유효한 플랫폼 마련
- 마을의 다양한 공적 이슈들에 대한 노출도와 활용 증가는 마을미디어 활동의 콘텐츠 유통 활성화는 물론이고 기존 대중매체가 간과하는 그리고 지역 시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주목해야할 마을뉴스 영역들에 대한 환기 효과
- 마을미디어 생산과 유통의 직접적 주체와 함께 서울 거주 일반 시민들에게 마을미디어 활동의 콘텐츠 노출도를 높여 일반 시민 관심과 참여 활성화. 이는 마을미디어에서 제작된 중요한 정보가 마을에 제공됨으로써, 지역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음을 의미. 더 나아가 마을미디어에서 제작된 콘텐츠들이 상업적인 콘텐츠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

세부
추진과제 7

창의적 마을 정보(안전, 육아, 교육 등)
네트워크 구축

1) 취지와 배경

- 마을공동체 내 마을정보의 매개 역할자로서 마을미디어의 중심적 기능 자리 매김
- 마을미디어에서 생산, 제작된 콘텐츠들은 마을의 안전, 교육, 주거, 여가 등 지역의 정보 확산을 위해 지역시민들에게 좀 더 많이 노출되고 유포되어야 함
- 서울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과 밀착된 마을미디어 콘텐츠를 개발·보급해 마을정보네트워크의 시너지 극대화
- 마을미디어의 독자적 플랫폼 운영과 더불어, 각 마을공동체 주민 사업들로 들어가 마을미디어의 매개적 의사 소통 역할 확보

2) 현황 분석

-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마을 안전 미디어네트워크에 대한 국가적, 지역적, 시민사회적 관심과 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
- 서울 마을단위 다양한 매체들의 범람에도 불구하고 정작 마을의 중요한 공유될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매체 구실과 매체 역할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
- 창의적 마을 정보(안전, 육아, 교육, 여가 등)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내용 가운데 마을미디어 콘텐츠 제작물 중 범‘마을정보’로 공유될 콘텐츠를 선별해 즉각적으로 그리고 시민들과 긴밀히 결합할 수 있는 콘텐츠와 이를 실어나르는 플랫폼 영역에 대한 검토 필요
- 서울시 주민제안사업 중 마을정보 네트워크 가능 영역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음

주민제안사업		마을미디어 세부사업들
돌봄공동체	부모커뮤니티	찾아가는 마을미디어교육/공방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공동육아	찾아가는 마을미디어교육/공방 (미디어와 놀기 교육)
	다문화마을	찾아가는 마을미디어교육/공방 (미디어교육과 실습)
	청소년휴카페	찾아가는 마을미디어교육/공방 (미디어교육과 실습)
문화공동체	마을북카페	찾아가는 마을미디어교육/공방 (미디어 강좌)
주거공동체	아파트마을 공동체	마을미디어 콘텐츠 유통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안전마을	마을미디어 콘텐츠 유통 (동네 마을버스 정류소 등)
수시공모형	우리마을프로젝트	마을미디어 콘텐츠 유통 (마을회관 등 공적 공간 활용)

3) 사업 내용

(1) 마을공동체 콘텐츠 확산을 위한 전용 게시판(미디어보드, 키오스크 등) 활용 및 확보

- 서울시와 지자체가 육상과 지하철 등 지하 공간들과 지역 돌봄 공동체에 설치한 다양한 전자 키오스크들을 활용해 시민들의 공동체 이야기를 전하는 매체로 마을미디어를 적극 활용
- 현재 서울시 키오스크의 현황 파악과 어떠한 마을미디어 제작 콘텐츠와 어떤 전자 플랫폼과 연동하여 마을정보를 유통시킬 것인지에 대한 합의 마련

(2) 마을미디어의 재난과 안전 방송 역할 부각

- 서울시와 지자체, 마을 주체가 운영하는 다양한 불박이 설치형 키오스크 등을 활용해 마을 안전 및 재난 상황에 맞춰 특화된 뉴스들을 그 때 그 때 권

역별 거점 마을미디어지원센터 혹은 마을미디어센터에서 제작해 빠르게 방송할 수 있는 체제 마련. 공동체 관리와 유지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재난방송과 시민들의 대처에 대한 보도 역할 확보

(3) 마을 기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들(교통, 주택, 학교 등)과 연계한 마을미디어 콘텐츠 서비스 확대

-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마을과 지역 소식을 원활하게 매개하고 유통하기 위해, 시민들이 주로 모이고 출퇴근을 위해 기다리는 밀집 장소들에 마을미디어 콘텐츠 시범서비스 확대
 - 아파트 엘리베이터안 소통게시판 설치 사업 연계, 그리고 기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 상업용 미디어보드 활용해 마을 콘텐츠 서비스 확보 방안 마련
 - 서울시 가로변 시내버스 정류소 사업, 마을버스 안내 단말기 사업과 연계해 마을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 확보
- 각 지역별 대학 부설 방송국, 신문사와 연계해 마을정보와 소식 재매개 역할 강화
 - 이미 대학내 방송국과 신문사는 관련 미디어 장비, 인력 등 보유하고 지역주민과의 연계 쉽게 강화할 수 있는 터전을 갖고 있음.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재전송이나 요약된 마을 소식을 전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확보 노력. 이미 미국 등 해외에서는 대학언론의 지역주민과의 연계와 지역 뉴스와 지역 보도채널로서의 역할론 크게 발휘

4) 추진계획 및 예산소요(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마을 기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들 (교통, 주택, 학교 등)과 연계한 마을미디어 콘텐츠 사업 연구 용역	30	-	-	-
마을공동체 전용 게시판(미디어보드, 키오스크 등) 실태 파악 및 마을미디어 네트워크 활용 용역 연구	30	20	20	-
마을미디어의 재난/안전 시스템 용도 용역연구	35	-	-	-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대학 부설 방송국, 신문사의 마을미디어 활용 연구 용역 및 콘텐츠 연계 지원	20	10	10	10
총액	115	30	30	10

5) 기대효과

- 마을미디어의 콘텐츠 유통을 통한 마을공동체의 안전과 위험 요인 예방 및 제거 기능
- 마을 뉴스에 대한 보다 일상적 접촉면 증가 및 마을 활동에 대한 관심도 증가
- 마을주민들에게 마을미디어와 지역내 매체들의 마을공동체내 매개 역할의 중요성 재인식 확대

세부
추진과제 8

마을미디어 연합 활동 및 페스티벌 지원

1) 취지와 배경

- 마을미디어 활동을 통해 제작된 미디어 콘텐츠 공유 기회 부족으로 마을미디어 축제 및 한마당과 페스티벌 개최로 그 활동 결과의 표출과 공유 기회 확대
- 권역별 우수사례 중심으로 마을활동가와 지역 시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를 소개해 상호 마을미디어 활성화와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는 자극제 구실
- 마을과 마을간, 마을미디어 활동가들, 활동가와 일반 시민간 상호 교류를 통해 다양한 마을미디어 현황 공유와 사업 연계의 장 마련

2) 현황 분석

- 서울마을미디어 네트워크사업 운영

네트워크 사업		사업내용	사업 횟수
2013	웃떠말 프로젝트	서울마을미디어 네트워크 정기모임 <웃고 떠들고 나누기>, 마을미디어 관심있는 활동가 및 주민 참여	월 1회, 총 8회 (매회 100여명)
	창립워크숍	서울마을미디어 네트워크 창립워크숍	연 1회(1박2일)
	마을공동사업	마을간 연계사업 지원	5개사업, 10개마을
	뉴스레터	마을미디어 소식 및 콘텐츠 유통	월 1회, 총 10회 발행
2014	마을미디어네트워크 워크숍	함께 풀어보는 마을미디어 이야기	1박 2일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 서울마을미디어 축제 운영

	축제	사업내용	사업 횟수
2013	영상콘서트	마을미디어 콘텐츠 상영	연 1회
	서울마을미디어 어워즈	마을미디어 콘텐츠 상영 및 전시	연 1회
	서울마을미디어축제	'마을미디어, 판을 벌이다'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결과 공유, 전문가 및 일반시민 참여 마을미디어포럼, 전시 및 체험 행사	연 2회 (300여명)
2014	서울마을미디어한마당	마을미디어 참여단체 주민들과 일반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 형식	연 2회 (500여명)

- 마을미디어 참여자의 자존감 향상과 상호 네트워킹 확대 역할 수행
 - 이제까지 공적 공간에서의 우수 사례를 주목하고 시상식을 거행하면서 마을미디어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교류하는 자리로 구성되었음
- 마을미디어 사업의 성과 언론 및 서울 시민 홍보
 - 행사, 공모전 등에 대해 언론 보도기사와 하면서 마을미디어 사업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서울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성과를 거둠

3) 사업 내용

(1) 마을미디어간 네트워크 연계를 넘어 마을공동체 사업과 지역공동체와의 연계로

- 마을미디어 사업 참여자들간의 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다양한 단체들(주거, 환경, 교육, 아동, 교통, 예술창작 등)을 초청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동 네트워크 구축과 축제 기획 필요

(2) 마을미디어 네트워크 및 축제의 내실 강화 및 외연 확장

- 마을미디어 사업 참여 범위와 인원의 규모 확대, 일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획 유도. 이를 위해서는 상영과 전시 작품에 대한 질 향상과 사전 홍보 등 축제 기획 요구

(3) 마을미디어 아카이브 사업 구상 및 확대

- 서울 마을미디어 뉴스레터 발행만이 아닌 마을미디어 활동의 체계적 아카이

빙 및 의미화 작업

- 마을미디어 사업 활동을 기록 관리하는 작업을 마을미디어지원센터의 중요 하위파트로 설정해 이에 전담 미디어 아키비스트(마을아카이브 전공자나 매체 기록학 연구자 최소 상근 1인) 인원 배치 마련
- 서울지역 마을미디어 아카이브 홈페이지 제작 및 2012년 이후의 마을미디어 활동 기록 (사진, 영상, 공문서, 단체 기록물, 신문 및 동영상/오디오 방송 등 마을미디어 콘텐츠 제작물 등) 아카이빙을 통해 시민들과 마을미디어 주체들의 지난 활동에 대한 상시적 열람과 향후 개선사항 공유 가능

4) 추진계획 및 예산소요(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권역별 마을공동체와 마을미디어 상호 네트워크 구축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30	-	-	-
마을미디어 네트워크 및 축제 기획 연구용역	20	-	-	-
마을미디어 네트워크 및 축제 계획 수립 및 추진 (년 6회 + 년 1회)	22 (12+10)	22 (12+10)	22 (12+10)	22 (12+10)
마을미디어 아카이브 사업 계획 연구용역	30	-	-	-
미디어 아키비스트 활용	-	30	30	30
총액	102	52	52	52

5) 기대효과

- 마을미디어 사업의 성과 확인 및 상호 평가할 수 있는 기회이자 이후 마을미디어 사업의 중장기 추진 방향 논의 공론화하는 기회
- 마을미디어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활동가들의 자긍심 고취와 일반 시민들의 미래 마을미디어 활동 참여 독려
- 마을미디어 성원과 관계된 주체들의 모임을 통해 참신하고 창의적 이슈 및 기획 발굴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세부
추진과제 9

마을미디어 종합 지원센터 설립
및 권역별 센터 지정

1) 취지와 배경

- 마을미디어 사업이 서울의 기초 지자체 별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개별 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
- 권역별, 기초 지자체별 마을미디어센터의 총괄적인 운영방향과 지원체계, 비전 수립을 위해서 마을미디어 사업을 서울 전체 시정 방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총괄 지원 기구가 필요
- 시민 교육프로그램 구성, 기술 및 장비 지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체계, 마을미디어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 등 양성 등 마을미디어의 사업 운영 체계를 통일성 있게 만들어 가는 종합적인 지원기구가 요구됨
- 마을미디어의 장기적인 발전과 실질적인 시민 미디어 활동의 활성화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지원기구 설립이 필요함
- 현재 서울시에는 공동체라디오 FM 및 팟캐스트, 마을방송, 마을공유신문 등 지역 풀뿌리 자치활동이 과거보다 활성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 마을미디어 사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마을미디어 센터를 권역별 기초 지자체 별로 확대 운영하는 것이 필요
- 디지털 뉴미디어 시대에 서울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고 미디어를 통한 공동체 및 민주주의 교육을 확산하고, 문화시민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마을도서관이나 문화예술회관, 문화의 집 등 지역기반 문화 인프라의 수준에 걸 맞는 권역별 마을미디어 센터 구축이 요구됨
-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권역별 마을미디어 센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서울시가 센터를 지정하고, 권역별로 구축되지 않는 마을미디어센터는 장기적으로 구축하도록 지원

- 마을미디어 사업이 서울의 기초 지자체 별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개별 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
- 권역별, 기초 지자체별 마을미디어센터의 총괄적인 운영방향과 지원체계, 비전 수립을 위해서 마을미디어 사업을 서울 전체 시정 방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총괄 지원 기구가 필요
- 시민 교육프로그램 구성, 기술 및 장비 지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체계, 마을미디어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 등 양성 등 마을미디어의 사업 운영 체계를 통일성 있게 만들어 가는 종합적인 지원기구가 요구됨
- 마을미디어의 장기적인 발전과 실질적인 시민 미디어 활동의 활성화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지원기구 설립이 필요함
- 현재 서울시에는 공동체라디오 FM 및 팟캐스트, 마을방송, 마을공유신문 등 지역 풀뿌리 자치활동이 과거보다 활성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 마을미디어 사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마을미디어 센터를 권역별 기초 지자체 별로 확대 운영하는 것이 필요
- 디지털 뉴미디어 시대에 서울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고 미디어를 통한 공동체 및 민주주의 교육을 확산하고, 문화시민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마을도서관이나 문화예술회관, 문화의 집 등 지역기반 문화 인프라의 수준에 걸 맞는 권역별 마을미디어 센터 구축이 요구됨
-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권역별 마을미디어 센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서울시가 센터를 지정하고, 권역별로 구축되지 않는 마을미디어센터는 장기적으로 구축하도록 지원

2) 현황 분석

- 현재 서울시의 마을미디어센터는 서울시기 위탁 지원하는 ‘미디어액트 마을미디어센터’를 포함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영상미디어센터, 그리고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지역 공동체라디오 방송국 등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 올해 성북구에서 기초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성북마을미디어센터를 하반기에 설립 예정
- 민선 6기 마을미디어 사업의 공약이행과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는 마을미디어의 추기 설립을 포함 해당 사업을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위의 마을미디어 종합지원센터 설립이 필요
- 서울시와 영화진흥위원회 그리고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마을미디어 사업들이 상시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연합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협의체 수준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종합지원 센터가 부재한 상황
- 현재 서울시가 위탁 운영 중인 마을미디어센터는 1곳에 불과. 서울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마을미디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현재의 센터 수와 운영체제로는 역부족인 상태
- 민간영역에서는 마을미디어 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발적인 활동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음. 서울시에 공동체라디오 단체들을 포함해 20여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마을미디어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한 마을미디어 사업을 통해 민간 활동 조직과 그룹이 자발적으로 형성되었고, 이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마을미디어센터를 기초지자체 별로 단계적으로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사업내용

(1) 마을미디어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 및 실태조사

- 마을미디어 종합지원센터 설립의 타당성과 목표, 추진계획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연구보고서 작성. 연구용역이나 내부 보고서 형태로 마을미디어 활성화 중장기 계획안을 바탕으로 센터의 설립과 위탁 운영단계별 계획이 담긴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술

- 현재 서울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풀뿌리 미디어 조직과 단체들의 현황 파악을 통해서 권역별, 지역별로 조직과 인력 및 활동의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실태조사를 진행

(2) 마을미디어 종합 지원센터 설립 및 권역별 지원센터 지정 공고

- 2016년에 완공예정인 IT-Complex 건물에 1, 2층을 사용하여 서울시마을미디어종합지원센터를 건립
- 마을미디어 종합지원센터 설립 계획에 따라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탁기관 2015년에 선정 공고. 소정의 심사절차를 통해서 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 선정
- 마을미디어 종합지원 센터 설립과 함께 권역별로 마을미디어의 실질적인 교육과 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마을미디어센터를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정

(4) 마을미디어 종합 및 권역별 지원센터 단계별 운영계획 수립

- 종합지원센터 민간 위탁 선정 후에 2024년까지 종합지원센터와 권역별 마을미디어 센터의 운영계획과 발전방안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
- 장기적으로 서울의 25개 기초지자체별로 마을미디어센터 설립 및 지정을 추진. 기초지자체가 공간을 확보하고 서울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설립을 추진
- 기초 지자체 별로 마을미디어센터를 설립할 때, 지역의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마을미디어센터 설립을 추진

4) 추진계획 및 소요 예산(단위: 백만원)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사업내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마을미디어 센터 확대를 위한 연구조사	50	-	-	-
서울마을미디어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	2,600	600	600
마을미디어 권역별 센터 지정 운영지원	715	1,100	1,200	1,400
총액	765	3,700	1,800	2,000

5) 기대효과

- 마을미디어 종합지원센터 설립을 통해서 마을미디어 사업의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수립
- 기초지자체 별 마을미디어센터의 단계별 건립에 필요한 조정기획 역할을 기대 마을미디어 센터의 권역별, 기초지자체별 설립을 통해서 마을미디어의 인프라를 강화하고, 풀뿌리 미디어 활동의 활성화 기대
- 거주 형 마을 단위에서 필요한 미디어 정보가 활발하게 유통되고 시민들의 미디어 수용과 참여의 역량 강화를 기대

세부 추진과제 10

마을미디어 장비 및 공유미디어 기술개발 지원

1) 취지와 배경

- 마을미디어센터의 활성화 및 민간 풀뿌리 미디어운동 단체나 개인들이 미디어 참여활동을 원활하게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활동을 기술적으로 지원해주는 체계가 필요
- 고가의 방송 제작 장비들이나 별도의 장비사용에 있어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마을미디어센터가 장비를 개별 보유하고 교육하는 방식보다는 필요한 인력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대여 및 교육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
- 방송 카메라의 디지털화로 일반시민들이 사용에 불편함을 없지만, 높은 수준의 촬영과 편집을 위해서는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하며, 이 밖에 새롭게 도입되는 미디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이 필요
- 디지털 유비쿼터스 시대에 상업적이거나 주류 미디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와 기술개발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및 콘텐츠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

2) 현황 분석

- 현재 마을미디어 교육과 제작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미디어액트’ 정도밖에 있지 않음
- 마을미디어 활동에 적합한 장비 구입 및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 교육 및 개발에 필요한 특화된 지원 인프라가 시민미디어 활동의 규모와 정도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
- 시민미디어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기관들(지방자치단체,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등)이 서로 달라서 기술 장비들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 시민들의 마을미디어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장비들이 적절하게 제공되고 이를 지원 관리 할 수 있는 마을미디어 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
- 전국미디어센터 현황²⁾

설립주체	운영주체		센터명
문화체육관광부 (14개소)	영상 위원회 계열	(사)제주영상위원회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사)청풍영상위원회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사)전남영상위원회	순천영상미디어센터 '두드림'
	진흥 원 계열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씨눈'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비채'
	문화 재단 계열	(재)김해문화재단	김해영상미디어센터
		(재)부천문화재단	부천영상미디어센터
		(재)고양문화재단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재)성남문화재단	성남영상미디어센터
		(재)강릉문화재단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민간 단체	남구학산문화원	주안영상미디어센터 'CAMF'
		(재)안동영상미디어센터	안동영상미디어센터
		원주민예총/원주시민영상협의회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사)삼동청소년회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미'
방송통신위원회 (2개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방송문화진흥회 (6개소)	직영		경남MBC시청자미디어센터 춘천MBC시청자미디어센터 대구MBC시청자미디어센터 전주MBC시청자미디어센터 목포MBC시청자미디어센터 울산MBC시청자미디어센터

2) 영화진흥위원회 서울영상미디어센터, 『지역미디어센터 실태조사 및 모델연구』, 2013년, 10-11쪽(김희영, 「마을미디어 현황과 과제 지역과 마을,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미디어생태계를 꿈꾸며!」(미디어엑트 12주년 기념 심포지엄, 『전국미디어팔도유람』)에서 재인용)

영화진흥위원회 (2개소)		직영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퍼블릭액세스 실현을 위한 전북네트워크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지방자치단체 (6개소)	서울시	(사)서울영상위원회	충무로영상센터 '오!재미동'
	성북구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아리랑미디어센터
	강서구	직영	강서영상미디어센터
	서울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청소년미디어센터 '스스로넷'
	화천군	강원정보문화진흥원	화천생태영상센터
	옥천군	직영	옥천군영상미디어센터
민간 (2개소)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엑트'
		진주시민미디어센터	진주시민미디어센터

3) 사업내용

(1) 시민들의 미디어 활동 지원에 필요한 장비 및 S/W 프로그램, 적정기술 수준에 대한 실태파악

- 현재 마을미디어와 관련된 시민들의 참여활동에 있어 필요한 장비와 기술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것이 갖추어져야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실태조사
- 실태조사 후에 단계별로 지원 프로그램을 매뉴얼을 작성

(2) 마을미디어종합지원센터에 지원 전담 시스템 구축

- 마을미디어종합지원센터의 중요한 지원사업으로 장비보급 및 기술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시스템을 구축
- 초기 단계에는 마을미디어종합지원센터에서 장비 및 기술지원을 전담하고, 이후에 마을미디어센터가 확대 건립되었을 때, 권역별 거점 형 마을미디어센터에서 이러한 기능을 담당

(3) 장비보급과 S/W 기술지원 및 공유미디어의 적정 기술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 제공

- 연간 정기적으로 마을미디어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환경변화, 마을미디어 활동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 유통할 때 필요한 기술과정에 대해 워크숍 프로그램을 개최

4) 추진계획 및 소요 예산(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장비보급과 기술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실태조사	20	-	-	-
장비보급과 S/W 기술프로그램 도입 *영화진흥위원회 예산 활용	(200)	(500)	(300)	(300)
장비사용과 공유미디어 사용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영화진흥위원회 예산 활용	(100)	(100)	(100)	(100)
총액	20	-	-	-

5) 기대효과

- 안정적인 장비보급과 S/W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을미디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
- 마을미디어종합센터 지원체계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미디어 제작 및 참여에 있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세부 추진과제 11

마을미디어 확산을 위한 제도 지원 및 조직 개편

1) 취지와 배경

- 마을미디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
- 서울시 민선 6기를 맞이하여 시의 주요 정책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위한 조례제정 추진 계획에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함
- 마을미디어 확산을 위한 조례제정은 서울시에서 마을미디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의회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과제
- 마을공동체 사업의 활성화와 종합적인 추진계획과 함께 조례제정 추진을 연동해서 가져가야 하고, 아울러 구 조례 제정과도 연동해서 계획을 수립
- 마을미디어 사업이 서울의 기초 지자체 별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개별 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
- 권역별, 기초 지자체별 마을미디어센터의 총괄적인 운영방향과 지원체계, 비전 수립을 위해서 마을미디어 사업을 서울 전체 시정 방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가 필요
- 시민 교육프로그램 구성, 기술 및 장비 지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체계, 마을미디어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 등 양성 등 마을미디어의 사업 운영 체계를 통일성 있게 만들어 가는 종합적인 지원기구가 요구됨
- 마을미디어의 장기적인 발전과 실질적인 시민 미디어 활동의 활성화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마을미디어 사업에 적합한 지원조직의 새로운 모델이 필요

2) 현황 분석

- 민선 6기 서울시의 핵심 정책과제에 마을미디어 사업의 활성화가 포함된 만큼 그에 걸 맞는 법적, 제도적 지원근거가 필요하나 현재는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채 단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계가 있음
- 마을미디어 사업의 단계적 발전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관련 내용에 대한 서울시 조례제정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과제임
- 현재 마을미디어 사업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내 예술정책팀에서 담당하고 있음
- 예술정책팀은 문화예술정책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서 마을미디어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이 부족한 상황. 마을미디어 사업이 확장되었을 때, 제대로 지원 체계가 마련되지 못할 우려가 생김
- 마을미디어 사업이 시민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산업과나 시민소통실이 아닌 문화예술과에 속해 있는 것은 적절하지만, 마을미디어의 확산 계획을 고려할 때, 전담인력과 새로운 지원조직이 필요한 상황
- 마을미디어 사업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문화예술과 예술정책팀에 존속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마을공동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혁신기획관으로 이관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
- 마을미디어 사업 담당조직 부서 장단점 검토

조직부서	장점	단점
문화예술과 내 예술정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주무부서로서 마을미디어 사업의 연관성과 지속성 ○ 미디어 분야를 다루고 있는 문화예술과의 다른 콘텐츠와 연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정책팀의 다른 사업으로 사업 확대에 한계 ○ 마을미디어 사업이 문화예술과에 적합한 사업인지에 대한 타당성 부족
서울혁신기획관 내 마을미디어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공동체 사업의 전담 부서로서 사업의 전문성 확대 ○ 혁신기획관 담당업무로서 마을미디어의 혁신적 목표 실현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 정책 담당 전문적인 부서로서 한계 ○ 신설 팀으로 되지 않을 경우 마을공동체 사업 기존 팀의 하부 사업으로 배치될 한계

3) 사업내용

(1) 마을미디어 전담 조직 설치 및 부서 이전에 대한 검토

- 시민들의 문화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서 마을미디어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마을미디어 사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
- 마을미디어 사업 담당 부서를 문화예술과 내 예술정책팀에서 담당할지, 서울 혁신기획관 내 마을미디어지원팀으로 신규 조직 개편할지에 대한 검토와 결정이 필요

(2) 마을미디어 활성화 조례제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

-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 및 기초연구에 필요한 연구용역을 실시
- 마을미디어의 개념과 마을미디어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목표와 비전을 제시. 마을미디어 사업의 단계별 계획 제시, 마을미디어의 지원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들을 제시
- 문화예술 분야의 시 조례 검토 및 유사 분야의 시 조례 분석

(2) 마을미디어 활성화 조례 제정 발의안 추진

- 시 혹은 시의원을 통한 조례 제정 발의안 제출
- 신속한 조례제정을 위한 대 서울시 의회활동을 추진
- 조례제정의 신속하고도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여론화 작업 및 충분한 자료 및 정보 제공

4) 추진계획 및 소요 예산(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조례제정 타당성 기초연구 및 조례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30	-	-	-
조례제정 발의안 제출	-	-	-	-
조례제정 홍보 및 여론화 (토론회, 워크숍, 홍보 책자제작 등)	20	-	-	-
총액	50	-	-	-

5) 기대효과

- 마을미디어 활성화 조례제정을 통해서 안정적인 제도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
- 마을미디어 활성화 조례제정을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다른 광역 지자체에 좋은 선례를 남김
- 마을미디어를 전담하는 지원조직을 신설함으로써, 마을미디어의 확산과 지원 내실화를 이룰 수 있음
- 마을미디어 확산에 필요한 서울시 기초 지자체와 상시적인 협력이 강화될 수 있으며, 마을미디어의 인프라지원, 교육 프로그램개발, 인력양성, 마을 정보 네트워크 등의 세분화된 지원 방안들이 현실화할 수 있음
- 마을미디어의 지역 파급효과와 마을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음

세부 추진과제 12

마을미디어 여론홍보를 위한 연구 지원

1) 취지와 배경

- 마을미디어 사업이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지기 위해서는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마을미디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
- 국내외 마을미디어와 시청자 미디어 운동의 역사, 자율적인 방송을 통한 공동체 문화 형성의 사례 발굴에 대한 조사가 필요
- 마을미디어의 개념, 마을민주주의의 의미, 공동체미디어운동의 사회적 역할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학술연구를 통해 마을미디어 사업의 기반을 강화
- 급변하게 변하는 미디어 기술 환경에서 마을미디어의 환경변화와 비전 및 전망 수립을 위해서 담론활성화와 연구지원이 필요

2) 현황 분석

- 마을미디어와 관련된 홍보 여론화는 현재 마을미디어센터에서 제작한 홍보물(2013년 마을미디어 홍보영상, 활동보고서 등)이 있음
- 2013년에 "마을미디어 특강 및 네트워크 운영", "세계공동체라디오 서울대회 개최('13.12. 2 ~ 5) 지원(20개국 300여명 참가)", "마을미디어축제 개최('13.12. 6, 시민청, 300여명 참여) 등 마을미디어 사업의 홍보와 여론화에 기여
- 마을미디어의 개념과 역사, 이론적 기초 및 해외 사례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

3) 사업내용

(1) 마을미디어를 여론 확산을 위한 마을미디어 사업 관련 홍보 영상 및 리플렛 제작

- 마을미디어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미디어 활동 성과 및 추진 사업에 대한 홍보 영상 제작

(2) 마을미디어의 담론활성화를 위한 학술연구 지원

- 마을미디어의 개념, 마을미디어와 마을민주주의, 마을미디어와 시민자치의 의미를 학술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

(3) 마을미디어 지역 조직들이 마을미디어에 대해 협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정기포럼 개최

- 마을미디어지원센터를 포함하여 지역의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는 마을미디어 조직들의 연대와 소통을 위한 정기적인 포럼을 지원

(4) 마을미디어, 공동체라디오, 오픈소스, 디지털미디어 플랫폼 제작 관련 연구워크숍 개최

- 마을미디어 적정기술, 마을미디어 플랫폼, 마을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공동 워크숍을 개최

(5) 마을미디어 공동체미디어 관련 국제 담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마을미디어 국제비엔날레 서울 정기 개최

- 서울시 마을미디어 활동의 국제 교류와 국제 마을미디어 활동의 사례들을 교환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서울 마을미디어 국제비엔날레를 개최

4) 추진계획 및 소요 예산(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마을미디어 홍보 영상 및 리플렛 제작	50	50	50	50
마을미디어 학술연구 지원	30	30	30	30
마을미디어 정기포럼 개최	30	30	30	30
마을미디어 연구워크숍	50	50	50	50
마을미디어 국제비엔날레 개최	-	300	-	300
총액	160	460	430	4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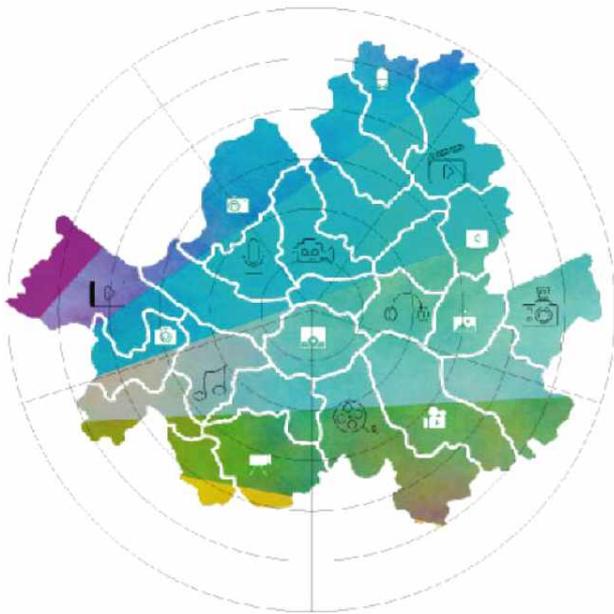
5) 기대효과

- 마을미디어에 대한 이론, 개념, 실천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연구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
- 관련 홍보물의 정기적인 제작으로 마을미디어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를 유도
- 포럼과 워크숍을 통해 마을미디어의 사업평가 및 비전, 전망 수립
- 마을미디어 국제 비엔날레 행사를 통해서 서울시가 공동체 미디어 운동에서 주도적인 협치 모델을 제시



5부

마을미디어 활성화 추진체계와 소요예산



5-1. 마을미디어 연도별 발전 계획 (2015-2024년)

(단위: 개/명, 백만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20년	2022년	2024년	
1	종합지원 센터	수	-	1(1)	(1)	(1)	(1)	(1)	
		예산	-	2,700	2,700	2,700	2,700	2,700	2,700
	권역별 센터	수	-	1(1)	1(2)	2(4)	2(6)	2(8)	2(10)
		예산	715	1,100	1,200	1,400	1,600	1,800	2,000
2	라디오/ TV방송국1)	수	4(22)	4(26)	4(30)	5(35)	5(40)	5(45)	5(50)
		예산	220	260	300	350	400	450	500
3	신문/ 잡지1)	수	1(9)	1(10)	1(11)	1(12)	1(13)	1(14)	1(15)
		예산	90	100	110	120	130	140	150
4	사회적 기업	수	3(3)	4(7)	4(11)	4(15)	4(19)	4(23)	4(27)
		예산	1,380	2,260	2,700	3,100	3,500	3,900	4,300
5	교육 프로그램2)	수	50	80	100	100	120	120	120
		예산	500	800	1,000	1,000	1,200	1,200	1,200
	활동 프로그램2)	수	35	40	45	50	55	60	70
		예산	405	435	460	610	610	635	810
6	교육 참여자3)	수	1,000	1,500	1,800	2,100	2,400	2,700	3,000
	활동 참여자3)	수	2,000	2,500	2,800	3,100	3,400	3,700	4,000
7	큐레이터	수	7(7)	6(13)	6(19)	6(25)	6(31)	6(37)	6(43)
		예산	70	60	60	60	60	60	60
총 예산		3,380	7,715	8,530	9,340	10,200	10,885	11,720	

- 1) 2014년 7월 기준 미디어 수: 총 26개(라디오 16개, 영상 2개, 신문 5개, 잡지 3개)
- 2) 2013년 기준 교육 프로그램 40개, 활동 프로그램 25개
- 3) 2013년 기준 교육 참여자 약 700명, 활동 참여자 약 1,500명
 - * () 안은 누계
 - * 예산 산출근거
 - 라디오방송국(아이템형), TV방송국(아이템형/매체형), 신문/잡지(아이템형/매체형)
1개 매체당 10백만원
 - 사회적 기업: 1개 기업당 1년에 10백만원 기준,
1년차 80%/2년차 70%/3년차 이후 50% 지원
 - 교육 프로그램: 건당 최대 10백만원, 첫해 최소 50건에서 점차 확대
 - 활동 프로그램: 아이템형은 건 당 최대 5백만원 / 첫해 최소 20건,
매체형은 건 당 최대 30백만원 / 첫해 최소 10건,
코디네이터형은 건 당 최대 1백만원 / 첫해 최소 5건에서 점차 확대
 - 교육 참여자 / 활동 참여자: 2016년까지 연 500명, 이후 연 300명씩 증가
 - 큐레이터: 1인당 10백만원(양성 지원만 시 차원에서 하고, 운영 지원은 각 구에서 담당)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20년	2022년	2024년
 종합지원센터	-	1	1	1	1	1	1
 권역별 센터	-	1	2	4	6	8	10
 라디오/TV방송국	22	26	30	35	40	45	50
 신문/잡지	9	10	11	12	13	14	15
 사회적 기업	3	7	11	15	19	23	27
 교육 프로그램	50	80	100	100	120	120	120
 활동 프로그램	35	40	45	50	55	60	70
 교육 참여자	1,000	1,500	1,800	2,100	2,400	2,700	3,000
 활동 참여자	2,000	2,500	2,800	3,100	3,400	3,700	4,000
 큐레이터	7	13	19	25	31	37	43

5-2. 마을미디어 활성화 추진체계와 일정





2020년	권역별 마을미디어 센터 추가 지정 제3회 마을미디어 국제비엔날레 개최 권역별 마을미디어 큐레이터 확대
-------	--



2022년	권역별 마을미디어 센터 추가 지정 제4회 마을미디어 국제비엔날레 개최 권역별 마을미디어 큐레이터 확대 마을미디어 관련 사회적 기업의 확대
-------	---



2024년	권역별 마을미디어 센터 추가지정(25 자치구 완료) 제5회 마을미디어 국제비엔날레 개최 공동체라디오 FM 추가 개국 권역별 마을미디어 큐레이터 확대 마을미디어 관련 사회적 기업의 확대
-------	--

5-3. 소요예산(2014년-2018년)

추진사업	연도별 예산(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총계
맞춤형 마을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710	860	1,060	1,060	3,690
마을미디어 교육 전문인력 양성	140	100	100	100	440
마을미디어 동아리 활동, 방송국, 방송 채널, 신문 제작 활동 지원	855	865	940	1,150	3,810
마을미디어 청년 사회적 기업 연계	-	-	-	-	-
마을미디어 고유 콘텐츠 제작지원 및 주류미디어 공적 감시활동	70	60	60	60	250
마을미디어 콘텐츠 유통, 보급 활성화	376	306	336	306	1,324
창의적 마을정보 네트워크 구축	115	30	30	10	185
마을미디어 연합 활동 및 페스티벌 지원	102	52	52	52	258
마을미디어 종합 지원센터 설립 및 권역별 센터 지정	765	3,700	1,800	2,000	8,265
마을미디어 장비 및 공유미디어 기술개발 지원	20	-	-	-	20
마을미디어 확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조직 신설	50	-	-	-	50
마을미디어 여론홍보를 위한 연구 지원	160	460	430	460	1,510
총계	3,363	6,433	4,808	5,198	19,802

부록 : 참고문헌

- 개미 (2013). [ACT! 86호 미디어인터내셔널] 라디오로 마을을 여행하는 히치 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 「커넥트: 트랜스미트(Connect: Transmit)」 을 소개합니다.
- 개미 (2014). [ACT! 88호 미디어인터내셔널] 민중에게 33%를! - 남미의 퍼블릭액세스 33% 할당 전략.
- 김명준 (2005), [진보적 미디어 운동 저널 제22호] 퍼블릭 액세스에 대한 여덟가지 질문 -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넘어서서,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운동을 위한 숨고르기.
- 김은규(2005). 다윗과 골리앗을 넘어서: 대안미디어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논의 통과 그 함의. 『한국언론학보』, 49(2), 255-294
- 김은규, 최성은(2013). 정규방송 도입 이후 공동체 라디오 운영구조 및 정책에 대한 평가적 고찰. 『언론과학연구』, 13(3), 184-214.
- 김태훈(2013. 12. 27). [사회]지역 공동체라디오 ‘아름다운 밀착’. 주간경향 1055호.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2012).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2012 정책보고서 2 『공공미디어와 미디어 균형발전』.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2013).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미래창조과학부.
- 박채은(2012). 공동체라디오방송발전법 제정 방안. <공동체라디오방송 발전 법제도 개선: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8> 발표문. 16-35.
- 서울특별시(2013). 『2013 서울100서』.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2013). 서울시 마을공동체 백서 「서울·삶·사람」. 서울특별시
-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2014). 『2013 마을미디어활성화사업』 결과자료집.
- 스티브버클리(2004). 공동체 라디오 방송 - 국제적 전망. <미디어트 포럼 3rd지역공동체라디오운동 활성화를 위한 국제토론회> 발표문. 8-24.
- 오마이뉴스특별취재팀(2013), 『마을의 귀환』, 오마이북.
- 유선영 (2005). 『한국의 대안미디어』. 한국언론재단.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 전국공동체라디오협회·한국커뮤니티라디오방송협의회·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세계공동체라디오연합 동.아시아위원회(2011). <지역 재난방송과 공동체 라디오> 정책토론회 자료집. 전국공동체라디오협회
- 정대필(2008). 위성, 공동체라디오, 인터넷 다양한 채널로 소통—국내 에스닉 미디어 현황. 신문과방송, 9월호, 120-125.
- 정보통신부(2004). 소출력 방송 8개 시범사업자 허가 추진현황. 정보통신부.
- 정상윤(2007). 공동체라디오방송의 공적 지원 필요성. <공동체라디오 공적지원 정책 토론회 자료집>. KACR 한국커뮤니티라디오방송협의회(1월 30일).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전국미디어센터 협의회(2014), 『지역문화융성과 영상미디어센터 역할모색』 심포지엄 자료집
- 조동원(2004). 라디오 운동 이제 시작이다! : 공동체 라디오 운동의 역사적 쟁점과 의미. 『열린미디어 열린사회』, 11호. 열린미디어연구소.
- 최성은(2010). 국가규제와 공공지원이 공동체미디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영국, 호주, 미국, 캐나다, 한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성은(2012). 공동체라디오방송 법안의 필요성 및 해외사례. <공동체라디오방송 발전 법제도 개선: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8> 발표문. 3-15.
- 최성은 (2013. 4. 15). [ACT! 83호 미디어인터내셔널] 미국 공동체라디오(LPFM) 새로운 전환점을 맞아! - FCC, 공동체라디오를 위한 주파수 확보와 신규 공동체라디오 허가 신청정책 발표.
- 최성은 (2013. 6. 30). [ACT! 84호 미디어인터내셔널] 캐나다 공동체라디오 신규기금 지원 프로그램, “라디오미터”.
- 최성은(2014). 『공동체라디오』. 커뮤니케이션북스.
- 최영목(2005). 『시민미디어론』. 서울: 아르케.
- 하주영(2004). 공동체 라디오의 특성과 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하주영(2004). 한국의 공동체 라디오 운동 상황 및 쟁점. <미디어엑트 포럼 3rd지역공동체라디오운동 활성화를 위한 국제토론회> 발표문. 26-48.
- 한국전파진흥원(2010). 공동체라디오방송 평가 및 정책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 한선·이오현(2008). 한·미 공동체 라디오 비교연구: 하위 공론장 역할을 중심으로 한 질적 연구. 언론과 사회, 16(4), 79-114.

- Atton, C. (2002). *Alternative Media*.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Boler, M. (ed.) (2008). *Digital Media and Democracy: Tactics in Hard Times*, Cambridge: MIT Press.
- Couldry, N. & Curran, J. (2003). *Contesting Media Power: Alternative Media in a Networked World*. Rowman & Littlefield.
- Coyer, K., Downum, T., & Fountain, A. (Eds.) (2007) *The Alternative Media Handbook*. New York: Routledge.
- Downing, J. (2001). *Radical Media*.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Harold, C. (September 2004). Pranking Rhetoric: "Culture Jamming" as Media Activism. *Critical Studies in Media Communication* 21. pp. 189-211.
- Garcia, D. & Lovink, G. (1997) *The ABC of Tactical Media*. Available at: Nettime Mailing List. Web. <http://amsterdam.nettime.org/Lists-Archives/nettime-1-9705/msg00096.html>
- Rodríguez, C. (2001). *Fissures in the Mediascape*. Cresskill, NJ:Hampton Press.
- Rodríguez, C. (2011). *Citizens' media against armed conflict : disrupting violence in Colombia*.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AMARC 홈페이지(<http://www.amarc.org>).
- AMARC Asia-Pacific 홈페이지(<http://ap.amarc.org>).
- CRFC 홈페이지(<http://www.communityradiofund.org>).
- Connect: Transmit 홈페이지(<http://www.connecttransmit.org.uk>).
- 서울 마을미디어 뉴스레터 마중(<http://maulmedia.tistory.com>).
- 진보적 미디어운동 연구저널 ACT!(<http://actmediact.tistory.com>).
- CTRC (2010). *Broadcasting Regulatory Policy*.
- CRTC (2011). *Broadcasting Regulatory Policy*.
- CRTC (2012). *Broadcasting Regulatory Policy*.
- CRFC (2012-2013) *Annual Report*.
- Hall, A. (2013. 2. 1). *South America: A Panorama of Media Democratization*. [Online] Available: <http://www.democraticunderground.com/11088939>.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집필진: (사)문화사회연구소

발행인:

발행일:

발행처:

발행담당자:

[비매품]

※ 본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를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